

白頭大幹

五色嶺




襄陽文化院

白頭大幹

五色嶺



襄陽文化院



발간사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병신년(丙申年) 한해는 국정농단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에도 문화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향토 사료를 발굴 보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명6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고장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관문인 오색령(五色嶺)에 대하여 연구와 자료를 정리하여 · 백두대간 오색령 · 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양양부와 인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양부에 속한 오색리와 인제현에 속한 한계리에서 영의 기능과 관련된 지역은 출발점인 오색리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양양부에서 내륙인 경사((京師)서울)로 통하는 길은 오색령과 소동라령이 있었습니다.

본 책 발간의 목적은 오색령(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북면을 연결하는 고개, 해발 920m)의 실체를 바로 찾기 위해서 고문헌 · 고지지 · 고지도를 토대로 조사 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한계령으로 왜곡 기록된 것이 명백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2011년 8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제26회 향토자료 공모전에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이종우 소장과 이규환 연구원이 공동으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논문부문에 응모하여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자료를 요약하여 만든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할 때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 잡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아름다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 사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의 열과 슬기가 우리 생활속의 미풍양속으로 뿌리 내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색령 관련 자료조사와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성원으로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양문화원장 윤 여 준





오색령 화보



〈그림 1〉 오색령 정상



〈그림 2〉 눈 덮인 오색령



〈그림 3〉 오색 주전골



〈그림 4〉 오색 단풍



오색령 도로공사 이모저모



〈그림 5〉 오색령 도로공사 현황



〈그림 6〉 도로 개통식 행사



〈그림 7〉 테이프 커팅



〈그림 7〉 강원도지사, 1군사령관 도로 시찰



〈그림 8〉 오색관광도로개통



〈그림 9〉 오색령 도로공사 유공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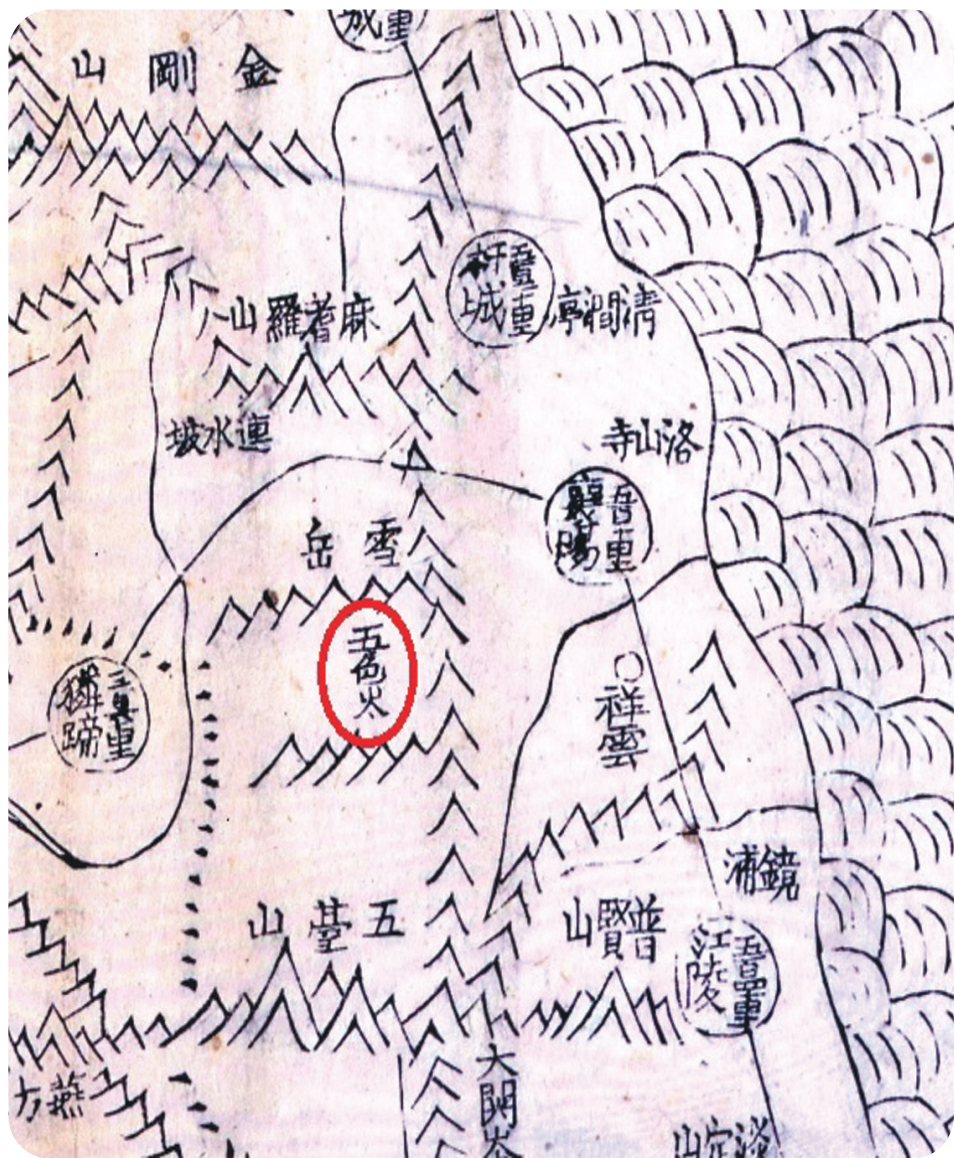


오색령 및 소동라령 표기 고지도



〈그림 1〉 광여도(廣與圖) - 양양부

서울대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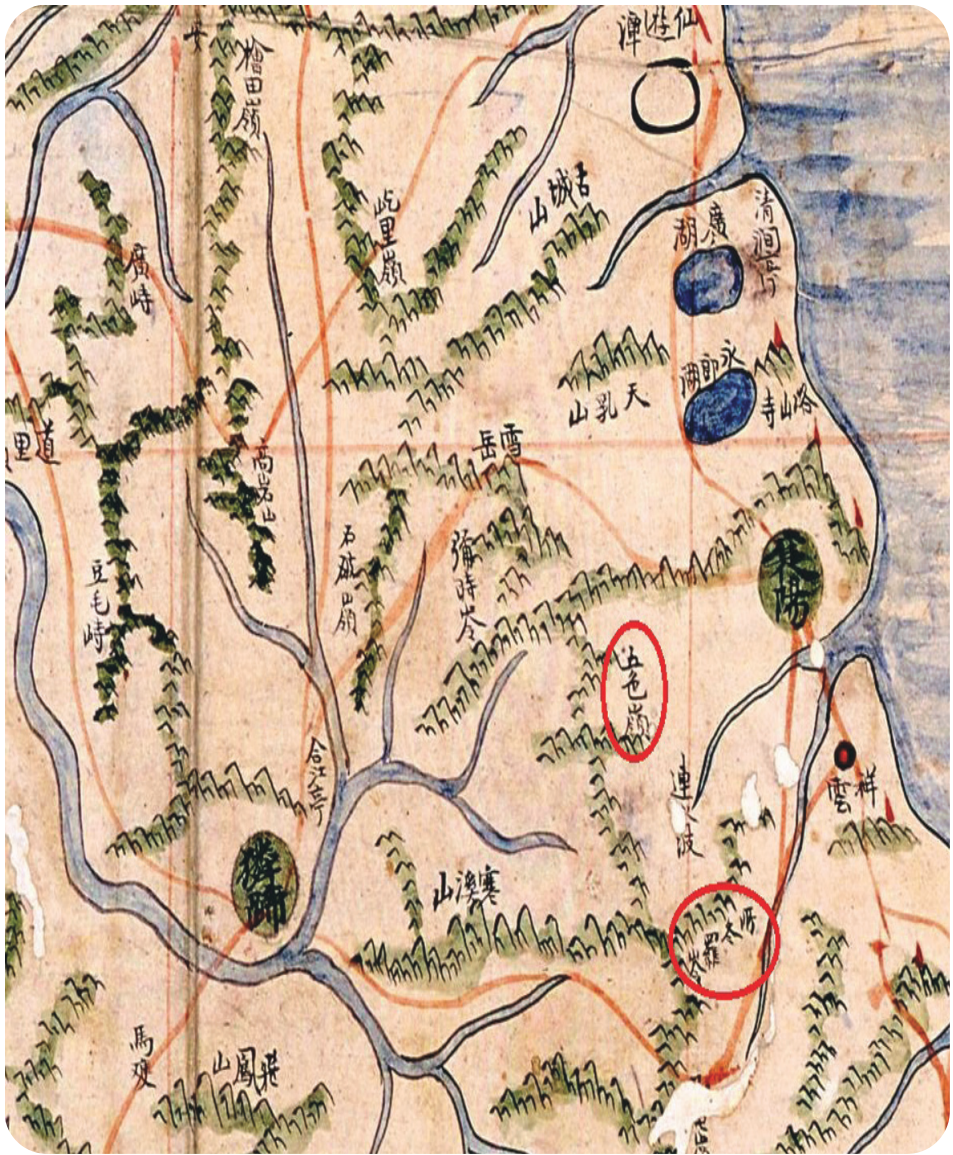


〈그림 2〉 접역지도(鑿域地圖)



〈그림 3〉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

國立中央圖書館



〈그림 4〉 아동여지도(我東與地圖)

國立中央圖書館



〈그림 5〉 동국지도-강원도(東國地圖-江原道)

國立中央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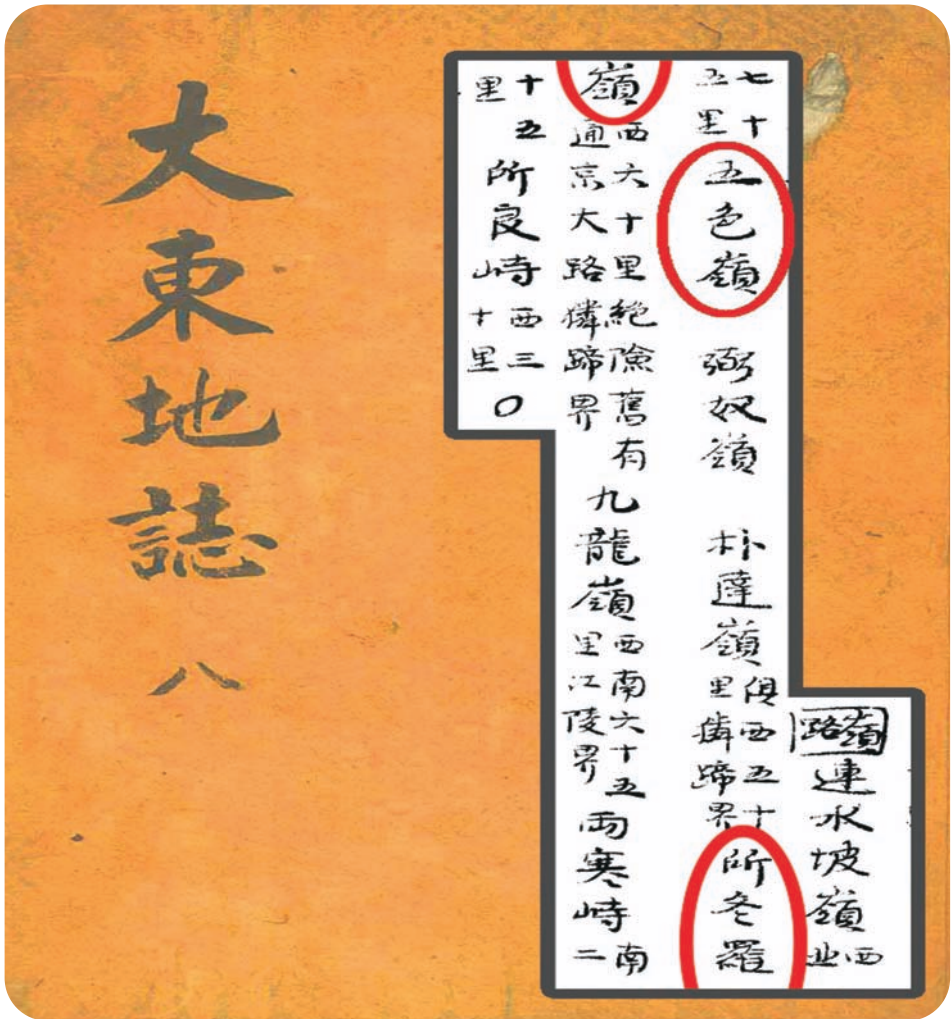


〈그림 6〉 동국팔역도-강원도(東國八域圖-江原道)

國立中央圖書館



오색령 표기 지리서 및 읍지



〈그림 1〉 대동지지(大東地誌)

襄陽府邑誌全

關阨五色嶺在府西五十里即是弱如嶺在府南四十里春川接蹄五
界阻沉峯在府南四十里接構蹄界九龍峯在府南四十里接江
法界金川在府南四十里接江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17514
	一部冊數 1
	內別番號
서울대학교	

〈그림 2〉 양양부읍지(襄陽府邑誌)

襄州邑誌

嶺阨

五色嶺在府西七十里由北入京則北彌坡路短五
十里嶺下舊有驛基館墟以峽川之險移驛於杆城
之元巖嶺之稍北有溫泉村右尹旣正以為湯水之
效無減於高城并云

〈그림 3〉 양주읍지(襄州邑誌)

光武五年八月 日麟蹄郡先生案邑誌

襄陽界五色巔在縣東^{七里}曲首潭禁山在縣東^{七里}襄陽界龍岱禁山

在縣北^{八里}杆城界合江在縣東^{五里}合江里村前沅下春川界

상명고
915.16
In 4

〈그림 4〉 인제군선생안읍지(麟蹄郡先生案邑誌)

차례

I. 머리말	21
II. 寒溪嶺이 옛 五色嶺인 根據들	24
1. 寒溪嶺 옛 이름은 所率嶺	24
2. 所率嶺이 五色嶺인 根據	25
3. 日帝強占期에도 五色嶺인 根據	30
III. 古地圖를 통한 所冬羅嶺 位置	44
1. 所冬羅嶺 位置	44
2. 所冬羅嶺의 文獻記錄	46
3. 所冬羅嶺의 境界記錄	47
4. 所冬羅嶺의 흔적(痕迹)	49
IV. 襄陽 五色嶺으로 復元은 當然	62
V. 맺는말	66
〈附錄〉	
I - 1. 五色嶺 地名에 관한 考察	63
I - 2. 朝鮮時代 襄陽府 所冬羅嶺의 考察	99
II. 五色嶺과 所冬羅嶺이 標記된 古記錄	125
III - 1. 1959년 지명조사 자료(인제군)	143
III - 2.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150
IV. 五色嶺이 標示된 古地圖	157
V. 五色嶺 地名變更을 爲한 日誌	192

I

머 리 말

오색령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30번지이며 해발 1,004m로 예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영로였다. 고문헌에 처음 부른 것은 소솔령(所率嶺)이라 했는데, 선조 29년(1596) 2월에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병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이 영(嶺)을 넘을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오색령의 효시(嚆矢)이다.

조선 말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의 고본(稿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여도(東輿圖)에 오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각종 고지도(古地圖)와 고지지(古地誌)에 한결같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색령 도로에 대한 일제강점기 공식적인 기록은 조선총독부가 1913년도 관보에 3등 도로로 고시한 것과, 1923년도에 영서의 춘천·홍천·양구·인제 4개 군의 찬동 하에 각 군별로 당시 강원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영동에서도 강릉·삼척·울진군의 역장동성(亦將同聲) 협찬한 결과 강원도는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로 개설 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조선총독부 매일 신보에 밝혀졌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행정내적으로 오색령 도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1915년도에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 지도에 한계령 지명을 표기 한 것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사용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9년경에 전국의 지명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대상은 지도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명에 한해 조사토록 되었다. 그 당시 지도상에는 오색령 지명은 누락되어 양양군에서는 보고할 수 없었으나, 인제군에서는 한계령이 지도에 표기되어 있어 보고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제군 북면 지명제정위원회는 한계령의 지명유래를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써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 이라고도 함” 을 국무원에 보고 한 것을 1961년 4월 22일 전국지명을 고시할 때 한계령도 함께 확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양양문화원은 지난 9월에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오색령 정상에 기존에 설치한 소형 표석을 제거하고 “백두대간 오색령”이라 각자한 대형 표석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군민정서에 반한 지명변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며 반드시 오색령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군민의 단합된 의지 표명이다.



〈그림 1〉 오색령 정상의 표석

본고는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에서 2011년도에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제2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논문부문 최우수상을 수한 바 있는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과 2012년에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소동라령에 대한 고찰”의 두 논문의 핵심내용은 잘못된 한계령 지명을 오색령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같은 의미의 논문임으로 이원화 보다는 합편하여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 오색령으로 지명을 복원하는데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II

寒溪嶺이 옛 五色嶺인 根據들

1. 寒溪嶺의 옛 地名은 所率嶺

우리는 소동라령이나 한계령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계령인 옛 지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¹⁾라고 적고 있다.

추장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²⁾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1) 『팔곡집(八谷集)』 한계산(寒溪山) / 시(詩) / 주석(註釋)

古寺 卽寒溪寺 自襄陽所率嶺 抵麟蹄舊路 經由寺下往來人 必投宿于寺 寺僧不堪迎接之苦 不肯居住 遂致空廢 今則頽圯已久 只有舊基 砌礎宛然 曾是巨刹也

오색에서 장수대[한계사 부근]를 지나 인제를 통하는 지금의 한계령 옛 이름은 소솔령 이었다.

2. 所率嶺이 五色嶺인 根據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과[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이용이 많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복잡한 고개명칭(소과령, 소솔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의 혼돈으로부터 오색역을 지나는 영로라는 지명을 통해 고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수증(金壽增)의 『한계산기(寒溪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乙未°發五色驛°度所率嶺°雪岳亂嶂°無慮數十餘°峯皆頭白°溪邊石木亦白°俗號小金剛山°非虛語矣...余於嶺上辭東海...自元通履平地...宿麟蹄縣,

3) 備邊司【去正月三十日, 備忘記回啓也】啓曰: ……賊兵由慶尙道寧海, 沿海以北, 則平海蔚珍, 當先受敵° 此處若失, 而賊兵深入於嶺東, 則楸池嶺° 彌水坡° 五色嶺° 白鳳嶺等處, 皆爲踰嶺之路, 不可不備也° ……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記文) 중에 “한계사(寒溪寺) 옛터를 지나니 북쪽편의 모든 산봉우리들은 곧게 솟아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여 (생략)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사 터를 지나 인제로 가는 영이 소솔령임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었다. 그런데 한계사 옛터를 지나면서 지나가는 스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오색령을 거쳐 양양으로 간다고 하고 있다. 이로서 소솔령이 오색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의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동유록(東遊錄)에도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과령을 이룬다.”라고 적고 있으며⁵⁾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의 『금강산총기』 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서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고개가 팔백리를 관통하며, 온정령에서 남쪽으로 삼십리 지점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동해 바다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 진보령이 되며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과령,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 되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르고, 삼십리 거리에 대관령이 되고, 사십리 거리에 백복령이 되고, 백리 거리에 태백산과 황지가 된다. 이것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

4) 考亡何歷寒溪寺舊基° 北面諸峯矗立森羅° (생략) 至溪邊石上午飯° 逢過去僧° 問其何向° 則曰由五色嶺至襄陽° 蓋此距海路八十里云°

5) 曹砧之北爲五色嶺° 其東則襄陽° 西則麟蹄° 五色之北爲彌時坡嶺.

위아래의 형승이 막히고 험준한 모습의 대략이다.”6)라고 적고 있다.

『증보문헌비고』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 “양양 오색령은 서쪽 50 리에 있다. 산의 총설에 나타나 있다. 영로(嶺路) 오색령은 양양영로로 필여령과 함께 서로(西路)이며,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로, 형제현, 양한치 모두 서쪽로이다.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홀이령·탄둔령·두모치·건리치·오색령·서파령·가노치·진보령이다.”7)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앞에서 본 고지도들에서도 소솔령과 오색령이 함께 표기된 지도는 없으면서도 모든 고지도에서 소솔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계사에 투숙객이 많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절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던 소솔령 지명이 모든 지도에서 사라졌다면, 문헌상에 필여령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도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오색령이 과거의 소솔령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오색령은 당시에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로로 지금의 한계령(옛 오색령)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오색령으로 표기된 고지도는 무려 5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 지도명은 다음과 같다.

6)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鎮 溫定三大嶺 通八百里 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遵海百里爲眞寶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 彌峙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爲大關嶺 四十里爲百複嶺 百里爲太白·黃池 此其上下形勝阻阨大體也.

7) 『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 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弼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陵路 兄弟峴 兩寒峙並西路 麟蹄嶺路 味施嶺……屹伊嶺 炭屯嶺……頭毛峙……建里峙……五色嶺 見襄陽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

- 광여도(廣輿圖)(양양)
- 광여도(廣輿圖)(인제)
- 해동지도(海東地圖)(양양)
- 해동지도(海東地圖)(인제)
-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양양)
-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인제)
- 여지도(輿地圖)(양양)
- 여지도(輿地圖)(인제)
- 지승(地乘)(양양)
- 지승(地乘)(인제)
-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양양)
- 조선지도(朝鮮地圖)(인제)
- 동여도(東輿圖)
- 청구도(靑邱圖)
- 청구요람(靑邱要覽)
- 동역도(東域圖)(강원도)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 강원도)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屏 강원도)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奎 강원도)
- 여지도(輿地圖)(강원도)
- 여지도(輿地圖)(2책 강원도)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奎 10333)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古 4709-14)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古 4709-23)
- 좌해지도(左海地圖)(강원도)
- 좌해분도(左海分圖)(강원도)
- 지도(地圖)(강원도)

- 팔도분도(八道分圖)(東關)
- 해동지도(海東地圖)(강원도)
- 관동지도(關東地圖)(2책)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 대한신지부도(大韓新地志附地圖)(강원도)
- 해동총도(海東總圖)
- 여지도(輿地圖)
- 좌해여도(左海輿圖)
- 동국팔역도(東國八域圖)(강원도)
- 청구도(靑邱圖)109.양양2
-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강원도)
- 동국지도(東國地圖)(강원도)
- 대동지도(大東地圖)(관동)
- 좌해전도(海左全圖)
-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 접역지도(鰈域地圖)(강원도)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
- 해좌전도(海左全圖)
- 팔로지도(八路地圖)(강원도)
-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
- 대한지도(大韓地圖)(양양)
- 대한지도(大韓地圖)(인제)

3. 日帝强占期에도 五色嶺인 根據

일제강점기에도 행정내적으로 오색령 지명을 공식화하여 사용 하였다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관보(1913. 1. 21)에 고시 되었는데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라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 1922. 12. 6.)에 의하면 양양군에서는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규약(五色嶺 通過 期成同盟規約)을 만들어 3개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목표를 세우는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에 따라 1922년 12월 6일부터 양양 오색령로를 2등 도로로 개착(開鑿)해야 한다는 진정서(陳情書)를 영서에서는 춘천을 시작으로 홍천, 인제, 양구에서 연쇄적으로 강원도 당국에 제출하였고, 영동에서도 강릉, 삼척, 울진 등에서 오색령 도로 개착(開鑿)을 찬성한다는 한목소리를 내었다.

당시 본 도 당국으로부터 오색령 도로 직로(直路)답사 하명이 있자 양양군수 박재수(朴在洙)는 당지 관민유지(當地官民有志) 45명을 대동하고 조침령(鳥砧嶺)을 통해 인제군 현리를 경유하고 인제군청을 방문 인제군수 김극일(金極一)과 원만한 협정을 마친 후 오색령 도로를 시찰하고 귀청하였다고 기록되었다.

1932년 3월 15일에는 인제 북면 주민 800여 명은 연서날인 하여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

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 당국과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 하였다고 동아일보에 대서 특필보도 된 바 있다. 그 외 오색령을 2등 도로로개착(開鑿)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스크랩 하였다.



〈그림 2〉 襄陽 五色嶺 通過 期成同盟規約(1922. 12. 6)

既報와 如히 襄陽郡에서 組織된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 期成同盟會規約은 左와 如하더라

第1條 本會는 襄陽郡 興亡問題인 襄陽麟蹄間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여 左記 方法에 依하여 向三個年 間을 期하여 完成하기로써 目的함.

(1)本會는 每年五萬圓式 三個年間에 合計 十五萬圓을 工事費에 寄附의 조건으로써 至急하 此기 決行方을 當局에 請願 할 事.

(2)急速決行請願하기 爲하여 陳情委員을 派遣할 事.

(3)陳情委員은 當局의 決定을 經함에 至하기까지 間斷없이 郡望의 完建을 力行하기로 함.

(4)本會員인 郡民은 目的을 達키 爲하여 空費를 節하고 夙夜生業에 厲精하되 殊히 閑散時는 副業을 與하여 自己의 負擔한 曾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

白頭大幹 五色嶺

達케 할 事.

第2條 本會는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同盟會라 稱함.

第3條 本會는 襄陽郡民으로써 組織함.

第4條 本會事務所는 襄陽面事務所內에 置咸.

第5條 本會에 左의 役員을 置함.

會長1 副會長2 書記6 評議員 50名으로 하고 任期는 2個年으로 함.

第6條 役員評議員은 各面 每每 定員을 選出하고 會長 副會長 書記는 評議員 會에서 選 定함.

第7條 會長은 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理 함.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會長이 事故가 有할時 늘 此를 代理할 會長副會長共히 事故가 우홀 시는 評議員 會에서 此를 定함. 書記는 庶務及 會舍에 任함. 評議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여 會務의 執行及 監査에 任함. 各員은 總히 名譽職으로 함.

第8條 會議는 必要에 應하여 開會 함.

第9條 豫算의 編成及 規約의 協定及 改訂其他 重要事項은 役員 總會로써 評決하고 其他 事項은 邑內附近의 役員으로써 協定함. 各面은 役員總會에 際하여 特別의 境遇를 除한 外面長의 職에 在한者로써 總代로 할 事.

第10條 議事는 出席人員의 過半數로써 決 함.

第11條 會議는 決議錄을 作口하여 議長及 評議員 2名 以上 署名함.

제12조 陳情委員의 旅費 其他의 經費는 必要에 應하여서 會員으로 釀出함.

第13條 會費의 割當은 面賦課 率을 標準 하기로 함.

第14條 篤志家로 寄附를 受할時는 永久에 紀念方法을 採할 事.

第15條 諸帳簿를 備付하여 金錢의 出納을 證明케 함.

第16條 現金은 會名으로써 郵便局 又は 金融組合에 預金 함.

第17條 會員은 何時든지 帳簿其他書類를 閱覽할 事를 得 함.

第1條 1項 附記

第1項 預金 外 夫役을 工事費 中에 寄附할 事(春川)



〈그림 3〉 襄陽直通的 必要로 春川에서도 陳情(1922.12.6)

京城五里 津線이 杆城線으로 變定됨에 對하여 方今 襄陽으로 陳情委員이 上道하얏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此에 對하여는 春川一般이 舉贊贊助 하는바 異口同說로 春川發展策은 寧히 杆城을 開鑿함보다 襄陽을 開鑿함이 必要라 云하는바인대 勿論 春川入場으로는 杆城도 開鑿하고 襄陽도 開鑿되면 더욱이 滿足타 謂할지나 若杆城만 開通되고 襄陽은 開通치 아니하면 도리혀 襄陽으로 開鑿함이 春川에서 하는 影響이 多하다. 認하는 同時에 本月 日에는 春川邑內 有力者 多數가 春川郡廳에 集會하여 萬端協議 한 結果 陳情委員을 選定하여 上道하얏스며 又是 左와 如한 陳述書 까지 提出 하얏다 하더라.

陳情書

京城東海岸間의 路線에 對하여 釋컨대 地方 發展策 特히 春川의 發展策으로 하여 卑見을 陳하야 當局의 諒解를 求코자하오니 賢察하야 주시기를 望하와 左記 理由를 具하야 陳述함.

1. 春川의 位置에 對하야 論하면 春川은 西으로 京城이 二十餘里 東으로 東海岸 三十里 北은 華川이 十里 南은 洪川이 十里 인바 西,南,北의 交通 不完全의 時代에는 春川邑內戶數 三四百戶에 不過하더니 交通機關이 完備된 今日에 在하야는 頓然히 一千五六百戶에 達하얏스니 若 今日로 東海岸을 直通될時는 不過 幾年

에 幾千百戶에 達할줄로 預想함.

2. 春川 物貨 輸入先을 論하면 第一位는 東海岸인바 東海岸 中要地는 襄陽으로 (大浦의 築港은 既히 成立되고 注文津도 將來 大大로 擴張될터인데 其 距離로 하야도 襄陽이 最近한 地方이라) 第二位는 京城, 第三位는 華川, 第四位는 洪川인바 西,南, 北은 既히 交通이 便利하게 되었스즉 更論할바이 無하나 東海岸에 就하야 論하면 江陵, 襄陽, 杆城, 通川の 物産은 京元線 汽車로 京城을 經하여 京春線 馬車로 春川에 到達됨으로써 海陸 産物이 腐敗毀傷의 慮를 免키 難함은 口陳을 不要하거니와 右四郡中 最히 重要한 地方은 江陵, 襄陽인데 此 兩郡으로 京城, 春川까지 人馬의 通行 貨物의 運輸는 襄陽邑으로 五色嶺을 經하야 通行하는것이 直經이라 云하겠는데 今에 珍富嶺을 通하야 杆城에 二等路線을 設定케된다하면 江陵, 襄陽으로의 旅行 及 貨物로 하야금 長距離를 口上하야 更히 南에 回口 하야 通行케되니 江陵은 大關嶺에 襄陽, 高城으로는 京元線을 經하야 京城에 通行케 될것이니 此의 路線은 杆城에 限하야 施設함에 不過하다 云하노라

3. 經費關係로 論하건대 珍富嶺을 通하면 工費가 少하고 五色嶺을 通하면 工費가 多大하다하나 地方發展을 主로 함에 는 工費의 多少에 拘泥할것이 安일 줄로 思하거던 又況 襄陽人民으로서 15萬圓을 自擔하기로 既히 上申이 有한 듯하니 然則 工費에 對하야서도 別로 憂慮가 無할 줄노思하노라

4. 珍富嶺과 五色嶺과의 比較를 論하면 珍富嶺은 路面이 狹隘하여서 四里에 亘하도록

圓寂할 뿐 아니라 風致, 景色, 産物 等 可取할것이 無하나 五色嶺은 人家連接하고 左右 風致景色이 恰似 金剛山의 趣味가 有하고 且 五色泉의 特産燒酒는 自古로 全鮮에 特殊 且 貴重한 佳釀이라 云하에 將來 益益 更히 發現하여서 世界에 美名을 振할 豫想이 有하다 云함.

5. 二等路 開通 後 春川에 及 할 影響을 論하면 江陵은 大關嶺을 經하야 京城에 直通함으로써 此道路가 珍富嶺을 開通한다하면 既 通行에는 毫도 利害關係가 無함으로 春川에는 何等效力이 生치아니하니 五色嶺을 通하야 襄陽에 開通할시는 江陵, 襄陽 全部의 人馬 貨物은 舉皆 春川을 經하야 京城에 通行될것이오 從하야 高城, 杆城도 亦然 할지니 如此則 春川으로는 此에 無上의 幸福이될줄로 思하노라(春川)



〈그림 4〉五色嶺 道路에 關한 陳情(1923. 2. 5)

京城으로 春川 麟蹄를 經하여 嶺東海岸에 中心地인 襄陽郡에 直線되는 五色嶺 開鑿 問題에 對하여 該 郡既成會로 陳情委員이 上道함은 既報와 如하거나와 同郡 人民의 一心期成할 希望熱은 益益 激甚하여 今 又 陳情次로 一月三十日에 同會 副會長 金翼濟外 四氏가 雪堀을 踏破하고 上道하였는데 此에 對하여 襄者 春川郡 有志로 贊同하여 陳情書를 既히 提出한바이오 麟蹄, 楊口, 洪川, 等 三郡 有志도 各其 郡物產 貨遷의 共公利益과 京春聯合의 交通便宜를 條條說明한 陳情書를 本道廳에 陸續提出하얏고 追 又 傳聞에 의하면 江陵, 三陟, 蔚珍 等 郡에서도 亦 將同聲 協贊 云하니 此에 對하여 襄民一同의 熱誠渴望은 고사하고 四郡陳述과 三郡協贊을 隨聞推測하면 該 五色嶺 道路 開通은 東西 各郡의 通商及 交通發展上에 最大機關으로 確認할뿐 不口 襄陽郡民에 對하여는 死活問題에 屬함이 無疑한 것은 以上으로 推測하더라 (春川)



〈그림 5〉五色嶺道路 開鑿과 洪川郡民의 希望(1923.2.8.)

白頭大幹 五色嶺

襄陽 直通인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야는 洪川郡民도 希望하는바 有하야 郡有志 金 聲遠 外 64人은 連名하야서 道에 陳述書까지 提出하얏다는 대 그 陳述의 內容은 如 左하더라(春川)

陳述書

本地方 發展策으로하야 京城으로 東海岸에 直通하는 道路 開通에 對하야 左의 卑見을 具陳컨대

1. 洪川郡은 東은 襄陽이 二十八里 西는 京城이 二十八里 南은 原州가 十一里 北은 春川이 十里 인바 道路는 春川 原州 兩地에 二等 道路가 通하되 東西에 通하는 道路가 缺함을 因하야 運輸 交通의 便을 不得함으로 豊富한 本郡의 産物이 空에 遺棄되되며 産業도 亦是 遲遲不進하야 오직 環境 各郡의 隆盛를 仰示할뿐이라 今에 此의 頽勢를 挽回치아니하면 本郡의 發展을 期기 難한바이라 故로 此에 郡民은 京城 襄陽線 二等道路의 開通을 請望하야서 本郡뿐아니라 地方의 發展에 資 코자 함.
2. 江原道の 東部 海岸地方은 所謂 嶺東으로 一地域을 劃케됨은 地勢에 因한 바이라 此가 嶺西地方에 通하는 道路가 不在함에 因하야 南北 及 北部에는 漸次開通을 見하되 中央部에는 一線도 不存한바 京城으로 最短距離인 直通線으로하야금 最히 必要로 認하는바 其 開通의 際에는 交通運輸의 便이 增進하야 地方의 開發은 勿論 嶺의 東西地區는 益益接近하야 共榮의 實을 舉케됨.
3. 本郡과 襄陽郡과는 古來 密接의 關係가 有한바 山地인 本郡과 沿海인 襄陽과는 物資交換 有無相通은 自然의 勢라 云하겟스나 本地方의 大市場인 原州와의 中繼地가 되야 兩方面의 物資는 當地를 經由케됨으로 俗語에 洪川은 襄陽의 出品場이라 云함에 其關係는 可以 推知할바이라 함. 兩地間에는 道路가 二線이 有한바 一線은 五色嶺을 越하야 麟蹄郡을 通過하는바 何時던지 車輛이 不通하는 故로 一朝車道의 開通이 될 바에는 通商 殷賑을 極할바이라 함.
4. 聞하건대 襄陽民은 工費를 負擔하야 本道로 開鑿을 企圖하기로한 한즉 此가 實로 經濟的으로 東西를 連絡하자함이니 此가 現下 急務이며 地方發展策으로도 此가 急先務라할지라 附近 各郡民의 共鳴함에 至함이 豈非當然事之理乎아 殊히 그 沿道는 物産이 夥多함으로 市場이 多有하고 地方에는 景致豊富하며 五色里의 藥水 及 溫泉 等은 其名이 世에 高하니 實로 本 線路는 經濟

的 又是 文化的 急速開通의 必要가 有하다 信함.

右의 次第로 特別히 御銓諾로써 本線開通의 途를 開하기를 望함은 此가 다만 一部 地方民의 幸福에 止치안을 줄로 思하노라 口 를 陳述함.

洪川郡 金聲遠外 六十四人



〈그림 6〉 五色嶺道路開鑿과 麟蹄郡民의 陳述(1923.2.10.)

五色嶺 道路 開鑿에 對하여 麟蹄郡民도 左와 如히 陳述書를 提出하였더라 陳述書

麟蹄郡 發展策을 爲하야 京城으로 東海岸에 達하는 江原道 橫端道路 開鑿에 關하여 左의 事由를 具하야 陳情함.

1. 麟蹄郡은 江原道의 中部山間에 在하야 東은 襄陽郡 西는 春川郡 南은 洪川郡 北은 楊口郡에 境한바 道路는 春川方面을 除外한 西에는 車輛을 通치 못함으로 交通이 不便하야 開發의 程度가 他에 比하여 甚히 劣勢에 處하얏슨 즉 本郡의 發展策으로는 第1로 道路開通에 在하다 請함.
2. 交通上 密接의 關係가 有한 春川 襄陽으로 本郡 及 兩地 間에 人馬의 往來는 頻繁하나 道路의 不備로 遠이 元山을 迂廻하여 海路에 依하는 境遇가 多한지라 故로 襄陽方面에 二等 道路가 開通되면 但 兩地뿐만안이라 南北 各 地方과의 交通도 增進連絡될지니 地方의 幸慶이 此에 及할지며
3. 物資 移出入 關係로 云하건대 本郡으로 移出物品은 주로 襄陽市場에 搬出 되고 海産物雜貨 等の 必需品는 殆히 全部들 襄陽郡으로서 移入되는 現況임 으로 商業의 取引은 同地를 第一位로함 他日에 本 道路가 開通되어 車를 通

함에 至하면 大貨物은 船便에 依하여 襄陽에 揚陸되고 同地로 搬入되는 物貨는 多量이오 具廉價를 得할지니 然則郡民의 利益이 多大함으로 商工業은 一層盛大에 至할지며

4. 京城으로 東海岸에 達하는 二等 道路는 京城 五里 津線이 有하여 旣히 一部를 起工케되얏으나 襄陽郡은 通過치 안음으로 襄에 襄陽郡은 奮起하여 本郡으로 直通하는 二等道路 開鑿을 絶叫하매 春川郡民도 此에 共鳴하여 其速成을 期待河는바인데 其中間地인 本郡으로는 此가 眞實로 本郡의 發展上 緊急 切實의 問題라 思하고 雙手를 舉하여 贊意를 表하며 具實現을 期하는 바이다.

5. 五里 津線은 東北方 巨津港에 出한다하나 其 經過地에 는 市場으로도 可見할 處이 無히고 又 同方面과 交通은 從來密邇치 아니한 바이오 若 襄陽線이 開通되면 商圈은 江陵方面에도 擴大케 될지며 延하여 産業振興 地方開發等과 其他利便이 甚大케 될것은 敢히 贅陳을 不要할줄로 信함. 右에 次第로 陳述한바이은 즉 願컨대 郡民의 願望을 採擇하며 本線이 開通되도록 御銓諾를 仰코자 茲에 陳情함. 麟蹄郡 李明榮外 88인



〈그림 7〉 五色嶺道路 開鑿과 楊口郡民의 希望(1923. 2. 17)

襄陽 直通인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에 對하여는 楊口郡民도 贊同 希望하는바 亦是 此에 對한 陳述書까지 提出 하얏는데 陳述書는 左와 如하더라(春川) 陳述書

楊口郡은 本道 中部山間에 僻在하여 交通 不便의 所致로 郡勢不振하여 交運의 程度 他郡에 比하여 甚히 劣함은 郡民이 深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所聞에 依한 則 京城으로 本道 東海岸에 達하는 道路開通에 關하여 襄陽及 春川郡民이 共同하여 極力 盡瘁 한다. 하옵는바 此가 本地方 開發上 平素待望

白頭大幹 五色嶺

에 迎合한 計劃으로 又 本郡民도 多年 宿望을 特達 할바임으로 此에 對한 左 記卑見을 陳述하오니 御監察하여 주시기를 望함.

1. 本郡은 四邊 山岳으로써 圍하여 郡內는 大概 道路 不良함으로 車를 通함은 僅히 春川及 華川郡에 達하는 線路뿐으로 本道로는 此가 卽 他日 東海岸까지 開通되야 京城과 連絡할 道內 主要線路인卽 本郡의 發展도 第一 本線에 懸하얏으니 開通의 速成됨을 切望함.

2. 本郡產物로 利出되는데는 穀物 大麻 蜂蜜 等이오 移入品은 雜貨 海產物 등인데 道路不良의 致로 遠히 他郡을 迂廻 함으로 運賃이 亦 多額이 되야 物價는 出貨는 低廉이고 人貨는 昂騰하여 甚히 不利한 狀態에 在한 故로 海岸線이 開通되면 一轉하여 商圈의 擴大並産業의 興隆에 至하여 其 便益이 至大함에 達할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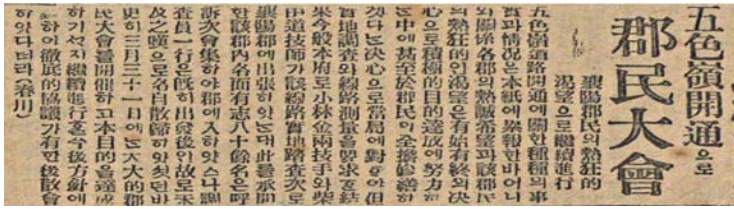
3. 京城東海岸線 二等道路로 曩에 京城五里 津線이 決定되얏으나 同線路는 沿道 落漢하고 產物이 稀少하여 到底히 襄陽線과 比較를 不得함.

4. 襄陽方面과는 從來 交通 運輸上 密接의 關係가 有하여 物資의 交換이 最多하고 特히 海物은 唯一의 供給地가 되는지라 故로 同地는 高城, 江陵과는 海陸 共히 交通의 便이 有하고 從하여 本線路가 開通될 時는 兩地方의 物貨 襄陽을 經由하여 移入할 지니 商業取引은 大히 隆盛을 見함에 至하여 眞實로 經濟的 線路를 體現함에 至할터인즉 工費의 多額을 要한다고 할지라도 福利增進에 比하여 亦可라 信함.

楊口郡 安植 外 二十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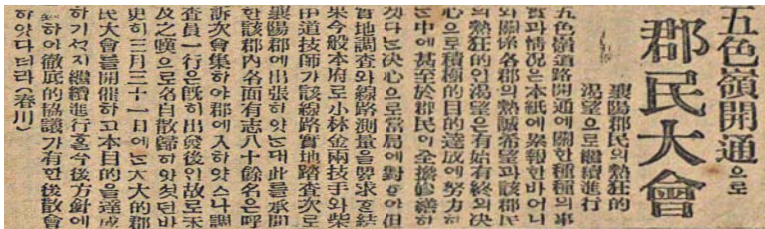
貨物亦 襄陽을 經由하여 移入할 지니 商業取引은 大히 隆盛을 見함에 至하여 眞實로 經濟的 線路를 體現함에 至할터인卽 工費의 多額을 要한다고 할지라도 福利增進에 比하여 亦可라 信함.

楊口郡 安植 外 28



〈그림 8〉 五色嶺 開通으로 郡民大會, 襄陽郡民의 熱狂的 渴望으로 繼續 進行 (1923. 4. 7)

五色嶺 道路 開通에 關한 種種의 事實과 情況은 本紙에 累報한바어니와 關係 各郡의 熱誠希望과 該郡民의 熱狂的인 渴望은 有始有終의 決心으로 積極的 目的達成에 努力하는 中에 甚至於 郡民이 全擔 修繕 하겠다는 決心으로 當局에 對하여 但 實地調査와 線路測量을 要求한 結果 今般 本府로 小林 金兩技手와 柴田道技師가 該 線路 實地 踏査次로 襄陽郡에 出張하였는데 此를 承聞한 該郡內 各面 有志 八十餘名은 呼訴次 會集하여 郡에 入하였으나 調査員 一行은 既히 出發 後인 故로 禾及之嘆으로 各自 散歸하였섯던바 更히 三月 三十一日에는 大대의 郡民大會를 開催하고 本 目的을 達成하기까지 繼續進行 할 今後方針에 到하여 徹底的 協議가 有한後 散會하였다더라(春川)



〈그림 9〉 五色嶺路 開鑿의 目的 貫徹로 更히 陳情코져上京((1923. 5. 1)

江原道 襄陽郡 五色嶺은 二等道路에 除外 되어 嶺東 嶺西에 在한 産業消長에 至大한 關係가 有함으로 襄陽郡民은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會를 組織하고 總督府와 江原道廳에 陳情한바 有할뿐아니라 隣接地되는 麟蹄, 楊口, 春川 等 郡에서도 五色嶺 開鑿을 要望으로 去 三月에는 本府로부터 技手が 出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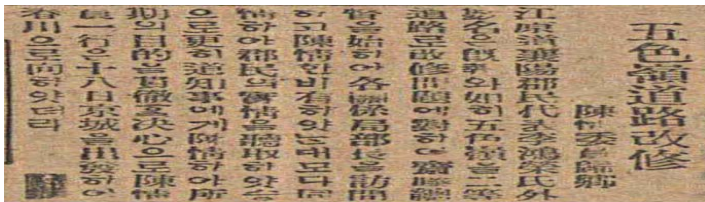
白頭大幹 五色嶺

實地調査 한 바도 有하여 郡民은 此際目的을 貫徹키爲하여 道 評議員 李鍾漢氏를 上道케하여 道當局과 數日에 亶하여 意見を 交換한바 有한대 意와 如히 進捗치 아니함으로 同 氏는 本府에 陳情키 爲하여 二十八日 當地를 出發하여 京城으로 向하였더라(春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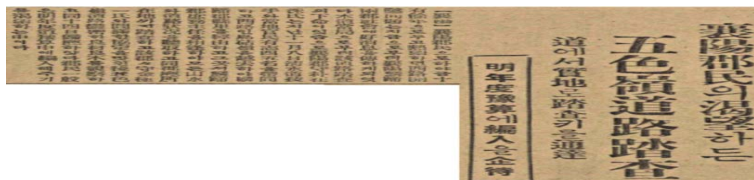
〈그림 10〉 五色嶺에 二等道路를 만들어 달나라고 陳情委員上京(1923. 6. 13)

강원도 양양군의 요지되는 오색령이 이등도로에서 제외 되었음으로 그 고을 인민은 기성회를 조직하고 수차 도청과 총독부에 진정 한 바이 있었으나 아직 그 목적을 달치 못하였음으로 이번에 또 군민을 대표하여 이홍영(李鴻榮) 씨 외 수명이 입경 하였는데 씨는 말하되 “양양군은 강원도 동해안 중부에 있어 일반산업이 비교적 진보되고 또 보통학교도 4개소에 달하여 일반문화는 날로 향 될 뿐 아니라 소위 영서일대는 양양의 어염 마포 생우 등 수용치 아니하면 생활이 가능치 못하는바, 그중에 중요한 곳은 오색령 이오 또 오색리 약물은 세상에 유명함으로 칠천 명이 모여들고 경치도 설악산은 금강산에 지지 아니할 절경이거늘 이등 도로로 편입되지 못하면 양인의 사활문제로 중대한 관계가 있는 고로 총독부에 다시 진정하여 목적을 달하기까지는 군민전부가 상경할 예정이라” 하더라.



〈그림 11〉 五色嶺道路 改修 陳情委員 歸郷(1923. 6. 19)

江原道 襄陽郡民 代表 李鴻榮 氏 外 數名은 既報와 如히 五色嶺을 二等道路 改修問題에 對하여 齋藤總督을 始하여 各 關係局 部長을 訪問하고 陳情한바 有하였는데 모다 同情하여 郡民의 實情을 聽取하였으므로 更히 道知事에게 陳情하여 所期의 目的을 貫徹할 決心으로 陳情員 一行은 十八日 京城을 出發하여 春川으로 向하였더라.



〈그림 12〉 明年度 豫算에 編入을 企待 襄陽郡民의 渴望하는 五色嶺道路 踏查 道에서 實地로 踏查키를 通達(1931. 11. 21)

[襄陽] 襄陽郡民으로 하여금 十有 餘年으로두고 熱望하던 西路 開鑿 問題는 지금으로부터 襄陽麟蹄 兩郡社會에 好 消息을 傳하게 되었다. 本道 當局으로부터 該 直路 踏查의 下命이 있음으로 襄陽郡守 朴在洙 氏는 지난 十一月 八日 清水道技手와 當地官民有志 四五名을 帶同하고 西路인 鳥砮嶺을 越去하여 麟蹄郡 縣里를 經由하고 그곳서 麟蹄郡 庶務主任을 相逢하여 모든 山水와 道路狀況을 聽取하고 同郡廳 所在地까지 踏查하고 該 郡 郡守 金極一氏와 圓滿한 協定을 마친 후 五色嶺 道路 鬱密한 良材良木을 視察하고 同 十四日 歸廳하였다. 郡民一般은 明年度 道豫算 中에 編入해 주기를 渴望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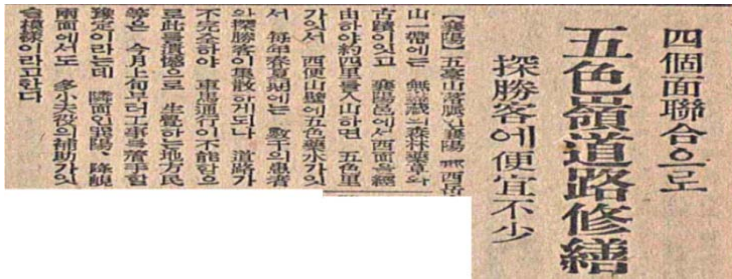


〈그림 13〉 麟襄線 道路 問題로 洞民 當局에 陳情 五色嶺으로 고쳐달라고 800名 洞民 連署로(동아일보 1932. 3. 15)

白頭大幹 五色嶺

[린제] 강원도 린제 양양 간(麟蹄襄陽間) 도로는 총 경비 二十만원 예산으로 벌써 설계해 노코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치 아니 하였던 바 금년도 인제지방은 대홍작으로 말미암아 수만 이재민이 아사선상에서 해매는 현상임으로 군 당국에서는 각면에 구제회를 조직하고 각 방면으로 맹렬히 활동함은 물론이 어니와 공민구제책으로 인제 양양 간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를 도에 신청하여 불원간 착수하게 되었다는데 현재 설계한 것은 인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한다. 八백여명은 연서날인하야

선기예산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 당국과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 하였다.



<그림 14> 四箇面 聯合으로 五色嶺 道路 修繕 探勝客에 便宜不少(1938. 12. 6)

[襄陽] 五臺山 落脈인 襄陽郡 西岳山 一帶에는 無盡藏의 森林 藥草와 古蹟이 있고 襄陽邑에서 西面을 經由하여 約 四里를 入山하면 五色里가 있어 西便山壁에 五色藥水가 있어서 每年 春夏期에는 數千의 患者와 探勝客이 集散하게 되나 道路가 不完全하야 車馬通行이 不能함으로 此를 遺憾으로 生覺하는 地方民 等은 今月 上旬부터 工事を 着手할 豫定이라는데 隣面인 巽陽, 降峴 兩面에서도 多小夫役의 補助가 있을 模樣이라고한다.

III

古地圖를 통한 所冬羅嶺 位置

1. 所冬羅嶺의 位置

소동라령과 오색령, 옛 한계령은 명백하게 다른 영(嶺)이었다. 이는 먼저 고지도(古地圖)들에 표기된 고개명칭을 보면 오색령, 소동라령, 한계령을 다른 위치의 영으로 함께 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팔도지도(1758~1767년)>

白頭大幹 五色嶺

<표 1> 소동라령이 표기된 옛 지도들

제 작 년 도	지 도 명	고지도에 표기된 고개 명칭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 지 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00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 구 도		오색령	필여령	연수령	소동라령	
1857	동 여 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776	좌해분도		오색령			소동라령	
1750	해동지도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776	지 승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800	광 여 도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이 영들은 영동에서 영서로 통하는 백두대간을 넘는 영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북에서부터 남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관계를 그르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동라령은 오색령과 멀리 떨어진 구룡령에 더 가까운 영으로 지금의 한계령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所冬羅嶺의 文獻記錄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년)』의 양양 관애(關陔)편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계현·양한치 등의 일곱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오색령은 설악 남쪽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춘천 기린계이다.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계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기린계이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를 이룬다”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동읍지(1871)』 양양 관애(關陔)편에도 “오색령은 설악산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인제와 경계이고,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춘천기린과 경계하며,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하며 과거 서울로 가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한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가지에 접해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한다.”⁹⁾고 적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江原道 襄陽郡邑誌 二)』에도 “소동라령은 부서쪽 60리에 있다. 즉 필여령 남쪽 가지로 기린과 경계를 이루며, 옛날 서울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었다”¹⁰⁾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여지도서』 江原道 襄陽 / 關陔편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棋麟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棋麟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棋麟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 金川面界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嶺路兩峴對峙相似故名 兩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嶺路

9) 『관동읍지』 관애편

五色嶺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在府西四十里卽是五色嶺南枝接春川棋麟界 所冬羅嶺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棋麟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在府四十五里卽所冬羅嶺南枝接棋麟縣界 九龍嶺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金川面界

이를 종합하면 소동라령은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있었던 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필여령 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한계령은 소동라령과 같은 영이 아님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所冬羅嶺의 境界記錄

위 문헌뿐만 아니라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양양 영로조(襄陽嶺路條)에는 연수과령·오색령·필여령·박달령·소동라령·구룡령·양한치·소량치 등의 모두 여덟 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모두 서쪽 50리 인제계이고,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로 아주 험한 서울로 통하는 대로였다. 기린계이다”¹¹⁾라고 적고 있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편에는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 기린(狶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 서쪽 통로다.”¹²⁾라고 기록되어 있고, 1829년에서 183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관동지』 13권에는 “영로(嶺路) 연수과령은 서북쪽 75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모두 서쪽 50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리에 있는 험한 절벽지로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기린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0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¹³⁾라고 기록하고 있다.

10) 『江原道 襄陽郡邑誌 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 卽弼如嶺南枝接狶麟界舊有路通京今廢

11)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양, 영로조

五色嶺 弼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狶麟界, 所冬羅嶺 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狶蹄界,

12)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江原道)

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狶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이와 같이 모든 역사기록에서 소동라령은 춘천 기린계라고 하고 있어 현재의 인재군 기린면 진동리를 경계로 하는 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지도 2> 1834년도 지도인 청구요람에서 보듯이 귀둔까지는 인재현 관할이었으나, 기린면 진동리는 당시 춘천부 관할의 기린현에 속해 있었고, 구룡령 너머 홍천과 평창의 일부지역은 강릉대도호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6> 청구요람(1834년)

13) 『關東誌』 제13권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彌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所冬羅嶺西六十里絶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7> 여지도(1736~1767년)-인제현

4. 所冬羅嶺의 흔적(痕迹)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江原道) 간성군편에 보면 “미시파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¹⁴⁾고 적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¹⁵⁾고 기록되어 있다.

1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江原道) 인제현
彌時坡嶺在郡西南十里許有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危復開興路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

그런데, 소동라령으로 추정되는 북암령을 실사한 결과 귀둔(耳屯, 耳呑)에서 진동리로 연결되는 곰배령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미 옛길 탐방코스로 변해있었고 진동리 삼거리에서 북암령 정상까지는 고개가 완만하며 일부 도로는 유실되었으나 옛길의 도로폭도 2m정도로 우마차가 다녔음직한 대로였으며, 정상에는 위에 이정표를 세웠음직한 돌무지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이라고 하고 10리마다 작은 표석을, 30리마다 큰 표석을 세우며, 30리마다 역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일정한 거리마다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도로의 리수와 지명을 기록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¹⁶⁾ 영정상의 돌무지는 정상 주변에는 돌이 없고 돌의 규격도 고른 것으로 보아 일부러 돌을 옮겨 쌓은 것으로 보여 국가에서 관리하던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양에서의 거리가 30리 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정상에서 북암리 방향은 급경사였고 계곡을 따라 길이 형성된 관계로 폭우로 많은 구간이 유실되어 있었으나 나라에서 영로를 폐지한 지 600여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구간에 도로의 형태가 남아있었고, 노퍽은 서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암령을 접어들기 위해서는 양양에서 한(寒)고개(발딱고개)나 망령고개까지 넘어야 했으므로 지세가 험한 궁벽지라는 기록을 실감하게 했고, 국가의 영로로서 비만 오면 유실되는 급경사인 소동라령을 관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동라령을 폐지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말까지도 일반인들은 이 영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이나 하듯이 1911년 조선지리지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강원도 땅이름

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

16) 『양양군지』 양양군, 발행일 2010, 11, 30, 163페이지 교통과 통신

의 참모습』 인제편 영치현명(嶺峙峴名)에 보면 곰벤령(丁嶺, 곰배령)을 양양으로 통하는 영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행자들이 민가에서 자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던 원(院)이 조선후기에 들어가면서 그 기능이 쇠퇴하자 주막(酒幕)이 그 역할을 떠 맞게 되었는데 길손들이 먹고 자던 주막이 진동리에 갈터주막, 삼거리주막, 귀둔리에 버덤말주막, 곰배골주막, 하추리에 가래울어주막, 당수터주막, 원대리에 안삽재주막 등 이 구간에 특별히 주막이 많이 남아 있다.

『인제군지』의 기린면 북리 마을의 유래를 보면 대부분 역(驛)과 관련된 자연부락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되는 마을은 상역(上驛)·중역(中驛)·하역(下驛)·역동(驛洞)·역골(驛谷) 등인데 특히 연락촌(連絡村)은 옛날 관가에서 연락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말굽을 고치기도 하고 다른 말을 바꿔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지역이 조선시대에 소동라령의 역로(驛路)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표 2> 인제군 기린면 북리 지명유래 요약

- 담배골 : 하역 앞 골을 가리키며 담배를 많이 재배하였다 하여 지은 이름
- 상역(上驛) : 역골 웃말
- 섬바위 : 상역 골 중간 지점에 있으며 벚섬 쌓듯이 바위덩어리가 첩첩이 쌓였다하여 지은 이름
- 역골 : 잔다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역이 있었다고 한다.
- 역동(驛洞) : 역골
- 연락촌(連絡村) : 옛날 관가에서 연락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말발굽을 고치기도하고 다른 말을 바꿔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해서 부르게 된 지명
- 운이덕 : 역골 동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로 구름에 덮여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
- 중역(中驛) : 역골 중간 마을
- 하역(下驛) : 역골 아랫말
- 할미바위 : 하역 앞골에 위치하였으며 모양이 할미꽃과 비슷하다하여 지은 바위 이름

IV

襄陽 五色嶺으로 地名復元은 當然

조선중기를 전후하여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자, 오색령은 새로 개척한 도로상에 위치한 영으로 분명히 소동라령과는 별개의 지명이다. 여지도(輿地圖, 1736-1767)등에는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전혀 다른 위치에 표기되어 있다.

북쪽의 오색령은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색령과 소동라령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은 오히려 구룡령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반면 한계령이란 명칭이 한 때 동여도에 표기 되었다가 대동여지도에서는 삭제된 지명이었지만 동여도(東輿圖)상에 표기 된 한계령로는 행정구역 개편 전에 양양군 소천면(所川面, 지금은 속초시 지역)이다.



<그림 18> 한계령과 오색령이 각각 표기된 동여도 (奎1034)

오색령에 대해 조선시대에는 확고한 역사적 전거가 확보되어 재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1915년경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의 지도상에 한계령을 표기 한 것을 광복이후에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지도상에 한계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림 19> 일제강점기 한국근대지리지자료

<그림 20> 일제강점기 인제군세일반지도

최근에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는 양양군 주관으로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로 만들기 위해 영서 4개 군(춘천, 홍천, 양구, 인제)의 협조 하에 강원도청에 각 군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영동의 강릉, 삼척, 울진군에서도 적극 찬성하여

강원도로부터 도로개착을 승낙 받았다는 사실을 매일신보에 대서특필 보도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1959년도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인제군 북면에서 보고 된 조사서식을 보면 지도상 기재된 지명, 경·위도, 좌표, 지명유래 순으로 기록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에서는 지도상에 한계령이 표기되어 있어 보고 할 수 있었으나 양양군 오색령은 지도상에 누락되어 보고할 수 없었다.

이상을 종합 할 때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별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일제 강점기에 오색령 명칭이 한계령으로 변경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 할 때,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아서 후손들에 물려주는 작업은 타당하다고 본다.

(10)	(11)	(12)	(13)	(14)
지도상기재	경 위도	좌 표	유	비
9	122-15-20 28-28-20	351212	대기4289년 10월 전후	(60)
대승령 大勝嶺	122-16-10 28-28-20	432205	영동 그곳엔 서쪽 전장이 밀려남을 두려워하여 이곳 평에서 관이 기명하기 위하여 대승령이라고 부른다고 산령 중이 관아 같이 생겼다고 하여 전파산이라고 불리 우고 산은 관아 불이 기명함	
관아산 官衙山	122-16-10 28-28-20	411211	영동과 동쪽은 오성이 평화 나쁜 영으로 거역 제정 에 있어 관아 관제 명이라 그러나 오성이 평이 나무로 안치면 가니 뒷산 이 나무하여 가니 불이 다고 불이 우고 대승령 명에 있는 표로 나하여 대승령 다 불이 우고 관아	
관제령 官制嶺	122-16-10 28-28-20	415164		
간지봉 干支峰	122-16-10 28-28-20	426166		
대승령 大勝嶺	122-16-10 28-28-20	425193		
대승산 大勝山	122-16-10 28-28-20	425193		

〈그림 21〉 지명조사철(인제군 북면)

맺은 말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계령 위치는 양양의 오색령 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오색령(五色嶺)이 우리지역의 고유지명 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워 복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피력(披瀝)해왔다.

그럴만한 이유는 지난 2010년도 군지발간위원회에서 양양군지를 발간하기 위해 각종 영로(嶺路)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오색령 지명을 일제가 조선 침탈의 목적으로 작전지도를 제작 할 때 한계령으로 뒤바뀌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영(嶺)의 기능은 귀향보다는 상경(上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시의 인제현과 양양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제현에 속한 한계리와 양양부에 속한 오색리에서 영의 기능과 관련된 지역은 출발점인 오색리라고 할 수 있다고, 오색령 관련 심포지엄 때 강릉원주대 김무림 교수가 밝혔다.

그럼에도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바뀐 지 100여 년이 지났어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령이다’ ‘오색령이다’ 티격태격 지자체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노력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도에 양양군 주관으로 오색령 관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는 2011년도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논문을 제출해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에는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을 제출해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2013년에도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개가(凱歌)를 올렸다.

그 외 양양문화원관계자와 향토사연구원들은 국토정보지리원을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한계령 개칭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사무국장과 향토사연구원들이 옛 소동라령로를 현지 답사하였는데, 조선 성종 때부터 영로가 폐쇄되어 미시령으로 옮긴지 5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영로에는 당시에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의 형체와 영(嶺)정상에는 이정표였던 돌무지가 남아 있음을 현지답사 반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그림 21> 소동라령로 형체

<그림 22> 소동라령 정상의 돌무지

지금까지 오색령 지명에 관한 자료는 조선시대의 자료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찾아낸 오색령 도로를 2등도로 개착하기 위해 양양군의 주도로 노력한 결과 영서의 4개 군(춘천, 홍천, 양구, 인제)에서 강원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영동의 3개 군(강릉, 삼척, 울진군)에서도 협력하여 오색령 도로가 2등도로 승인이 났다는 사실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대서특필 보도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인제군 북면의 800여 명의 주민들이 연명으로 오색령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인제군과 강원도에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를 통해 확인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를 할 때 인제군 북면에서 보고된 한계령의 지명유래를 보면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령으로써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 이라고도 함.”라고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오색령은 높은 영이고 한계령은 인제군의 한계지역에 있는 낮은 영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최근에 주장하는 한계령 유래를 보면 한계산에서 연유되었다고도 하고, 소동라령[바드랏재]이 자연스럽게 한계령으로 되었다는 등 근거도 없는 주장들을 사실인양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료된

다. 만일 지금의 주장이 옳다면 1959년도 인제군 북면지명조사위원회에서 국무원에 조사보고 하였던 한계령의 지명유래가 허위보고 임을 자초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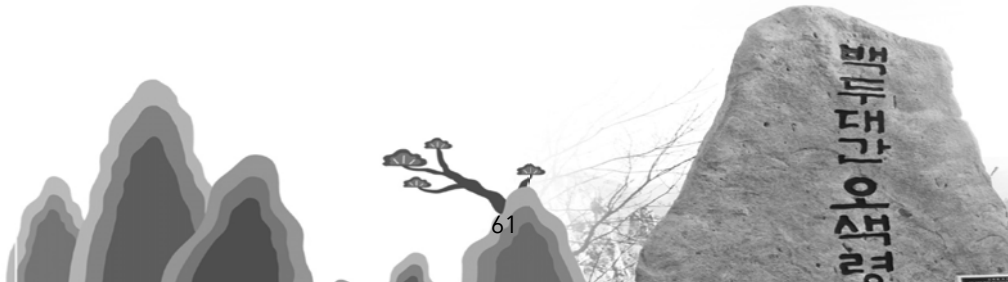
끝으로 이 기회에 그동안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관계당국에서는 법적절차를 조속히 실행 오색령으로 복원해야한다. 이것만이 그동안 쌓인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강원도지	양악집
개벽 제42호(1923. 12. 1.)	양주읍지
개벽 제62호(1925. 8. 11.)	여지도서
곡운집 권지 4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
관동읍지	유금강산기
관동창의록	조선왕조실록
금강산총기	조선지지자료
기관동산수	조선총독부 관보
다산시문집 제7권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권28
동아일보기사(1932. 3. 15.)	택리지
만기요람	팔곡집
명암집	풍악록
산경표	해좌선생문집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제군지」기린면 북리 지명유래
양서 아광운 선생년보	



附錄

I - 1. 五色嶺 地名에 관한 考察	63
I - 2. 朝鮮時代 襄陽府 所冬羅嶺의 考察	99
II. 五色嶺과 소동라령이 標記된 古 記錄	125
1. 지리지	125
2. 조선왕조실록, 관동창의록	128
3. 문집	129
4. 관보, 개벽지, 신문기사	140
III - 1. 1959년 지명조사 자료	143
III - 2.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150
IV. 五色嶺이 標示된 古地圖	157
V. 五色嶺 地名變更을 爲한 日誌	192



五色嶺 地名에 관한 考察

I. 問題의 提起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대대(祖上代代)로 지켜온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자연문화(自然文化)의 유산(遺産)일 뿐 아니라 자자손손 길이 대물림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論意)의 시작과 끝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과거의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남기는 교육적인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양양군의 개략적 지리환경은 북쪽으로는 속초에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강릉과 접해 있다. 서쪽인 내륙으로는 인제군이 있지만, 양양과 내륙의 사이에는 분수령(分水嶺)이 되는 험준한 백두대간이 놓여 있어서 원래부터 내륙과의 교통이 불편하였다. 다만 남북으로는 교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지명은 일반 어휘(語彙)에 비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성격이 있어서 인

문학적 유물로 취급된다. 정치체제가 바뀌거나, 또는 외부의 침입에 의하여 통치세력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상례(常例)이므로 이들 토착주민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영(嶺)의 기능은 귀향(歸鄉)보다는 상경(上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시의 인제현(麟蹄縣)과 양양부(襄陽府)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제현에 속한 한계리와 양양부에 속한 오색리에서 영(嶺)의 기능과 관련된 지역은 출발점인 오색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오색령이라 이름하였던 것은 타당한 이름의 부여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양양부에서 내륙인 경사 [(京師)서울] 로 통하는 길은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지도를 보면 오색령은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춘천부(春川府) 기린계(狹麟界)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도로 기능을 잃었다.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듯, 지명(地名)은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유산을 상징하고, 사회 구성원의 얼이자 정신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본 논의(論意)의 목적은 오색령(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북면을 연결하는 고개, 해발 920m)의 실체(實體)를 바로 찾기 위해서 고문헌(古文獻)·고지지(古地誌)·고지도(古地圖)를 토대로 조사 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한계령으로 왜곡(歪曲) 기록된 것이 명백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잡고자한다.

II. 五色嶺 地名에 관한 考察

1. 五色嶺의 歷史的 記錄

1) 고문헌에 나타나는 오색령

(1)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장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서두에 “한 줄기가 남쪽으로 200여 리를 뻗어 가다가 산 모양이 우뚝 솟고 험준함이 대략 금강산과 같은 것이 설악산(雪嶽山)이다. 그 남쪽에 소솔령(所率嶺)이 있다. 설악산 동쪽 한 줄기가 또 하나의 작은 악(岳)을 이룬 것이 천보산(天寶山)이니 하늘이 눈비 내리려고 하면 산(山)이 저절로 울기 때문에 혹(或) 울산이라고도 한다.” 라고 적었다.

■ 一枝南延於二百餘里 ° 山形竦峭 ° 略如金剛本岳者曰雪岳 ° 其南有所率嶺 ° 岳東一枝又成一小嶽 ° 曰天寶山 ° 天將雨雪 ° 山自鳴 ° 故或曰鳴山.

조선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5일 (을미)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그 당시에 지금의 오색령(五色嶺)을 소솔령(所率嶺)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 乙未 ° 發五色驛 ° 度所率嶺 ° 雪岳亂嶂 ° 無慮數十餘 ° 峯皆頭白 ° 溪邊石木亦白 ° 俗號小金剛山 ° 非虛語矣 ... 余於嶺上辭東海... 自元通履平地... 宿麟蹄縣.

白頭大幹 五色嶺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에 편찬(編纂)된 양양도호부 산천조(山川條)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

양양에 대한 기록에서 영(嶺)은 오직 소동라령(所冬羅嶺)만 있으므로, 이것이 후대의 기록에 나오는 오색령(五色嶺)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나, 그 이후 자료로 보아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제현(麟蹄縣)의 산천조(山川條)에도 한계산(寒溪山)의 다음 항목으로 소동라령(所冬羅嶺)이 기록 되어 있으며, 인제현의 북쪽에 있는 영(嶺)으로는 소파령(所波嶺), 미시파령(彌時坡嶺) 등이 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오색령(五色嶺)에 대한 기록은 없다.

(3) 팔곡집(八谷集)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지금의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장수대 인근에 위치한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고 적고 있다.

- 古寺卽寒溪寺自襄陽所率嶺抵麟蹄舊路經由寺下往來人必投宿于寺寺僧不堪迎接之苦不肯居住遂致空廢今則頽圯已久只有舊基礎宛然是巨剎也此山在麟蹄爲寒溪其在襄陽者曰雪岳實一山也.

(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조 8년 임오(1462년) 8월 5일(정묘)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다. 기록에 상운역(祥雲驛)·연창역(連蒼驛)·오색역(五色驛)·강선역(降仙驛)·인구역(麟丘驛)·청간역(淸澗驛)·죽포역(竹泡驛)·운근역(雲根驛)·명파역(明波驛)·대강역(大江驛)·고잠역(高岑驛)·양산역(養珍驛)·조진역(朝珍驛)·등로역(登路驛)·거풍역(巨豐驛)·정덕역(貞德驛) 이상 16역은 상운도 역승(祥雲道驛丞)으로 일컬을 것.

■ 祥雲驛 連蒼驛 五色驛 降仙驛 麟丘驛 淸澗驛 竹泡驛 雲根驛 明波驛 大江驛 高岑驛 養珍驛 朝珍驛 登路驛 巨豐驛 貞德驛已上十六驛, 稱祥雲 道驛丞 。

성종 8년 정유(1477년) 1월 24일 (계해) 이극증의 계본에 따라 강릉·양양·인제의 공수 위전을 대로의 예에 따르게 하다. 기록에 호조(戶曹)에서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 이극증(李克增)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릉(江陵)의 진부역(珍富驛)·횡계역(橫溪驛)·대화역(大和驛)·임계역(臨溪驛)과, 양양(襄陽)의 오색역(五色驛)과, 인제(麟蹄)의 부림역(富林驛)은 극심하게 잔폐(殘敝)하여 모든 공급(供給)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공수위전(公須位田)을 대로(大路)의 예(例)에 따라 20결(結)을 주어서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戶曹據量田巡察使李克增啓本啓: “江陵珍富驛 橫溪驛 大和驛 臨溪驛 襄陽五色驛 麟蹄富林驛殘敝莫甚, 凡供給必不能支, 請公須位田, 依大路例給二十結, 使之蘇復 。” 從之 。

위의 세조실록, 성종실록에 오색역(五色驛)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색령(五色嶺)이라고 지칭한 기록은 없으나 오색(五色)을 경유하는 대로

(大路)인 영로(嶺路)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받을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와 [(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 備邊司【去正月三十日，備忘記回啓也】啓曰：……賊兵由慶尙道寧海，沿海以北，則平海蔚珍，當先受敵。此處若失，而賊兵深入於嶺東，則楸池嶺、彌水坡、五色嶺、白鳳嶺等處，皆爲踰嶺之路，不可不備也。……

(5) 양서 이광윤 선생년보(襄西 李光胤 先生年譜)

양서 이광윤(襄西 李光胤 1564~1637년)선생년보(先生年譜)에 “1602년(壬寅) 4월 관동을 두루 돌아 한계산(寒溪山)의 승상이 빼어난 오색령(五色嶺)을 두루 다니면서 전직 재상 절도사들과 시를 지어 읊조리며 술자리를 베풀었다.”라고 적었다.

■ 四月 °還關東 °歷討寒溪山五色嶺勝狀 °與使相 °有唱酬諸作.

(6) 곡운집 권지4(谷雲集 卷之四)

김수증(金壽增) 1624~1701년의 『한계산기(寒溪山記)』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記文) 중에 “살피고 나서 수백 보를 나아가,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 考按既訖 起行數百步 至溪邊石上午飯 逢過去僧 問其何向 則曰 由五色嶺 至襄陽 蓋此距海路八十里云.

유곡연기(遊曲淵記) 1698년(戊寅) 2월 27일의 기문 중에 “각형에게 물으니 지한이 설악 위를 가리키며 봉정암(鳳頂庵) 동쪽 모퉁이에 있고, 동북쪽에 있는 백연(百淵)은 남기와 아지랑이 그윽하고 어두우니 가히 말 할 수 없으며, 필여봉(筆如峯) 위의 오색령(五色嶺)은 동남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問於覺炯 池漢 而指點上雪嶽鳳頂庵在東曲 百淵在東北 而嵐靄杳冥不可辨 五色嶺上筆如峯 在東南.

(7) 명암집(鳴巖集)

명암 이해조(鳴巖 李海朝) 1660~1711년]가 1709년 양양부사 재임 시 현산삼십경(峴山三十景)을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과 읊은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시(詩)에 “오색령(五色嶺)은 양양부(襄陽府) 서쪽에 있는데 고비고 사리가 많이 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 五色嶺 在府西多生 薇蕨.

(8) 양와집(養窩集)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 1646~1700년의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동유록(東遊錄)에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

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과령을 이룬다.”라고 적었다.

■ 曹砧之北爲五色嶺 °其東則襄陽 °西則麟蹄 °五色之北爲彌時坡嶺.

1693년(癸酉) 6월 그믐날 양와(養窩)가 자익 김창흡(子益 金昌翕)과 더불어 글을 쓰다. 라는 제하의 글 속에 “호수와 바다를 탐승하며 낙산사(洛山寺)에 이르니 스님이 설악산(雪嶽山) 북쪽의 가지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오색령(五色嶺)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적었다.

■ 探湖海到洛山 °居僧指雪岳北枝曰是五色嶺也.

(9) 풍악록(楓嶽錄)

저촌 심육[樛村 沈鎬] 1685~1753년]이 1713년(癸巳)에 쓴 일기 풍악록(楓嶽錄)에 투촌 사람 집에 유숙하니 역시 회양 땅이다. 주인의 이름은 손일성이며, 그 아들 순흥이 말하기를 일성은 오색령(五色嶺)에 사는 한승운의 매제라 하였다.

■ 投村人家留宿 °亦淮陽地 °主人姓名 孫一成 °其子順興云 °一成 °卽五色嶺 韓承雲之妹婿云.

(10)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燃藜室記述別集 第16卷)

이궁익[李肯翊] 1736~1806년]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摠地理)에 “동쪽에서 일어나 철령(鐵嶺)이 되고, 동북쪽으로는 황룡산(黃龍山)이 되었으며, 남쪽으로 뻗어서 유관령·추지령·금강산·회전령·진부령·흘리령·석과령·설악 한계산이 되고, 오색령·연수

파로 이어지고, 오대산·대관령 두타산·백복령이 되었다.”라고 적었다.

■ 東起爲鐵嶺, 東北爲黃龍山, 南走爲杻串嶺, 爲楸池嶺, 爲金剛山, 爲檜田嶺, 珍富嶺, 屹里嶺石波嶺, 爲雪岳寒溪山, 爲五色嶺連水波, 爲五臺山, 爲大關嶺, 爲頭陀山, 爲百福嶺.

(11) 택리지(擇里志)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李重煥)이 영조 27년(1751년)에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산천 산수를 논 하며, 백두산은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으며, 한 나라에 북두칠성을 둘러싼 별처럼 되어 있는 그 위에는 둘레가 80 리나 되는 큰 못이 있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이고, 동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이고, 북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이며 두만강과 압록강의 안쪽이 곧 우리나라이다. 백두산에서 산맥은 가운데로 뻗어 함흥에 이르고, 동쪽 가지를 따라 뻗은 두만강 남쪽, 서쪽 가지를 따라 뻗은 압록강의 남쪽이다.

함흥에서부터 산등성이가 동해에 좁게 치우쳐 서쪽 가지는 칠팔백 리에 달하고, 동쪽가지는 백 리 미만인 대간은 남으로 내려가 수천 리를 끊이지 않고 옆으로 골짜기를 이루고 경상도에 이르러서 태백산과 통하였다. 한줄기 영이 함경도와 강원도가 만나는 곳에 철령(鐵嶺)이 되었으며 이 영(嶺)을 통해 북쪽은 대로다.

그 아래로 내려와 추지령(湫池嶺)·금강산(金剛山)·연수령(延壽嶺)·오색령(五色嶺)·설악한계산(雪嶽寒溪山)·오대산(五臺山)·대관령(大關嶺)·백봉령(白鳳嶺)에 이어 태백산(太白山)으로 이어졌다. 여기저기 솟은 고저가 고르지 않는 산은 모두 골이 깊고 높은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있다. 영(嶺)을 이르기를 영의 등성이 점점 낮아져 평평한 곳을 열어 길을 내어 영동과 통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 모두 이름 있는 산이라 부른다.

■ 山水

何以論山水白頭山在女眞朝鮮之界爲一國華蓋上有大澤周廻八十里西流爲鴨綠江東流爲豆滿江北流爲混同江豆滿鴨綠之內即我國也自白頭至咸興山脈中行東枝行於豆滿之南西枝行於鴨綠之南自咸興山脊偏薄東海西枝長亘七八百里東枝未滿百里大幹則不斷峽橫亘南下數千里至慶尙太白山通爲一派嶺而咸鏡江原之交爲鐵嶺是爲通北大路其下 爲湫池嶺爲金剛山爲延壽嶺爲五色嶺爲雪岳寒溪山爲五臺山爲大關嶺爲白鳳嶺仍作太白山焉皆亂山深峽危峰疊嶂耳謂之嶺者仍嶺脊稍低平處開路通嶺東其餘皆以名山稱者也

(12) 다산시문집 제7권 (茶山詩文集 第7卷)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1762~1836년] 시(詩) 소양강을 건너서 두보의 수회도시에 화답하다(昭陽渡和水廻渡) 시(詩) “寤寐五色泉 何由得一餐(자나 깨나 바라나니 오색의 샘물을 어떻게 해서 한번 마셔 볼거나)” 라고 읊고. "설악산 동쪽이 곧 양양의 오색령(五色嶺)인데 여기에 영천(靈泉)이 있다." 라고 적었다.

- 雪嶽之東 卽襄陽 五色嶺 有靈泉.

(13)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해좌 정범조[海左 丁範祖]1723년~1801년]의 시문(詩文) 상운역승을 만나러 오색령에 갔으나 영천(靈泉)만 마시고 만나지 못했다. 에서 “길을 찾아가니 오색령(五色嶺)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읊었다.

- 訪祥雲丞 值入五色嶺 飲靈泉不遇
停盖雲松下 虛樓不見君 徑尋五色勝 剩作四仙羣

白頭大幹 五色嶺

飛鳥還居後 靈漿倘許分 依依沿浦返 遙海欲斜曛.

1779년 설악기(雪嶽記)에 “동남방은 숲과 골짜기 아주 아름답다. 동쪽은 오색령인데 영천(靈泉)이 있어서 체증에 좋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 東南林壑絕美 °東爲五色嶺 °有靈泉 °宜痞積.

(14)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연경제 성해응(研經齋 成海應 1760~1839년)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 설악산에 관한 기록 가운데 “설악산은 눈같이 교결(皎潔)하여 설악산이라 칭하는 바, 오색령으로 이어졌다.”라고 적었다.

- 山皎潔如雪 乃雪嶽之所稱也 自青峯走東南 連亘五色嶺者.

(15)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조선 순조 8년(1808년)경에 시임(時任)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같이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 한 것이다.]에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 기린(狶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서쪽 통로다.”라 기록되어있다.

- 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狶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16) 금강산총기(金剛山總記)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 1664~1732년]의 금강산총기 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서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고개가 되고 이것이 팔백리를 관통하여 온정령에 이르고 다시 남쪽으로 삼십리 지점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동해 바다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 진보령(진부령)이 되며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파령,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 되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르고, 삼십리 거리에 대관령이 되고, 사십리 거리에 백복령이 되고, 백리 거리에 태백산과 황지가 된다. 이것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 위아래의 형승이 막히고 험준한 모습의 대략이다.

■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鎮溫定三 大嶺 通八百里 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邊海百里爲眞寶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 彌峙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爲大 關嶺四十里爲百複嶺 百里爲太白·黃池 此其上下形勝阻阨大體也。

(17) 산경표(山經表)

조선후기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旅菴 申景濬) 1712~1781년]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山經表』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들의 족보인 셈이다. 책의 윗부분에 대간(大幹)·정맥(正脈) 등의 명칭을 가로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세로로 산·봉우리·고개 등의 연결 관계, 산들의 갈래를 기록하였다. 표 밖의 상단에는 그 산이 속한 군현 이름을 표시하여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나타냈다. 1910년에 설립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는 빼앗긴 국토와

역사의 줄기를 되찾으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선 구래의 문헌 도서 중 중대하고 긴요한 자료를 수집, 편찬, 개간하여 귀중한 도서를 보존, 전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선광문회에서 『택리지』 『도리표』에 이어서 지리서로서 세 번째로 1913년에 간행한 책이 『山經表』인데 산경표에 나타난 지명은 총124개소 중 山57개소, 嶺48개소, 峙8개소, 峴7개소 峰4개소이며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1> 산경표에 나타난 백두대간

총124개소	山-57개소 · 嶺-48개소 · 峙-8개소 · 峴-7개소 · 峰-4개소
<p>백두산→연지봉→허항령→보다회산→사이봉→완항령→어은령→원산→마등령→괘산령→황토령→천수령→조가령→후치령→항령→태백산→부전령→대백역산→황초령→사향산→설한령→낭림산→상검산→마유산→횡천령→두무산→애전산→철웅산→오강산→운령→무라발산→거차산→토령→장좌령→대아치→죽전령→기린령→재령산→화여산→두류산→노동현→반룡산→마은산→노인치→박달령→백한산에운령→설탄령→분수령→청하령→추포령→풍류산→철령→판기령→기죽령→저유령→추지령→판막령→선령→온정령→금강산→회전령→진부령→마기라산→흘리령미시파령→설악→오색령→연수령→조침령→구룡령→오대산→대관령→삽당령→백봉령→두타산→충옥산→죽현→건의령→대박산→태택산→수다산→백병산→마아산→곶적산→소백산→죽령→도솔산→작성산→대미산→계립산→조령→이화현→회양산→주현→대야산→불일산→화산→속리산→구봉산→봉황산→웅현→웅이산→ 고산→흑운산→추풍령→계방산→황악산→삼성산→우두산→삼도봉→대덕산→덕유산→백암봉→봉황산→육십치→장안치→본월치→백운산→기치→유치→여원치→ 지리산</p>	

(18)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

1896년 2월 16일(丙申 建陽元年·開國五〇五年) 유진장 이우렬(留陣將 李佑烈)이 의병군(義兵軍)을 이끌고 오색령(五色嶺)을 넘어 양양으로 진군했다.(襄陽進軍 引軍踰五色嶺) “3월에 이석범을 논죄하고 제왕의 군사가 경

계에 이르렀을 때 서울의 병력이 낮에는 매복하고 밤에 행군하여 춘천에서 출발하여 오색령을 넘어 양양으로 들어 닦쳤다.”라는 기사가 있다.

■ 三月京兵曉諭文 兄弟彎弓 致書觀察使 徐廷圭 史筆公論 李錫範論罪 王師到境 時京兵晝伏夜行, 自春川反踰五色嶺抵襄陽.

(19) 증보문헌비고 권28(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 오색령은 서쪽 50 리에 있다. 모든 산의 총설에 나타나 있다. 양양 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령·양한치이며,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홀이령·탄둔령·두모치·건리치·오색령·서파령·가노치·진보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弼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陵路 兄弟峴 兩寒峙並西路麟蹄 嶺路味施嶺……屹伊嶺 炭屯嶺……頭毛峙……建里峙……五色嶺 見襄陽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

2) 고지지(古地誌)에 나타나는 오색령

(1)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 양양부(襄陽府) 지도에는 북쪽에 있는 영(嶺)으로서 오색령(五色嶺)·필여령(弼如嶺)·소동라령(所冬羅嶺)·조침령(阻沉嶺)·구룡령(九龍嶺) 등의 다섯 개의 영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으며, 북쪽의 오색령이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색령(五色嶺)과 소동

라령(所冬羅嶺)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오히려 구룡령(九龍嶺)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도로의 표시는 유일하게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기능이 우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輿地圖書』의 관애조(關陘條)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의 일곱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의 세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 彌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獐麟界
-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彌如嶺南枝接獐麟界

이러한 기록을 참조하면 양양부(襄陽府)에서 인제현(麟蹄縣)으로 이르는 관애(關陘)는 북단의 오색령(五色嶺)에서 남단의 소동라령(所冬羅嶺)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양양 영로조(襄陽嶺路條)에는 연수과령·오색령·필여령·박달령·소동라령·구룡령·양한치·소량치 등의 모두 여덟 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색령(五色嶺)에 대한 설명은 필노령·박달영 등과 함께 되어 있고, 아울러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五色嶺 彌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獐蹄界。
- 所冬羅嶺 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獐蹄界。

옛날의 소동라령(所冬羅嶺)에는 경사[(京師)서울]로 통하는 대로(大路)가 있었다. 그런데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인제(麟蹄)의 영로조(嶺路條)에는 연수과령·오색령·필노령·박달령·진부령·선유령·흘이령·소파령·회전령·옹봉령·탄령·건이령·두모현·사라치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양양(襄陽)과 연결되는 것은 오색령·필노령·박달령 등의 세 영(嶺)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동지지』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보다는 오색령(五色嶺)이 인제와 양양을 잇는 주요 통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동지지 권27(大東地志 卷二十七)의 정리고(程里考)에 “경도(京都)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통하는 십대로(十大路) 중 동남쪽 평해까지 대로(東南至平海大路)의 기록을 보면 홍천(洪川)의 가노진(加奴津)에서 인제(麟蹄)는 10리, 인제에서 서울까지는 360리요, 인제에서 동쪽 오색령(五色嶺)까지는 70리, 오색령에서 양양(襄陽)까지는 50리로 구대로(舊大路)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오색령은 경도(京都)에서 출발하여 평해에 이르는 주요대로(主要大路)였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 加奴津十里 麟蹄十里京三百六十里 ○東五色嶺七十里襄陽五十里舊大路

(3) 관동읍지(關東邑誌)

관동지의 편찬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동읍지[(關東邑誌) 1871년의 선생안(先生案)]에 군수의 도이임(到移任) 년월이 기록된 읍지가 14개나 있다. 이를 토대로 비교해 보면 각 읍지를 종합하여 성책(成冊)한 것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관동지는 총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3권에 양양(襄陽)과 간성(杆城)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영로(嶺路) 연수과령은 서북쪽 75 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모두 서쪽 50 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 리에 있는 험한 절벽지로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인제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0 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

■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彌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所冬羅嶺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4) 양주읍지(襄州邑誌)

1823년 양주읍지(襄陽邑誌)에 “오색령(五色嶺)은 부(府)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간다. 이는 미시령 길에 비해 50 리나 단축되는데 영(嶺) 아래에 예전에 역(驛)이 있었으나 관터는 비어있다. 골짜기와 냇물이 험하여 간성의 원암(元巖)으로 역을 옮겼다. 영의 북쪽에 온천이 있는데 박필정[(右尹 朴弼正):1747년 양양부사, 1755년 한성부우윤]이 이 르기를 고성(高城)의 온정 온천수보다 못지않다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 五色嶺在府西七十里由此入京則比彌坡路短五十里嶺下舊有驛基館墟移峽川之險移驛於杆城之元巖嶺之稍北有溫泉朴右尹弼正以爲湯水之效無減於高城井云.

(5) 강원도지(江原道誌)

1940년 강원도지에 “오색령(五色嶺)은 부(府)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다.”……라고 적었다.

■ 五色嶺在郡西七里由此入京則比彌坡路短五里嶺舊有驛基館墟以峽川之險移驛于杆城元岩嶺之稍北有溫泉諺傳古有此嶺一木開五色花見之者長生不老近世此花潛影不見只有藥水湧出飲者得效大正己卯郡守全在禹使人探查得一木開青黃赤三色花移植則枯死故於本生地培養繁殖而方探五色花木也

3)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나는 五色嶺

(1)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다. 해동지도에 있는 문장들을 풀어보면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양양부로 승격되었으며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강원도 양양군 일대와 속초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양양읍 군향리가 그 중심지가 된다. 지도 위쪽의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이 현재의 속초시(東草市)에 해당하며 지도 아래쪽의 동산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양양에 포함된 땅으로 양양군 현북면 지역이다. 청초호(靑草湖), 쌍호(雙湖) 등의 석호(潟湖)가 발달한 지역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왼쪽 위는 설악산 일대이며 오색령·박달령·조침령·구룡령 등의 고개는 양구·인제·춘천과 통하는 통로가 된다. 동해묘(東海廟)동해신사, 양양읍 조산리]는 나라에서 봄가을에 향과 축을 내리어 동해신(東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낙산사를 비롯하여 신흥사·영혈사·개운사·명주암 등의 사찰이 있었다. 양양을 중심으로 표기된 영(嶺)을 보면 오색령(인제계)·박달령(춘천계)·조침령(춘천계)·구룡령(강릉계)순으로 기록 되어 있다.

(2) 광여도(廣輿圖)

양양부(襄陽府)는 양양군과 영랑호 남쪽의 속초시에 해당하며 읍치(邑治)는 양양읍 군향리·성내리 일대이다. 고을의 진산(鎭山)은 읍치의 서북쪽에 있는 설악산(雪嶽山)인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색약수로 유명한 오색령(五色嶺)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읍치에는 토축(土築)과 석축(石築)이 섞여 있었던 읍성이 있었음이 지도에도 보인다. 읍성의 오른쪽에는 동해묘(東海廟)가 표시되어 있는데 동해신에게 제사지내던 곳으로

서 사전(祀典)에는 중사(中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위쪽에는 신라의 의상(義湘)625-702년]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낙산사(洛山寺)가 있고, 150m 아래쪽 절벽 위에 지어졌다는 의상대(義相臺) 등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서쪽의 백두대간 부근에도 신라 신문왕 9년(68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영혈사(靈穴寺)를 비롯한 사찰의 표시가 있다. 읍치 아래쪽에 있는 상운역(祥雲驛)은 15개의 속역(屬驛)을 거느린 찰방역이며 해안가에는 석호(瀉湖)에 해당하는 청초호·쌍호·포마호(靑草湖·雙湖·浦麻湖) 등이 보이고 있다. 지도 아래쪽의 동산현(洞山縣)은 고려 초에 병합된 폐현을 가리킨다. 양양을 중심으로 지도에 표기된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인제계)·박달령(춘천계)·조침령(춘천계)·구룡령(강릉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도(靑邱圖)

조선순조 34년(1834년)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지도책이다.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안지도(方眼地圖)로서, 방안의 실제거리는 남북이 100 리, 동서가 70 리이다. 지도의 내용으로 읍치 산천 군현 경계 도로 면 창고 서원 향교 누정 역 고개 교량 봉수 도서 진 시장 등이 그려져 있는 전국지도로서 대동여지도 제작의 바탕이 된 지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양양을 중심으로한 지도에 표기된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형제현·연수령·조침령·소동라령 [險阻而廢] ·구룡령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4)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철종 12년(1861년)에 제작한 우리나라의 대축적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순조 34년(1834년)에 김정호 자신이 제작한 『청구도』를 27년 후에 증보 수정한 대축적지도로 분첩 절첩식 지도첩이

다. 우리나라의 남북을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하고, 동서를 80리 간격으로 끊어 19판으로 구분했다. 동서방향은 구획된 판을 접어서 연결시켜 1첩으로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동서의 방향을 연결시킨 각 첩을 펼쳐서 순서대로 이어 대면 연속된 남북을 볼 수 있도록 한 전국지도이다. 양양을 중심한 일부분의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필여령·구룡령 세 개의 영(嶺)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5) 양양읍지도(襄陽邑地圖)

1872년의 지방지도(총459매)는 병인 신미 두 차례의 양요를 겪은 후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 읍치의 관청 건물과 각면의 소속 동리와 같은 행정적 요소 창고 장시 역원 도로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 제단 누정 서원 고적과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이 망라되어 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동해신묘의 규모와 낙산사 관음굴 의상대가 두드러지게 표현 된 것이 특징이다. 양양읍 지도에는 북쪽에 오색령·필여령·조침령·구룡령 등의 네 개의 영(嶺)이 기록되어 있으며, 인제현(麟蹄縣) 지도에는 동쪽으로 오색령(五色嶺) 양양계(襄陽界)라 하여 오색령(五色嶺)이 양양에 이르는 주요 통로임을 기록하고 있다.

(6) 其他地圖

조선중기 이후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표기된 지도는 총43개로 조사 되었다. 이 중 앞에 기록된 해동지도 광여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양양읍지도 등 5개지도 외에 38개 지도를 열거하면 관동지도(1712년,古4709-35) 여지도(1736~1767년,古4709-68,양양부, 인제현) 비변사인방안지도(1745~1765년) 해동지도(1750년, 강원도, 인제현) 조선지도(1750~1768년,奎16030)선역

도(1760년대) 팔도분도(1758~1767년) 팔도지도(1758~1767년,古4709-23) 팔도지도(1767~1778년,古4709-14) 동역도(1767년,古4709-27)지승(1776년,奎15423, 강원도, 양양부, 인제현) 조선팔도지도(古屏912.51-J773-강원도.황해도) 조선팔도지도(1776~1785년,古4709-54, 강원도) 좌해분도(古4709-99) 팔도지도(1790년,古軸4709-48)여지도(1789~1795년,古4709-78)여지도(1795~1822년,古4709-37) 해동지도(1800~1822년,古4709-61, 강원도) 광여도(1800년,古4790-58, 관동도, 인제현) 좌해지도(1830년,奎12229) 청구도(3책제15층9판) 청구요람(1834년) 청구요람(1책제15층9판) 대동방여전도(12첩2면,강원도) 동여도(1857년) 1872년 지방도(인제현) 지도(古4709-92, 강원도) 해좌전도(1849~1863년) 조선여지도(1894년) 조선전도(1894년) 대한전도(1899년) 대한지지(1906년) 대한신지지부지도(미상)등이다.

4) 일제강점기 신문 및 관보 등(日帝強占期 新聞官報 等)

(1) 동아일보 기사

1932년 3월 15일[소화(昭和) 7년 3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에 “인양선도로문제(麟襄線道路問題)로 동민, 당국(洞民當局)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달라고 800명 동민연서(洞民連書)로”란 제목으로 대서 보도되었다. 기사내용은 인제군 주민 800명이 연서하여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을 관통해 달라고 인제군과 강원도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

(2)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관보에 1913. 1. 15.자로 강원도의 3등 도로(道路)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울진~죽변 간, 강릉~견소진 간,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 라 게재하여 있다.

(3) 개벽

개벽 제42호 1923년 12월 1일 기사제목 조선의 처녀지(處女地)인 관동지역 란에 인정, 풍속, 언어 상술함과 여히 영동, 영서는 지세 급(及) 기후가 상이할 뿐 안이라 교통이 전혀 격절상태(隔絶狀態)에 재 하얏슴으로 인정, 풍속, 언어 등이 또한 상이하다. 즉 영동의 울진, 삼척, 강릉은 대개 경상도와 갖고, 양양, 고성(杆城合郡)은 영서와 갖고 [고대(古代)로 오색령을 통해야 영서의 교통이 빈빈(頻頻 : 잦은)한 소이(所以 : 모양)] 통천은 함경남도과 갖고 영서의 이천 평강은 황해도와 비스나고 기타 제군(諸郡)은 경기, 충청도와 비스나다 총괄하야 말하자면 강원도의 인정, 풍속, 언어는 무슨 특색이 업다.

개벽 제42호 1923년 12월 1일 기사제목 관동의 흑산국 양양군(關東의 黑山國 襄陽郡) 란에 시사문제는 오색령도로문제(五色嶺道路問題)와 송계문제(松楔問題)가 최중요(最重要)하나 오색령문제는 대개(大槩) 민간요구와 여히 귀착(歸着)되야 현재 측량에 착수중이오 송계문제(松楔問題)도 관민간 다소충돌(多少衝突)되나 미구(未久)에 원만해결(圓滿解決)될 것이다.

개벽 제62호 1925년 8월 11일 기사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적어보자. 만호(萬戶) 미만인 양양주민 부담으로 20만원 거금을 판출(辦出)하야 五色嶺을 2等 道路로수축(修築)하야 양양의 교통과 발전을 도모(圖謀)한다는 절대불가능의 미명하(美名下)에서 소위 유지기인(有志幾人)이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고 총독부당국(總督府當局)에 허가를 얻는다고 하야 ……오색령도로반대(五色嶺道路反對)를 결의하고 도당국과 총독부(總督府) 당국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야서 대소동(大騷動)을 일으키든 것이……

2. 한계령으로 地名 變更記錄

1) 日帝強占期 寒溪嶺으로 歪曲

한계령(寒溪嶺)은 일제(日帝)가 멋대로 땅이름을 바꿔놓은 왜곡의 표본 사례이다. 1914년 이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전국의 지명과 지지사항(地誌事項)중 양양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군 서면 오색령을 인제군 북면 지역에 표기하고, 한계령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변경 표기함으로써 우리 전통고유 지명인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뒤바꿔 놓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는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의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朝鮮地誌資料》 강원도편-(경인문화사) 420쪽 인제지도 북면 동쪽으로 오색령이 표기되어있다. 양양지도에는 오색령이 없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형제현(兄弟峴), 연수과령(連水坡嶺), 조침령(阻沉嶺), 구룡령(九龍嶺)으로 표기되어있다. 『朝鮮地誌資料』 강원도편 421쪽에 수록된 지명은 인제군 북면 강천계간명(江川溪澗名)에 오색천(諺文:오식이늬)이 한계리 자양곡(紫陽谷)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2>참조. 423쪽의 인제군 북면 영치현명(嶺峙峴名)에 오색령(諺文:오식이영)이 한계동(寒溪洞) 자양동(紫陽洞)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840쪽의 양양군 서면 영치현명(嶺峙峴名)에 한계령(諺文:한계영)으로 적고, 비고란에 서면 오색리로 기록하였다<표 4>참조.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의 각 쪽별의 세부 자료는 중·하략(中下略)하였다.

<표 2> 조선지리지자료(인제 421쪽)

面 別	種 別	地 名	諺 文	備 考
北 面	江川溪澗名	魚 隱 川	어은늪	寒溪洞瓦川
		牛 足 川	쇠발골늪	寒溪洞牛臥里
		玉 女 川	옥여늪	寒溪里紫陽谷
		五 色 川	오색이늪	寒溪洞紫陽谷
		鶯 川 江	연천강	魚頭里
		紅 峰 沼	홍봉소	嵐橋里

<표 3> 조선지리지자료(인제 423쪽)

面 別	種 別	地 名	諺 文	備 考
北 面	酒 幕 名	瓦 川 酒 幕	지늪주막	寒溪洞
		鳥 谷 峴	식골고기	元通里
		大 勝 嶺	딤승영	寒溪洞紫陽谷
		五 色 嶺	오색이영	寒溪洞紫陽谷
		加 里 嶺	가리산영	寒溪洞牛足洞
		麻 田 峴	삼밭치고기	寒溪洞魚隱洞

<표 4> 조선지리지자료(양양 840쪽)

面 別	種 別	地 名	諺 文	備 考
降仙面	峯峙峴名	塩 峙	소 금 지	降仙面 中福里
西 面		三 發 峙	삼 발 리 지	西面 內峴里
		寒 溪 峯	한 계 영	西面 五色里
		弼 如 峯	필 여 영	西面 五色里
		朴 達 嶺	박 달 영	西面 五色里
		兄 弟 峙	형 제 고 기	西面 五色里

白頭大幹 五色嶺

2) 일제강점기 한계령으로 變更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단독표기 된 것은 1915년 발행된 조선총독부지도가 최초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한 한국근대지지자료(韓國近代地誌資料)의 인제군세 일반(麟蹄郡勢一斑) 지도[(地圖)1/200,000]에는 설악산과 그 아래 영로는 한계령(寒溪嶺)·단목령(檀木嶺)·조침령(鳥砧嶺)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오색령이 지도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한계령으로 표기된 시점은 이때부터임을 알 수 있다.

3) 일제강점기 오색령 명칭 계속사용

조선총독부는 조선지지자료(1914년 이전)·조선총독부발행지도(1915년)·한국근대지지자료(1930년)에 한계령으로 변경표기 한 것과는 관계없이, 총독부관보, 개벽(월간종합지), 동아일보 신문기사, 강원도지 등에 오색령 명칭을 통상적(通常的)으로 사용해 왔다. 그 실례를 보면 “조선총독부관보(1913년 1월 15일)에 강원도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에서 양양~인제 간(약수리 오색령 어두리 경유)……” “동아일보기사(1932년 3월 15일)인양선도로문제로 동민, 당국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달라고……” “개벽 제42호(1923년 12월 1일)기사제목 조선의 처녀지인 관동지역 란에……(古代로五色嶺을 통하야 嶺西의 교통이 頻頻한 所以)……” “개벽 제42호(1923년 12월 1일)관동의 흑산국 양양군(關東의 黑山國 襄陽郡) 란에 시사문제는 오색령도로문제와 송계문제(松稷問題)가 최중요하나 오색령문제는……” “개벽 제62호(1925년 8월 11일) 만호(萬戶) 미만인 양양주민 부담으로 20만원 거금을 판출(辦出)하야 오색령을 2등 도로로 수축(修築)하야……” “강원도지(1940년)에 오색령은 부 서쪽70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다.” 라고 적었다. 등이다.

4) 정부수립이후 한계령으로 命名한 誤解

정부수립이후(政府樹立以後) 공식적(公式的)으로 한계령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61년 4월부터이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所藏)된 한계령(寒溪嶺)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제군은 1959년 3월에 지명 조사를 실시하여, 동년 3월 27일 지명제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동년 4월 1일 지명승인 신청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계령 지명의 유래는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寒溪嶺)이라고 하나 오색이영 이라고도 함”이라고 보고 하였다.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사용한다.”라고 국무원고시 제16호(1961년 4월 22일)로 전국의 지명을 고시 할 때 한계령(寒溪嶺)도 함께 표기되었다.

설악산 횡단도로 개축공사(改築工事)는 육군공병부대가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1차 공사는 육군 제3군단에 의해 1963년에 완공하였고, 2차 공사는 육군 제5289부대에서 1971년에 각각 완공하였다. 군부대에서 공사를 완공한 이후 당시 일반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던 오색령을 갑자기 한계령이라 부르게 되니, 일반사회에서는 군부대와 관련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일제가 임의로 지도상에 오색령(五色嶺)을 한계령(寒溪嶺)이라 바꿔 표기했던 것을 바르게 고치지 않고 비판 없이 그대로 표기한데서 온 오해(誤解)이다.

3. 오색령 · 한계령 考證 比較

앞에서 오색령에 관하여 고문헌(古文獻)·고지지(古地誌)·고지도(古地圖) 등 역사적으로 고증(考證)된 기록들과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및 정부수립(政府樹立)이후 오색령(五色嶺)이 한계령(寒溪嶺)으로 지명(地名)이 변경

된 기록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7>참조.

<표 5> 오색령 · 한계령 考證 比較

五色嶺			寒溪嶺		
年代	地名表記根據	地名	年代	地名表記根據	地名
古文獻			日帝強占期		
1596	宣祖實錄	五色嶺	1915	朝鮮總督府發行地圖	寒溪嶺
			1930	韓國近代地誌資料(地圖)	“
1602	李光胤先生年譜	“	政府樹立以後		
1691	谷雲集權之四	“	1950	美軍事地圖	“
1691	養窩集	“	1961	國務院告示	“
1712-1781	山經表	“	1966	國土情報地理院地圖	“
1713	沈鎬의 楓嶽錄	“	1967	國防部測地部隊地圖	“
1709	峴山三十詠	“	<p>○ 古文獻에 나타난 五色嶺 以前은 所率嶺으로 부른 것으로 推定됨.</p> <p>○ 조선 철종 8년(1857년) 大東輿地圖를 만들기 전에 底本地圖인 東輿圖에 한 차례 五色嶺 위 북쪽지점에 寒溪嶺 이라 표기 된 바 있으나 양양군 소천면은 현재의 속초구역임 지금의 한계령과는 거리가 멀다.</p> <p>○ 1913년 조선총독부관보 오색령 기록</p> <p>○ 1923년 개벽 42호 오색령 “</p> <p>○ 1932년 동아일보기사 오색령 “</p>		
1664-1732	金剛山總記	“			
1723-1801	海左鄭範祖詩文	“			
1776	燃藜室記述別集	“			
1751	擇里志	“			
1760-1839	記關東山水	“			
1762-1836	茶山詩文集	“			
1808	萬機要覽	“			
1896	關東倡義錄	“			
1908	增補文獻備考	“			
	地誌資料	“			
1757	輿地圖書	“			
1866	大東地志	“			
1823	襄陽邑誌	“			
1871	關東邑誌	“			
地圖資料					

1730년대	輿地圖	“	
1747	關東地圖	“	
1750	廣輿圖	“	
1750	海東地圖	“	
1758-1793	東域圖	“	
1767-1778	八道地圖	“	
1787-1795	左海分圖	“	
1830	左海地圖	“	
1834	靑邱圖	“	
1857	東輿圖	“	
1861	大東輿地圖	“	
1872	襄陽邑地圖	“	
1894	朝鮮輿地圖	“	
19세기 제작	大東方輿全圖	“	
위의 지도 외에 29개 더 있음		“	

Ⅲ. 오색령 地名 復元의 當爲性과 復元節次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은 오색령(五色嶺)이다. 오색령이란 지명의 효시(嚆矢)는 조선 선조실록(1596년)에 처음 등장하여, 이때부터 계속 오색령으로 불리어 왔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양양군에 속해있다.(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 “오색령(五色嶺)은 강원도 양양군 서쪽 23km 지점에 있는 고개, 이 고개를 넘으면 인제군에 이른다. 고개아래에는 옛날

의 역원(驛院)이 있었다. 한편 협천(峽川)이 험하여 역(驛)을 간성(杆城)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고개의 조금 북쪽에는 온천(溫泉)이 있다.”라고 기록되었다. [(김익달(金益達) 『대백과사전(大百科事典)』, 4권 783쪽 참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지리지자료·지도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영로(嶺路)는 각종문헌을 통해서 볼 때 대표적으로는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五色嶺)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동여도(東輿圖)에 오색령(五色嶺)은 고대로(古大路)라 병기(併記)되어 있다.

오색령은 “양양사람들이 설악산을 넘어서 인제군이나 서울로 갈 때 주로 이용되던 험한 산길이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산 도둑이 들끓어 해가지면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양양군 서면 오가리(오색리)의 길 옆 바위에 금표(禁標)라고 새겨두었다. 지금도 그 바위가 있으며 한계령에 오르는 길에는 금표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 백과사전 참조> 현행사용 되는 지도상에 양양군과 인제군의 경계는 영(嶺)마루 선이 아닌 인제군의 한계천(寒溪川) 마지막 지계곡인 도둑바위 골로 100여m내려간 곳이다. 도둑바위 골에 대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금표암과 도둑바위 골이 현재까지 상존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동서 영로(嶺路)임을 입증하는데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중기를 전후하여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도로(道路)의 기능을 상실하자, 오색령은 새로 개척한 도로상에 위치한 영(嶺)으로 분명히 소동라령(所冬羅嶺)과는 별개의 지명이다. 혹자는 소동라령이 현재의 한계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지도(輿地圖1736-1767년)·해동지도(海東地圖1678-1752년)·팔도지도(八道地圖1767-1778년)·좌해분도(左海分圖1787-1795년)·청구도(靑邱圖1834년)·좌해지도(左海地圖1830년) 등에는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전혀 다른 위치에 표기 되어있다. 북쪽의 오색령(五色嶺)은 설악산의 주봉에 가

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오히려 구룡령(九龍嶺)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반면 한계령이란 명칭이 한 때 동여도에 표기 되었다가 대동여지도에서는 삭제된 지명이었지만, 동여도(東輿圖)상에 표기 된 한계령로(寒溪嶺路)는 양양군 소천면 [(所川面)지금의 속초시지역] 의 소양치 위쪽을 지나 인제군 북면 백담사를 경유하여 남교리(嵐校里)로 연결 된 도로로 현재의 한계령 도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령 명칭으로 표기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제는 조선지지자료(1914년 이전)에 오색령(五色嶺)은 인제군 북면 자양동에 속한 것으로 기록하고, 한계령(寒溪嶺)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속한 것으로 뒤바꿔 놓았다. 조선총독부발행지도(1915년)에 한계령으로 단독 표기하였다. 한국근대지리지자료(1930년 4월)인제군세 일반(麟蹄郡勢 一斑)지도에는 오색령(五色嶺)은 완전히 삭제되고 한계령(寒溪嶺)으로 일원화(一元化)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지도상에 표기된 한계령 명칭과는 관계없이 오색령이란 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일제가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표기한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강점기에 오색령 명칭을 사용한 자료를 보면, 조선총독부관보(1913년), 개벽 42호(1923년), 개벽 제 62호(1925년 8월 11일), 동아일보기사(1932년) 강원도지(1940년)등이다.

정부수립이후 1959년도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 당시 군(郡)에서 보고 된 조사서식을 보면 지도상 기재된 지명, 경위도, 좌표, 지명유래 순으로 기록토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식으로 보아 이미 지도상에 표기된 지명 외에는 기초조사 기관의 재량권이 결여 된 것이 아닌가 본다. 따라서 한계령지명이 현재까지 기록유지 된 소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왜곡된 지명이 복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6·25한국전쟁을 맞게 되자 1950년도 미군사지도 제작 시 일본총독부의 지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쟁과정에서 지도제작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 1959년도에 한국 지명조사 실시 당시 조사서에 첨부된 지도 역시 제작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1950년대 미 군사지도를 참작하여 정부(국방부)에서 제작된 지도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 이상을 종합 할 때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五色嶺)은 별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일제 강점기 이후에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표기하였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 할 때,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아서 후손들에 물려주는 작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2. 現行法上 地名 復元節次

자연지명은 개별법에서 정한 이외의 마을·산·고개·나루터·폭포·굴·섬 등으로 국토해양부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지명이라 하더라도 하천은 하천법, 국립공원에 관한 명칭은 자연공원법, 관광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 되어 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개인 또는 일반법인 이 지명제정·변경·폐지 등에 대하여 지명의 유래, 지형 특징,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안 또는 발의 가능하며, 절차상으로 당해 지명이 소개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도 지방지명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후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지도에 표기 또는 수정 된다.(국토지리정보원)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8>참조.

<표 6> 지명 복원 절차법 요약

제안·발의	1차 심의	2차 심의	최종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 시민단체 ■ 개인·법인 	시·군·구 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지도에 표기 또는 수정.

※지명 복원 절차법요약은 논문작성 당시의 근거 자료임.

IV. 맺는 말

이상 앞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현재의 한계령은 고문헌·지지자료·지도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민족혼 말살에 혈안이 되었던 일제는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멋대로 땅이름을 바꿔 놓은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는 1914년 이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조선지지자료 내용을 살펴 보면 양양군 서면의 오색령은 인제군 북면 자양동 자양곡에 소재 지명으로 표기하고, 한계령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소재 지명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다.

조선 중기이후 발행된 43개의 고지도에 표기된 영(嶺)의 명칭 중 변천된 내용을 양양을 중심으로 몇 개소 살펴보면, 진부령이 진보령으로 미시령이 미시과령으로 필여령이 필노령으로 지명이 일시 변경되었다가 복원된 사례와, 소동라령, 한계산 처럼 당시의 사정에 의하여 없어진 예는 있었지만, 오색령과 같이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지명이 일제 강점기에 인제군 지역으로 속하였다가 사라진 예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왜곡행태의 예라 할 수 있다.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된 한국근대지리지자료(韓國近代地誌資料)의 인제군세 일반(麟蹄郡勢 一斑)지도에는 설악산과 그 아래 영로로 한계령·단목령·조침령으로 표기되어있었고, 오색령은 완전히 지도상에서 삭제 된 채 한계령으로 일원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수립이후 공식적으로 한계령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61년 4월 22일 국무령고시 제16호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사용한다.”라 고시 할 때 한계령명칭이 함께 고시(告示)되었다.

우리가 용인(容認)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오색화(五色花)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오색령은 기암절벽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반면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寒溪)란 명칭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한계령은 우리 지역 정서와는 상관없는 지명이다.

강점기에서 해방 된지 올해가 66년이다. 일제가 자기들의 통치 상 편의에 맞춰 왜곡시킨 지명을 현재까지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할 때, 우리 윗대가 광복이 되자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본디 이름을 찾았듯이 강점기에 창지 개명 된 한계령을 우리의 고유지명인 오색령으로 바로 고쳐서 후손에 물려주어야한다. 이 작업(作業)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課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원도지(江原道誌)
개벽 제42호(1923년12월1일)
개벽 제62호(1925년8월11일)
곡운집 권지4(谷雲集 卷之四)
관동읍지(關東邑誌)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
금강산총기(金剛山總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다산시문집 제7권(茶山詩文集 第7卷)
대동지지(大東地志)
동아일보 기사(1932년3월15일)
만기요람(萬機要覽)
명암집(鳴巖集)
산경표(山經表)(1996.3월 산림청발간 백두대간 문헌정리요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서 이광운 선생년보(瀋西 李光胤 先生年譜)
양악집(養窩集)
양주읍지(襄州邑誌)
여지도서(輿地圖書)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燃藜室記述別集 第16卷)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지지자료
조선총독부 관보(1913년1월15일)
증보문헌비고 권28(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택리지(擇里志)
팔곡집(八谷集)
풍악록(楓嶽錄)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1. 해동지도
2. 광여도
3. 청구도
4. 대동여지도
5. 1872년 지방도-양양읍지도
6. 관동지도(1712년)古4709-35
7. 여지도(1736~1767년)-양양부
8. 여지도(1736~1767년)-인제현
9. 비변사인방안지도(1745~1765년)
10. 해동지도(1750년)-강원도
11. 해동지도(1750년)-인제현
12. 조선지도(1750~1768년)奎16030-인제
13. 선역도(1760년대)
14. 팔도분도(1758~1767년)
15. 팔도지도(1758~1757년)古4709-23
16. 팔도지도(1767~1778년)古4709-14
17. 동역도(1767년)古4709-27
18. 지승(1776년)奎15423-강원도
19. 지승(1776년)奎15423-양양부
20. 지승(1776년)奎15423-인제현
21. 조선팔도지도古屏912.51-J773-강원도.황해도
22. 조선팔도지도(1776~1785년)古4709-54-강원도
23. 좌해분도古4709-99
24. 팔도지도(1790년)古軸4709-48
25. 여지도(1789~1795년)古4709-78
26. 여지도(1795~1822년)古4709-37
27. 해동지도(1800~1822년)古4709-61-강원도
28. 광여도(1800년)古4709-58-관동도

29. 광여도(1800년)古4709-58-인제현
30. 좌해지도(1830년)奎12229
31. 청구도-3책제15총9판
32. 청구요람(1834년)
33. 청구요람-1책제15총9판
34. 대동방여전도 12첩2면(강원도)
35. 동여도(1857년)
36. 1872년지방도-인제현
37. 지도古4909-92-강원도
38. 해좌전도(1849~1963년)
39. 조선여지도(1894년)
40. 조선전도
41. 대한전도(1899년)
42. 대한지지(1906년)
43. 대한신지지부지도(미상)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

I. 問題의 提起

소동라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 “要害, 自本府西去麟蹄境界所等羅嶺三十六里”라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는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치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라는 기록이 있는 등 소동라령에 대한 역사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현재의 한계령이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역사기록에 보면 분명히 오색령, 소동라령, 옛 한계령은 모두 다른 영이었다.

그럼에도 <사진 1> 에서 보듯이 한계령(오색령) 정상에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는 낡은 간판에 “문헌상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한계령에 관한 지명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소동라령(所等羅嶺)’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사진 1〉 한계령 정상의 간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한국 지명 유래집』에도 한계령이 “옛날에는 소동라령이라고 불리었다”¹⁾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 소동라령이 지금의 한계령이라는 출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설악산은 중추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으므로 설악, 설산, 설화산으로 불리었고 소동라령도 같은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한계령으로 바뀌었다”²⁾는 막연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소동라령’을 검색하면 현재의 한계령이 옛 소동라령인 양, 왜곡되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소동라령의 위치를 고지도, 문헌기록, 경계기록, 하천기록, 거리기록 등을 통해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현지를 실사도해 봄으로서 잘못 알려진 소동라령과 한계령의 위치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우리의 향토문화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1) 『한국지명유래집』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연구소, 2008. 제5부 강원도 인제군 689p

2) 『지금의 한계령과 오색령에 대한 연구』 최병헌, 2012, <http://blog.daum.net/bhunc1/8224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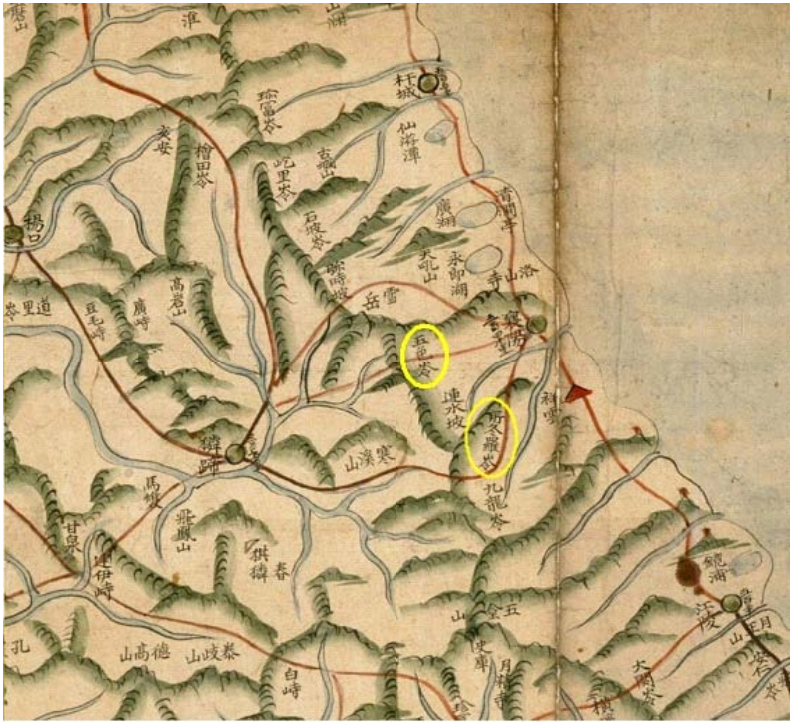
II.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

1. 고지도(古地圖)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소동라령과 오색령, 옛 한계령은 명백하게 다른 영(嶺)이었다. 이는 먼저 <표 1> 과 <지도 1> 고지도(古地圖)들에 표기된 고개명칭을 보면 오색령, 소동라령, 한계령을 다른 위치의 영으로 함께 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소동라령이 표기된 옛 지도들

제 작 년 도	지 도 명	고지도에 표기된 고개 명칭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지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00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구도		오색령	필여령	연수령	소동라령	
1857	동여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776	좌해분도		오색령			소동라령	
1750	해동지도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776	지승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800	광여도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지도 1> 팔도지도(1758~1767년)

이 영들은 영동에서 영서로 통하는 백두대간을 넘는 영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북에서부터 남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관계를 그려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동라령은 오색령과 멀리 떨어진 구룡령에 더 가까운 영으로 지금의 한계령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문헌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년)』의 양양 관애(關陔)편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의 일곱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오색령은 설악 남쪽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춘천 기린계이다.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계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기린계이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를 이룬다”³⁾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동읍지(1871)』 양양 관애(關陔)편에도 “오색령은 설악산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인제와 경계이고,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춘천기린과 경계하며,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하며 과거 서울로 가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한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가지에 접해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한다.”⁴⁾고 적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江原道 襄陽郡邑誌 二)』에도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다. 즉 필여령 남쪽 가지로 기린과 경계를 이루며, 옛날 서울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었다”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여지도서』 江原道 襄陽 / 關陔편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彌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猓獐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彌如嶺南枝接猓獐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猓獐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 金川界面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嶺路兩峴對峙相似故名 兩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嶺路

4) 『관동읍지』 관애편

五色嶺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彌如嶺在府西四十里卽是五色嶺南枝接春川猓獐界 所冬羅嶺在府西六十里卽彌如嶺南枝接猓獐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在府四十五里卽所冬羅嶺南枝接猓獐縣界 九龍嶺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金川界面

5) 『江原道 襄陽郡邑誌 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 卽彌如嶺南枝接猓獐界舊有路通京今廢

이를 종합하면 소동라령은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있었던 영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필여령 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한계령은 소동라령과 같은 영이 아님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경계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위 문헌뿐만 아니라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양양 영로조(襄陽嶺路條)에는 연수과령·오색령·필여령·박달령·소동라령·구룡령·양한치·소량치 등의 모두 여덟 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모두 서쪽 50리 인제계이고,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로 아주 험한 서울로 통하는 대로였다. 기린계이다”⁶⁾라고 적고 있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편에는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 기린(狶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 서쪽 통로다.”⁷⁾라고 기록되어 있고, 1829년에서 183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관동지』 13권에는 “영로(嶺路) 연수과령은 서북쪽 75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모두 서쪽 50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리에 있는 험한 절벽지로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기린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0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역사기록에서 소동라령은 춘천 기린계라고 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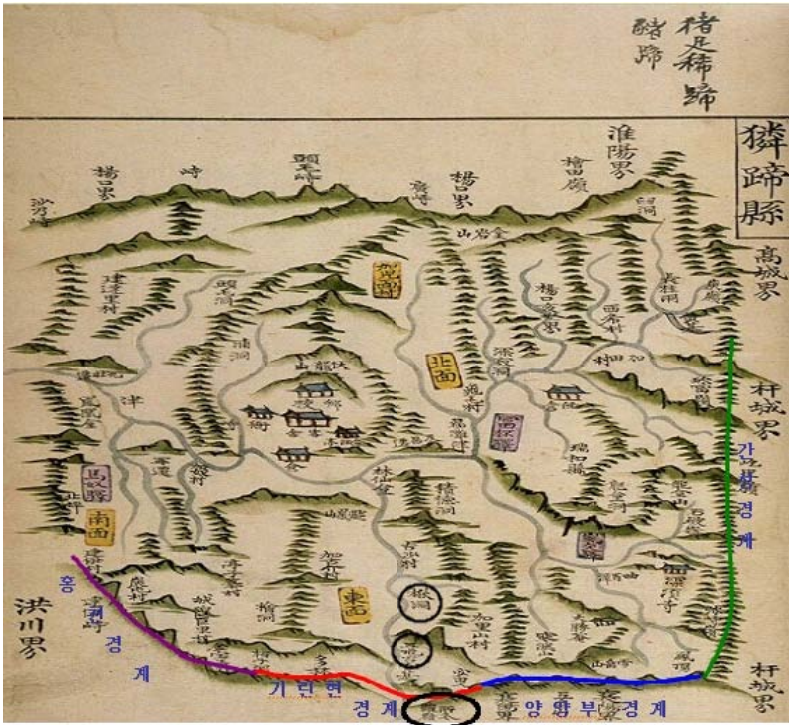
-
- 6)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양, 영로조
 五色嶺 弼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麟蹄界. 所冬羅嶺 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
- 7)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江原道)
 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狶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 8) 『關東誌』 제13권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弼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所冬羅嶺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현재의 인재군 기린면 진동리를 경계로 하는 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지도 2> 1834년도 지도인 청구요람에서 보듯이 귀둔까지는 인제현 관할이었으나, 기린면 진동리는 당시 춘천부 관할의 기린현에 속해 있었고, 구룡령 너머 홍천과 평창의 일부지역은 강릉대도호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 2> 청구요람(18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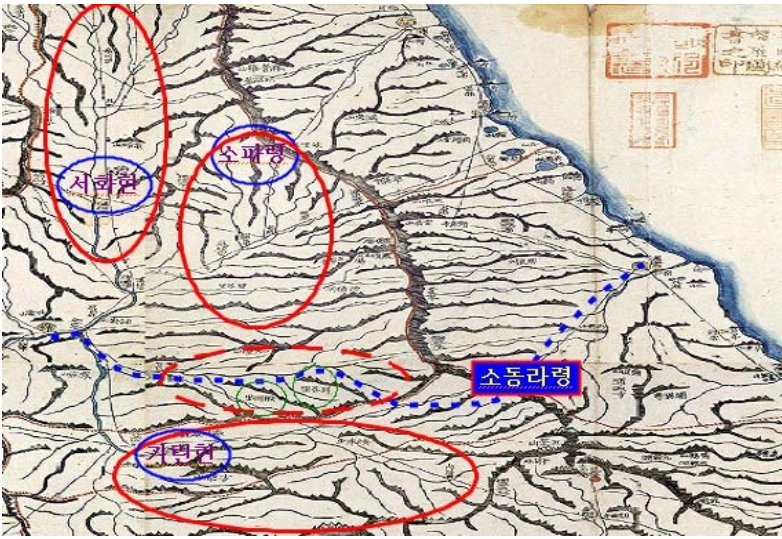
<지도 3> 여지도(1736-1767년)-인제현

4. 하천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제현편 산천조와 『연려실기술』 별집16권 총지리, 다산정약용의 『산수심원기』 등에 보면 “미륵수가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波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오고, 하나는 기린현(基麟縣)에서 나온다.”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9) 輿覽云彌勒之水° 一出所冬羅嶺° 一出所波嶺° 一出瑞和縣° 一出基麟縣°

그런데 같은 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인 <지도 4>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인제로 흘러드는 수계는 금강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화현’으로 나오는 수계, ‘소파령’ 일대에서 발원하여 원통으로 흐르는 설악산 수계, 오대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기린현’을 거쳐 나오는 수계, 그렇다면 나머지는 점봉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귀둔지역을 경유하여 나오는 수계로 이 수계가 소동라령 수계일 수밖에 없는 바, 그렇다면 소동라령은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린현 진동리를 거쳐 곰배령과 귀둔, 하추리, 고사리, 합강정을 거치는 경로였음을 알 수 있다.



<지도 4> 대동여지도

이는 1767년의 『인제현 여지도』, 1776년 『인제현 지승』 지도, <지도 5> 1800년 『인제현 광여도』 등에서도 소동라령은 현재의 한계령이 아닌, 귀둔고관묘, 추동, 고사촌, 임선대, 합강정, 인제현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5> 광여도(1800년)古4709-58-인제현

뿐만 아니라, 양양지역의 하천기록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양양도호부편에 “남대천(南大川)은 부 남쪽 2리에 있는데 강릉부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며 소동라령(所冬羅嶺)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¹⁰⁾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양양남대천의 본류는 오대산이며 구룡령과 오색령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북암령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합류하여 내려오다 읍내에서 오대산 본류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므로 소동라령은 현재의 북암령을 경유해 기린현 진동리와 귀둔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을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 강원도(江原道)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남대川 在府南二里出江陵府五臺山 與所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5. 거리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지금까지 고지도와 각종 문헌을 확인한 결과 소동라령은 박달령(연수과)와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고지도와 기록에서 양양부에서 소동라령까지의 거리를 60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에는 거리를 측량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잘못된 기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양양도호부편에 “소동라령”을 “소동라령(所等羅嶺)”이라 표기하고 “소동라령은 요해처(要害處)로 양양부(府) 서쪽 인제경계로 36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¹¹⁾ 1923년 『양주읍지(현산지)』에는 “소동라령은 부에서 서쪽으로 30리”¹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도 6〉 양양에서 백두대간 영까지의 거리

11) 要害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嶺三十六里

12) 所冬羅嶺在府西三十里

이는 『여지도서』와 『관동읍지』 관해편에 오색령은 50리, 필여령은 40리, 조침령은 45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백두대간 능선의 지형으로 볼 때,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동라령은 당연히

양양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양양부에서 30리에서 36리가 맞는 기록일 수밖에 없다.

6. 소동라령과 소어령, 북암령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기록들을 바탕으로 소동라령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 금강산기』를 보면 “(낙산사에서) 20리쯤 가서 양양부(襄陽府) 앞의 냇가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였다. 또 10리를 가서 설악에 들어가 소어령(所於嶺) 아래 고개에 오르니, 냇물은 왼쪽에 있고 산봉우리는 오른쪽에 있다. 산기슭을 다 지나 냇물을 건너 왼쪽으로 가니, 산은 맑고 물은 빼어나며 흰 바위가 서로 포개진 것이 대략 금강산 대장동(大藏洞)과 같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오색역(五色驛)에 이르니 산의 달이 이미 흰빛이었다.”¹³⁾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양에서 오색으로 향하노라면 중간쯤 지점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고개가 있다. 일명 발딱고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령(寒嶺)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송어리와 송천리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만든 지명으로 지금도 옛 지명인 소어(所於), 소래(所川)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 북암리(北庵, 北庵里)로 인제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 고갯길이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어령, 소동라령이었다. 이는 박달령이

13) 至襄陽府前川上歇馬° 又行十里入雪岳° 陟所於嶺下峴° 則川水在左° 峯巒在右° 過盡山麓° 涉川流而左° 山明水秀° 白石交加° 略如金剛山大藏洞° 沿流而上° 至五色驛° 山月已白矣° 是日° 陸行三十里° 山行四十里°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¹⁴⁾를 일본식 한자인 북암리로 고친 후, 영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로인 옛길은 있는데 고지도에는 소동라령만 있을 뿐 소어령이나 북암령이라고 표기된 영이 없기 때문에 소동라령의 다른 이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금강산기』의 남효온선생도 소어령 아래 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다고 하고 있어 소동라령 아래 한(寒)고개나 망령(望靈)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지도 7〉 오늘날의 지도에 고지도를 연계시켜본 소동라령

이를 종합해보면 〈지도 7〉에서 보듯이 소동라령은 양양에서 남대천을 따라 올라오다 망령고개(望靈峙)나 한령을 넘고 소천이나 소어리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을 넘어 기린현내 진동리와 곰배령을 거쳐 귀둔, 추동, 고사촌, 합강정을 경유해 인체로 연결되는 영로였다.

14)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67, p217

7.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江原道) 간성군편에 보면 “미시과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¹⁵⁾고 적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¹⁶⁾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소동라령으로 추정되는 북암령을 실사한 결과 귀둔(耳屯, 耳呑)에서 진동리로 연결되는 곰배령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미 옛길 탐방코스로 변해있었고 진동리 삼거리에서 북암령 정상까지는 고개가 완만하며 일부 도로는 유실되었으나 옛길의 도로폭도 2m정도로 우마차가 다녔음직한 대로였으며, 정상에는 위에 이정표를 세웠음직한 돌무지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이라고 하고 10리마다 작은 표식을, 30리마다 큰 표식을 세우며, 30리마다 역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일정한 거리마다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도로의 리수와 지명을 기록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였다.”¹⁷⁾ 영 정상의 돌무지는 정상 주변에는 돌이 없고 돌의 규격도 고른 것으로 보아 일부러 돌을 옮겨 쌓은 것으로 보여 국가에서 관리하던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양에서의 거리가 30리였음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정상에서 북암리 방향은 급경사였고 계곡을 따라 길이 형성된 관계로 폭우로 많은 구간이 유실되어 있었으나 나라에서 영로를 폐지한 지 600여년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江原道) 인제현

彌時坡嶺在郡西南十里許有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危復開輿路

16)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

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

17) 『양양군지』 양양군, 발행일 2010, 11, 30, 163페이지 교통과 통신

이 지났음에도 많은 구간에 도로의 형태가 남아있었고, 노퍽은 서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암령을 접어들기 위해서는 양양에서 한(寒)고개(밭따고개)나 망령고개까지 넘어야 했으므로 지세가 험한 궁벽지라는 기록을 실감하게 했고, 국가의 영로로서 비만 오면 유실되는 급경사인 소동라령을 관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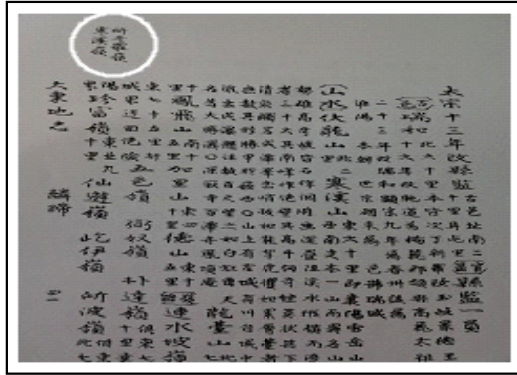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동라령을 폐지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말까지도 일반인들은 이 영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이나 하듯이 1911년 조선지지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인제편 영치현명(嶺峙峴名)에 보면 곰벤령(丁嶺, 곰배령)을 양양으로 통하는 영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행자들이 민가에서 자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던 원(院)이 조선후기에 들어가면서 그 기능이 쇠퇴하자 주막(店舍)이 그 역할을 떠 맞게 되었는데 길손들이 먹고 자던 주막이 진동리에 갈터주막, 삼거리주막, 귀둔리에 버덤말주막, 곰배골주막, 하추리에 가래울어주막, 당수터주막, 원대리에 안삽재주막 등이 구간에 특별히 주막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얼마나 길손들의 많은 영로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Ⅲ. 옛 한계령의 위치

위에서 우리는 지금의 한계령이 소동라령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동라령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계령이 옛날의 한계령은 맞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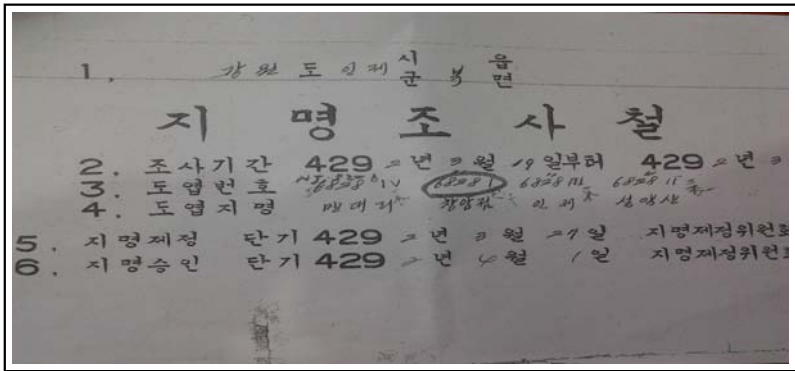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도 한계령이라는 지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옛 한계령의 위치를 찾아 바로잡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1. 역사기록으로 본 한계령



〈사진 2〉 대동지지

『대동지지』 강원도 인제현 영로편에 “連水坡嶺東七十五里杆城界迂回絶險五色嶺彌奴嶺朴達嶺俱東七十里襄陽界”라고 쓰고 상단 여백에 所冬羅嶺, 寒溪嶺이라고 쓰여 있는 바, 『대동지지』의 전반적인 기록형태를 보면 쓰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상단에 추가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에 오색령과 함께 한계령도 다른 곳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白頭大幹 五色嶺

지명	지도상기여	경 위 도	좌 표	유	비
대승령	120.15-20 28.02-20	28.02-20	351212	옛 영동고속도로 전장이 일여대승령을 절하였 다 하여 이진평에서 같이 뱀하키위하여 대승령이라고 부른다고 산령중이 갈아갈이 생겼다 하여 전마산이라고 불려	(60)
관마산	120.19.4 28.02.20	28.02.20	411211	영동고속도로 관마산지명만	
한계령	120.20.10 28.02.20	28.02.20	415104	영동고속도로 오색이영과 나른영도로서 한계령이 있었다 하여 한계령이라고 부른 오색이영이라고도 불려	
관마산	120.20.5 28.02.20	28.02.20	426156	한계령 가니 뱀산이라고 하여 가니봉이, 다고봉이라고도 불려	
대승령	120.20.20 28.02.20	28.02.20	425193	대승령명이 있는 도로라 하여 대승령이라고도 불려	
대승산	120.12-20 28.02-20	28.02-20			

〈사진 3〉 지명조사철(인제군 북면)

그런데 1959년(단기 4292년) 인제군 북면에서 작성 보고한 지명조사철(18)을 보면 한계령을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나른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이라고도 함”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현재의 한계령(오색령)은 옛 한계령이 아니며 옛 한계령은 한계지역에 있는 오색령 보다 낮은 영으로서 넓게는 오색령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일제가 만든 지도에는 오색령을 한계령이라고 적고 있음에도 인제지역에서는 해방 후인 1959년 당시에조차 현재의 한계령은 오색령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옛 한계령의 위치를 찾아보자.

한계령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일 것이다. 그런데 고지도를 보면 양양에서 오색역을 거쳐 인제로 연결되던 대로인 오색령은 모든 지도에서 볼 수 있으나, 이용이 많지 않았던 한계령은 유일하게 동여도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도 8〉 동여도에도 오색령과 한계령은 다른 영로로 함께 기록되어있으며 오색령은 고대로(古大路)라고 표기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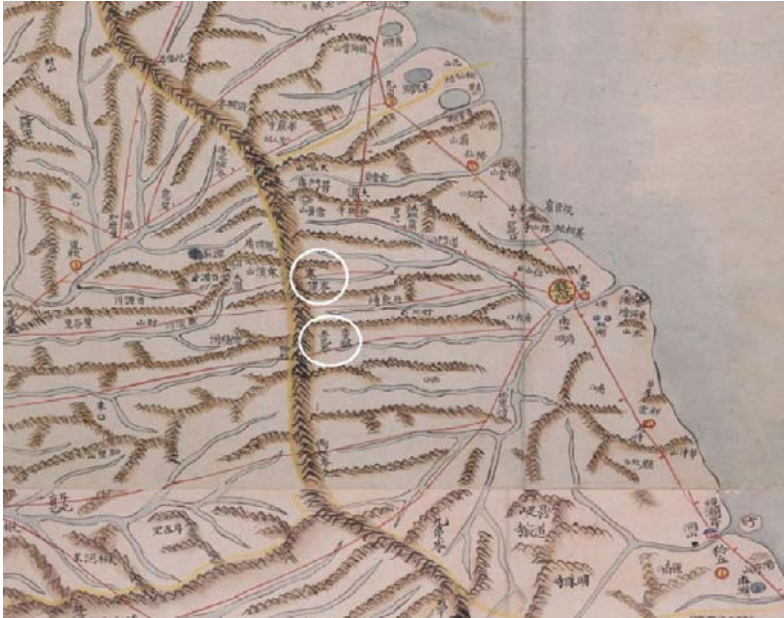
18)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계령은 오색령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담천을 거쳐 남교역과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교리에서 계곡을 타고 오르다 한계산(산성)의 정상인 안산과 귀뚜기청봉으로 이어지는 경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몽화의 『유설악록』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몽화의 『유설악록』을 보면 “대승령에 올라 돌아보니 어젯날 만경의 오세암, 남대의 영시암, 좌우 봉의 만경 모두 무릅 아래요, 봉정암이 앞을 가리고 있어 밀은 볼 수 없었다. 산허리 10리에 참으로 한계의 관폭대에 오르니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크게 네 글자가 새겨져있다. (생략) 관폭대 아래의 길은 아주 험준하여 갈수 없고 많은 돌들이 이빨처럼 쪼개져 겁나



<지도 8> 동여도(1857년)

白頭大幹 五色嶺

며 장차 갈라져 떨어질 것같이 그윽하게 세워져있어 혹 이런 꿈을 꾸지 않기를, 한계령을 향하다가 아름다운 수석을 만난 곳에서 가마를 세우고 쉬면서 개울물을 떠 마시고 물에 밥을 말아먹었다. 개울에 큰 바위와 바위의 좌우에 단풍이 비치므로 정차암이라고 칭하여 불렀다. 오색이라 하는 이 영을 넘으니 석봉의 기풍이 힘 있게 나열된 설악산의 한가지다. 여기에서 묵으니 오색촌이다.”¹⁹⁾ 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폭대 아래의 길은 험준하여 갈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 한계령을 향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한계천(장수대, 한계사가 있던 곳)으로 내려와 오색령을 넘은 것이 아니라 대승령에서 능선을 따라 귀때기청봉으로 향하는 경로로 오색령을 넘어 오색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계령은 대승령에서 귀때기청봉, 오색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다고 본다.

2. 한계령이 고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한계령은 동여도 이외의 고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허목(許穆)은 『동유박물(東遊博物)』에서 “한계(寒溪)의 남쪽 봉우리는 절벽이 위험한데 그 맨 위는 몹시 높고, 그 아래는 더욱 깊다. 산석(山石)의 빼어난 정기는 높고 험하여 명상(名狀)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몽화는 『유설악록』에서 “관폭대에 오르니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쓰여 있다”고 했으며 정약용의 산수심원기를 보면 “한계산기(寒溪山記)에 이르기를 한계산은 높고 크며 기이하고 절승하여 영동(嶺東)의 으뜸이다. 산 위에 성(城)

19) 김몽화(金夢華) 『칠암문집(七巖文集)』 〈유설악록(遊雪嶽錄)〉

登大乘嶺回視日昨經過處五歲之萬景永矢之南臺晚頃之左右峯皆在膝下獨鳳頂爲前峯所遮而不可見下山腰十里寔爲寒溪登觀瀑臺有九天銀河四大字刻此政乾坤逞技』 『之處造化得意而成者也此之昨日所見十二瀑則細柳之眞將軍棘門灞上之兒戲必有能下之者矣臺下路絕險下臨無地間多石齒齧齧惴然如將隕墜班孟堅幽入之夢無或類此歟向寒溪嶺遇水石佳處舍輿息肩酌溪水澆飯而喫溪上有巨巖巖之左右丹楓映請名之曰停車巖踰嶺是爲五色石峰峭拔羅列雪嶽一支也止宿于五色村

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성안으로부터 흘러나와 폭포를 이루어 그를 대승폭(大勝瀑)이라 하며 수백 길 높이에서 현류(懸流)하여 바라보면 마치 흰 무지개가 하늘에서 드리운 듯하다. 원통역(圓通驛) 동쪽으로부터 좌우가 모두 큰 산으로서 골짜기가 깊숙하고 시냇물이 종횡으로 흘러 돌다리를 건너는 곳이 서른여섯 굽이나 된다. 뾰뾰하게 들어선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위로만 솟아 옆으로 뻗은 가지가 없으며 그 중에도 송백이 더욱 높아 그 끝을 볼 수 없다. 또 그 남쪽 봉우리의 절벽은 1천 길이나 깎아질러 그 기괴함을 형언할 수 없는 형세라, 나는 새도 능히 건널 수 없으며 행인들은 곧 바위덩이가 떨어져 놀릴 듯한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밑에는 험한 암석으로 못을 이루었는데 사람이 앉을 만한 반석도 있다. 또 동쪽 몇 리 길은 동구(洞口)가 몹시 협착하고 좁은 길은 벼랑을 끼고 돌아가는데, 암석은 입을 벌린 듯 함하(哈呀)하고 산봉우리는 뾰족뾰족 빼어나 마치 용이 후려치고 호랑이가 덮치듯 누누이 층대를 이룬 것이 무수하다. 그 수맥은 모두 곡담(曲潭)·한계(寒溪)의 근원이다.”고 하였듯이²⁰ 이 도로는 안산(한계산성)에서 대승폭포, 귀떼기청봉, 소승폭포로 이어지는 기암 절경지로서 예로부터 풍류객들이 즐겨 찾던 이 구간에 있었던 영이 한계령으로 일반인들은 길이 험하여 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고지도에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 다산시문집)다산시문집 제22권)잡평(雜評)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

寒溪山記云寒溪山高奇特。甲於嶺東。山上有城。有水自城中流出。卽成瀑布。名大勝瀑。懸流數百丈。望之如白虹垂天。自圓通驛而東。左右皆大山。洞府深邃。溪水縱橫。砥涉者三十六曲。樹木如簣。上竦雲霄。旁無橫枝。松柏尤高。不見其巔。又其南峯絕壁。高可千仞。奇怪莫狀。禽鳥不能飛度。行人疑遭壓墜。其下觸巖成潭。盤石可坐。又東數里。洞口甚狹。細徑緣厓。竅穴哈呀。峰巒峭拔。如龍拏虎攫。爲累層臺者無數。其水脈皆曲潭寒溪之源也。

白頭大幹 五色嶺

Ⅳ. 한계령이 오색령인 근거들

1. 한계령의 옛 지명은 소솔령

우리는 소동라령이나 한계령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계령인 옛 지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²¹⁾라고 적고 있다. 또한,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²²⁾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오색에서 장수대(한계사)를 지나 인제를 통하는 지금 한계령의 옛 이름은 소솔령이었다.

2. 소솔령이 오색령인 근거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

21) 『팔곡집(八谷集)』 한계산(寒溪山) / 시(詩) / 주석(註釋)

古寺 卽寒溪寺 自襄陽所率嶺 抵麟蹄舊路 經由寺下往來人 必投宿于寺 寺僧不堪迎接之苦 不肯居住 遂致空廢 今則頽圯已久 只有舊基 砌礎宛然 曾是巨刹也

22)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乙未 發五色驛 度所率嶺 雪岳亂嶂 無慮數十餘 峯皆頭白 溪邊石木亦白 俗號小金剛山 非虛語矣 ...余於嶺上辭東海...自元通履平地...宿麟蹄縣.

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과(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²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이용이 많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복잡한 고개명칭(소파령, 소솔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의 혼돈으로부터 오색역을 지나는 영로라는 지명을 통해 고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수증(金壽增)의 『한계산기(寒溪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記文) 중에 “한계사(寒溪寺) 옛터를 지나니 북쪽편의 모든 산봉우리들은 곧게 솟아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여 (생략)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²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사 터를 지나 인제로 가는 영이 소솔령임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었다. 그런데 한계사 옛터를 지나면서 지나가는 스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오색령을 거쳐 양양으로 간다고 하고 있다. 이로서 소솔령이 오색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의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동유록(東遊錄)에도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23) 備邊司【去正月三十日，備忘記回啓也】啓曰：……賊兵由慶尙道寧海，沿海以北，則平海蔚珍，當先受敵。此處若失，而賊兵深入於嶺東，則楸池嶺，彌水坡，五色嶺，白鳳嶺等處，皆爲踰嶺之路，不可不備也。……

24) 考亡何歷寒溪寺舊基。北面諸峯矗立森羅。(생략) 至溪邊石上午飯。逢過去僧。問其何向。則曰由五色嶺至襄陽。蓋此距海路八十里云。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과령을 이룬다.”라고 적고 있으며²⁵⁾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의 『금강산총기』 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서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고개가 팔백리를 관통하며, 온정령에서 남쪽으로 삼십리 지점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동해 바다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 진보령이 되며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과령,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 되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르고, 삼십리 거리에 대관령이 되고, 사십리 거리에 백복령이 되고, 백리 거리에 태백산과 황지가 된다. 이것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 위 아래의 형승이 막히고 험준한 모습의 대략이다.”²⁶⁾라고 적고 있다.

『증보문헌비고』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 “양양 오색령은 서쪽 50 리에 있다. 산의 총설에 나타나 있다. 영로(嶺路) 오색령은 양양영로로 필여령과 함께 서로이며,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로, 형제현, 양한치 모두 서쪽로이다.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흘이령·탄둔령·두모치·건리치·오색령·서과령·가노치·진보령이다.”²⁷⁾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앞에서 본 고지도들에서도 소솔령과 오색령이 함께 표기된 지도는 없으면서도 모든 고지도에서 소솔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다.

25) 曹砧之北爲五色嶺° 其東則襄陽° 西則麟蹄° 五色之北爲彌時坡嶺,

26)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鎮 溫定三大嶺 通八百里 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遵海百里爲眞寶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 彌時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爲大關嶺 四十里爲百復嶺 百里爲太白·黃池 此其上下形勝阻陔大體也,

27) 『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弼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陵路 兄弟峴 兩寒峙並西路 麟蹄嶺路 味施嶺……屹伊嶺 炭屯嶺……頭毛峙……建里峙……五色嶺 見襄陽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

이와 같이 한계사에 투숙객이 많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절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던 소솔령 지명이 모든 지도에서 사라졌다면, 문헌상에 필여령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도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오색령이 과거의 소솔령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오색령은 당시에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로로 지금의 한계령임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고지도, 각종 문헌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의 소동라령, 오색령, 한계령은 일부의 주장과 달리 모두 서로 다른 영들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동라령은 고지도, 고문헌, 경계기록, 하천수계, 양양부에서의 거리기록, 현지답사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오색령이 아니라, 필여령 남쪽 가지에 위치한 춘천 기린계로 연결되는 영로, 양양에서 한령이나 망령 고개를 넘은 후 소어리나 소래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일명 소어령)과 춘천 기린계였던 진동리, 곰배령(곰뻐고개), 귀둔, 추동, 고사리, 합강정, 인제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옛 한계령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되지 않던 고개인 관계로 동여도에만 설악산과 오색령 사이의 백담수를 거쳐 남전역으로 연결되는 고개로 표시되어 있어, 김몽화의 유 설악록과 연결시켜 볼 때, 남교리에서 한계산성(안산), 대승폭포, 귀때기청봉을 지나는 능선을 통해 오색으로 이어지는 고개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한계령(오색령)은 과거 소솔령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양과 인제를 잇는 주도로로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그 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슷한 영의 이름(소파령, 소

어령, 소동라령 등)이 가져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오색역을 지나는 영인 소솔령을 오색령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는 모든 고 자료에 소솔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는 좋던 나쁘던 간에 사실대로 남겨 후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분명한 역사기록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이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후손에 물려주는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라고 하겠다.

- 『관동읍지』
『관동지』
『대동지지』
『동국여지지』
『만기요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군읍지』
『양주읍지』
『선조실록』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김몽화, 『유 설악록』
남효온, 『유 금강산기』
구사명, 『팔곡집』
안경석, 『삼교집』
이만부, 『금강산총기』
이만부, 『지행록』
정약용, 『산수심원기』
허목, 『동유박물』
허목, 『삼척기행』
신종원,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경인문화사, 200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양양군, 『양양군지』 2009
인제군, 『지명조사철』 1959

<부록 II>

五色嶺과 所冬羅嶺이 標記된 古 記錄

1. 지리지(地理誌)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432~1530)

○ 양양도호부

소동라령(所冬羅嶺) : 부 서쪽 60리 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간성군

미시과령(彌時坡嶺) : 고을 서남쪽 80리 쯤 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 인제현

소동라령(所冬羅嶺) : 현의 동쪽 72리에 있다. 소파령(所波嶺) 현의 북쪽 82리, 간성군(杆城郡) 경계에 있다. 미시파령(彌時坡嶺) 현의 북쪽 80리에 있다. 미륵천(彌勒川) 현의 동쪽 5리에 있다. 그 원류가 넷이 있으니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波嶺)에서 나오며,

2)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1765년)

○ 양양

관애(關陜) : 오색령은 부 서쪽 50 리에 있으며 이는 설악산 남쪽 가지 인제경계에 접했다.

- 필여령은 부 서쪽 40 리에 있으며 오색령 남쪽 가지 춘천기린경계에 접했다.
-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 리에 있으며 필여령 남쪽 가지 기린경계에 접했으며 예전엔 서울로 통하던 길이였으나 지금은 폐했다.
- 조침령은 부 서쪽 45 리 소동라령 남쪽 가지 기린계에 접했다.
- 구룡령은 부 서쪽 70 리에 있으며 조침령 남쪽까지 강릉 금천면계에 접했다.
- 형제현은 부 서쪽 40 리에 있으며 오색령으로 향하는 길로서 서로 비슷한 두 고개가 서로 대치하여 이름 하였다.
- 양한치는 부 서쪽 20 리에 있으며 구룡령으로 향하는 길이다.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彌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猗麟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彌如嶺南枝接猗麟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猗麟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 金川面界.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嶺路兩峴對峙相似故名. 兩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嶺路.)

○ 麟蹄 : 오색령이 현의 동쪽으로 72리 거리에 있다.(五色嶺在縣東距七十二里)

3) 대동지지(大東地志 1862년~1866년 김정호가 펴냄)

○ 양양 : 오색령(五色嶺) 필노령(弼奴嶺) 박달령(朴達嶺) 모두 서쪽으로 50 리에 인제와의 경계이다.(五色嶺 弼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

○ 인제 : 오색령(五色嶺) 필노령(弼奴嶺) 박달령(朴達嶺) 모두 동쪽으로 70 리에 양양과의 경계이다.(五色嶺 弼奴嶺朴達嶺俱東七十里襄陽)

○ 추동천은 동남 30 리에서 출원하여 오색령 서쪽으로 유입하여 기린천 아래로 흐른다.(楸洞川東南三十里源出五色嶺西流入基麟川下流)

○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정리고(程里考)에 인제에서 동쪽 오색령은 70 리요, 오색령에서 양양은 50 리로서 예전에는 대로였다.(麟蹄 東五色嶺七十里襄陽五十里舊大路)

4)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770~1908)

○ 양양

산천편 : 오색령은 서쪽 50 리에 있다.

영로 :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조침령 구룡령 형제현 양한치

○ 인제

영로 : 오색령

5) 양주읍지(襄州邑誌 1910)

- 1823년 양주읍지에 오색령은 부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다. 라고 적었다.

6) 강원도지(江原道誌 1940)

- 1940년 강원도지에 오색령은 부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다. 라고 적었다.

2. 조선왕조실록. 관동창의록(朝鮮王朝實錄. 關東倡義錄)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 선조 29년 병신(1596년) 2월 1일자 기사에 적병이 깊숙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오색령(五色嶺)을 넘을 것이니 방비를 잘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

- 1896년 2월 16일(丙申 建陽元年·開國五〇五年) 의병군을 이끌고 오색령을 넘어 양양으로 진군했다.(襄陽進軍引軍踰五色嶺)
- 3월에 이석범을 논죄하고 제왕의 군사가 경계에 이르렀을 때 서울의 병력이 낮에는 매복하고 밤에 행군하여 춘천에서 출발하여 오색령을 넘어 양양으로 들어 닦쳤다.(三月京兵曉諭文 兄弟彎弓 致書觀察使 徐

廷圭 史筆公論 李錫範論罪 王師到境 時京兵晝伏夜行, 自春川反踰五色嶺 抵襄陽,) 라는 기사가 있다.

3. 문집(文集)

1) 만기요람(萬機要覽)

- 조선 왕조 제23대 순조왕(純祖王) 8년 (1808년)경에 시임(時任) 호조 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같이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한 것이다.

군정편4 (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

【양양(襄陽)】 영로 : 오색령(五色嶺), 필여령(弼如嶺) 기린(麒麟) 통로. 소동라령(所冬羅嶺), 조침령(阻沈嶺), 구룡령(九龍嶺) 강릉과의 경계[界].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 서쪽 통로다. 라 기록되어있다.

2) 유 금강산기(遊金剛山記)

- 1485년 추장 남효온(南孝溫 1454년~1492년)의 遊金剛山記 서두에 ‘한 줄기가 남쪽으로 200여 리를 뻗어 가다가 산 모양이 우뚝 솟고 험준함이 대략 금강산과 같은 것이 설악산(雪岳山)이다. 그 남쪽에 소솔령(所率嶺)이 있다. 설악산 동쪽 한 줄기가 또 하나의 작은 악(岳)을 이룬 것이 천보산(天寶山)이니, 하늘이 눈비 내리려고 하면 산이 저절로 울기 때문에 흑 울산(鳴山)이라고도 한다.’ (一枝南延於二百餘里 °

山形竦峭 °略如金剛本岳者曰雪岳 °其南有所率嶺 °岳東一枝又成一小岳 °曰天寶山 °天將雨雪 °山自鳴 故或曰鳴山) 라고 적었다.

- 1485년(성종 16년) 윤4월 15일(을미) 오색역을 출발하여 소솔령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에서 묵었다.(乙未 °發五色驛 °度所率嶺 °雪岳亂嶂 °無慮數十餘 °峯皆頭白 °溪邊石木亦白 °俗號小金剛山 °非虛語矣 °…余於嶺上辭東海…自元通履平地…宿麟蹄縣.)라는 기록이 있으니 옛날에는 지금의 오색령을 소솔령(所率嶺)이라고도 부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3) 팔곡집(八谷輯)

- 1589년 강원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輯) 한계산(寒溪山) 시의 주석을 보면 ‘양양에서 소솔령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 라고 적고 있다. 주석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古寺卽寒溪寺自襄陽所率嶺抵麟蹄舊路經由寺下往來人必投宿于寺寺僧不堪迎接之苦不肯居住遂致空廢今則頽圮已久只有舊基礎宛然曾是巨刹也此山在麟蹄爲寒溪其在襄陽者曰雪岳實一山也]

4) 이광윤 선생연보(李光胤 先生年譜)

- 양서 이광윤(瀼西 李光胤 1564년~1637년) 先生年譜에 ‘ 1602년(壬寅) 4월 관동을 두루 돌아 한계산의 승상이 빼어난 오색령을 두루 다니면서 전직 재상 절도사들과 시를 지어 읊조리며 술자리를 베풀었다.’(四

月 °還關東 °歷 討寒溪山五色嶺勝狀 °與使相 °有唱疇諸作) 라고 적었다.

5) 양와집(養窩集)

<양와 이세구(李世龜 1646년~1700년)의 양와집(養窩集)에>

-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東遊錄에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이고 서쪽은 인제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파령을 이룬다.’(曹砧之北爲五色嶺 °其東則襄陽 °西則麟蹄 °五色之北爲彌時坡嶺) 라고 적었다.
- 1693년(癸酉) 6월 그믐날 養窩가 자익 김창흡과 더불어 글을 쓰다. 라는 제하의 글 속에 ‘호수와 바다를 탐승하며 낙산사에 이르니 스님이 설악산 북쪽 가지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오색령이다. 라고 말하였다.’(探湖海到洛山 °居僧指雪岳北枝曰是五色嶺也) 라고 적었다.

6) 곡운집(谷雲集)

<김수증(金壽增 1624년~1701년)의 谷雲集卷之四에>

- 寒溪山記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 중에 ‘고안 을 지나 수백 보를 나아가,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을 경유하여 양양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考按既訖 起行數百步 至溪邊石上午飯 逢過去僧 問其何向 則曰由五色嶺至襄陽 蓋此距海路八十里云) 라고 기록되어 있다.

- 遊曲淵記 1698년(戊寅) 2월 27일의 기문 중에 ‘각형과 지한에게 동쪽 골의 봉정 위 설악을 가리키며 물었다. 백연은 남기와 아지랑이 그윽하고 어두우니 가히 말 할 수 없는데. 필여봉 위의 오색령은 동남쪽에 있다.’(問於覺炯 池漢 而指點上雪嶽鳳頂庵在東曲 百淵在東北而嵐靄杳冥不可辨 五色嶺上筆如峯 在東南) 라고 기록되어 있다.

7) 명암집(鳴巖集)

<명암 이해조(鳴巖 李海朝) : 1660~1711. 襄陽府使,大提學,全羅道觀察使>

(1) 五色嶺

五色嶺 在府西 多生薇蕨 [오색령 재부서 다생미귀 / 오색령은 부의 서쪽에 있으며, 고비고사리가 많이 난다]

西嶺採蕨 [서령채귀 / 오색령에서 고사리를 캐다]

季鷹南山物(계옹남산물 / 끝 매봉 남쪽에서 산의 재물이

今從西嶺生(금종서령생) / 이제부터 오색령에서 생산되네.

已作少兒拳(이작소아권) / 아이의 주먹같이 생긴 모양

不下千里羹(불하천리羹) / 나물국은 천리에 으뜸이로다.

但恐放筋空(단공방근공) / 다만 힘이 없어 두려워 내쳤었는데

猶喜傾筐盈(유희경광영) / 오히려 광주리 가득하여 무거워졌네.

終今不釣魚(종금불조어) / 오늘은 그만 낚시질은 접어두고

和雨摘新莖(화우적신경) / 비 그쳐 화창하니 고사리 뜯는다.

(2) 西嶺採蕨 : 五色嶺 和答詩 <金昌翁 : 1653~1722.朝鮮後期 學者>

西山早燒餘(서산조소여) / 서산에 일찍이 불탄 나머지

一雨綠薇生(일우록미생) / 한차례 비에 고사리 돋았네.

持筐于以採(지광우이채) / 광주리 메고서 나물을 캐는데

紛吾愛其名(분오애기명) / 나는 이리저리 고비와 친했네.
 誰云此味苦(수운차미고) / 누가 쓴맛이라고 하였는가
 可勵丈夫貞(가려장부정) / 결결한 여자에게 권면하네.
 願廻腥腐腸(원회성부장) / 원대로 좋은 음식이 되나니*
 稍存巖岫情(초존암수정) / 산중 은사의 작은 정이로다.*
 ※ 腐腸: 腐腸之藥의 준말. 곧 좋은 음식.
 ※ 巖岫: 巖岫之士의 준말. 곧 산중에 사는 은사.

8) 금강산 총기(金剛山總記)

- 息山先生別集 卷之三 地行錄[六] <李萬敷:1664·1732.朝鮮後期 學者>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
 鎖 , 溫定三大嶺 °通八百里 °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遵海百里爲眞寶
 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彌峙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爲大關嶺 °四十里爲百複嶺 °百里爲太白 , 黃池 °此
 其上下形勝阻阨大體也

「대저아동지산 °기자백두 °백두지맥 °남류지철령 °한남북계 °동이위추
 지 , 왜 , 온정
 삼대령 °통팔백리 °온정남삼십리 °위금강 °금강동준해백리위진보령 °오십
 리위석과
 령 °삼십리위미치령 °육십리위한계산 °삼십리위오색령 °구십리위오대산 °
 삼십리위
 대관령 °사십리위백복령 °백리위태백 , 황지 °차기상하형승조액대체야」

/ 무릇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부터 기원하여 백두산의 맥이 남쪽
 으로 흘러 철령에 이르러 남북의 한계이다. 동쪽으로 비스듬히 三大령인

추지령 쇠령 온정령을 이루어 30리에 통한다. 온정에서 남노오 30리에 금강산이 되고, 금강산에서 동해를 따라 가면서 100리에 진보령이고, 50리에 석과령, 30리에 미치령, 60리에 한계산, 30리에 오색영이 되고, 90리에 오대산, 30리에 대관령, 40리에 백복령, 100리에 태백 황지에 이르는데 그 상하 형승이 대체로 험하다.

9) 증소집(檜巢集)

- 檜巢集卷之二 詩○百六哀吟 并序 <金信謙 : 1693~1738. 朝鮮後期 學者>

百淵

叔父三淵先生既棄龍華三淵 °改占雪嶽百曲淵 °置永矢庵於高明峰南 °又於十二瀑下水簾洞中 °得一阜樹屋 °號以滅景 °余侍先生於山中凡四十餘日 °今餘一紀而如昨日事 °聞滅景尙不毀 °若加修葺 °奉安先生畫像 °募僧守護 °則當爲勝事 °不知早晚能成此計不 °梅月翁嘗棲此山五歲 °童子庵在永矢庵東 °閉門巖下 °

백연

「숙부삼연선생기룡화삼연 °개점설악백곡연 °치영시암어고명봉남 °우어 십이폭하수림동중 °득일부수옥 °호이멸경 °여시선생어산중범사십여일 °금여일기이여작일사 °문멸경상불훼 °약가수즙 °봉안선생화상 °모승수호 °칙당위승사 °불지조만능성차계 불 °매월웅상서차산오세 °동자암재영시암동 °폐문암하 °」

滅景庵空永矢哀 / 멸경암 영시암은 비었으니 구슬프고
水流人世桂花開 / 물같이 흘러가는 세상 계화가 피었구나.

玉虬何處追梅月 / 옥룡은 어디에서 매월당을 따르는가
 鳳頂閑雲五色廻 / 구름이 봉정봉엔 한가한데 오색령선 댐도네.
 鳳頂峰名 °五色嶺名 °

(위 시의 제4구(끝구) 가운데 鳳頂, 五色을 기록하고는, 시의 말미에 이를
 봉정봉 오색령이라고 설명한 註를 달아놓았다.)

10) 칠암집(七巖集)

〈金夢華 : 1723~1792 工曹參議,襄陽府使,同知義禁府事〉

유설악록(遊雪嶽錄)

相公戒之曰慎勿取路大乘蓋愍余之老也余回留是菴

初七日辛未入大乘洞口肩輿僧蹶然仆地余墜落溪水不用稚公之言以至於此政所謂滄浪自取也過槽潭俗呼槽爲歸于余念麟鳳龜龍是爲四靈夫以麟蹄一邑里有龍頭菴有鳳頂獨無以龜得名之地見今此潭之巖背有文尾短而尖有似乎龜請易名曰龜尾潭以備四靈之一登大乘嶺回視日昨經過處五歲之萬景永矢之南臺晚頃之左右峯皆在膝下獨鳳頂爲前峯所遮而不可見下山腰十里寔爲寒溪登觀瀑臺有九天銀河四大字刻此政乾坤逞技之處造化得意而成者也此之昨日所見十二瀑則細柳之眞將軍棘門灞上之兒戲必有能下之者矣臺下路絕險下臨無地間多石齒鑿鑿惴惴然如將隕墜班孟堅幽入之夢無或類此歟向寒溪嶺遇水石佳處舍輿息肩酌溪水澆飯而喫溪上有巨巖巖之左右丹楓映請名之曰停車巖 踰嶺是爲五色石峰峭拔羅列雪嶽之一支也止宿于五色村

初八日壬申早起飲藥水五椀儘覺數日勤苦事盡向毛孔散也踰涼峴則官吏持人馬來待矣噫世之譚山水者必以楓嶽雪嶽并稱邑誌又曰白頭以南雪岳最高效山

유설악록

「상공계지왈신물취로대승개민여지로아여회유시암
 초칠일신미입대승동구견여승귄연부지어추락계수부용추공지언이지어차정소

위창량자취야과조담속호조위귀우여념인봉구용시위사령부이런제일읍리유용
 두암유봉정독무이구득명지지견금차담지암배유문미단이첨유사호구청이명월
 구미담이비사령지일등대승령회시일작경과초오세지만경영시지남대만경지좌
 우봉개재솔하독봉정위전봉소차이부가견하산요십리식위한계등관폭대유구천
 은하사대자각차정건곤령기지처조화득의이성자야차지작일소견십이폭척세유
 지진장군극문패상지야희필유능하지자의대하로절험하임무시간다석치착착체
 체연여장운추반맹수유입지몽무혹류차여향한계령우수석가처사여식견작계수
 요반이끼계상유거암암지좌우단풍영청명지월정차암유령시위오색석봉초발라
털설악지일지야지숙우오색촌초팔일임신조기음약수오완진각수일근고사진향
 모공산야유량현칙관리지인마래대의희세지담산수자필이풍악설악병칭읍지우
 월백두이남설악최고자산」

상공이 조심하라고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므로 대승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했다고 근심하므로 나는 이 암자로 돌아와 머물렀다.

초7일 신미

대승동구에 들어와 승려가 맨 가마가 넘어지므로 나는 시냇물에 추락하
 였다. 상공[관찰사 김재찬]은 쓰지 아니하고 此政[현감 김몽화]이 소위 푸
 른 물을 스스로 취했다고 말한다.

속칭 구유라 하는 깊은 못을 지나와서 내 생각에 기린 봉새 거북 용,
 이 네 영물로 하여 인제 한 고을과 용두암, 봉정암, 하나 없는 거북 이름
 의 땅이 바위 등 뒤 아름답고 꼬리가 짧고 뾰족한 같은 것이 있다.

이제 이 못을 거북이라 불어보고 이름을 바꾸어 이르되 구미담이 네 영
 물의 하나로 갖추어졌다.

대승령에 올라 돌아보니 어젯날 만경의 오세암, 남대의 영시암, 좌우 봉
 의 만경 모두 무릅 아래요, 봉정암이 앞을 가리고 있어 밟은 볼 수 없었
 다.

산허리 10리에 참으로 한계의 관폭대에 오르니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크게 네 글자가 새겨져있다.

此政이 천지가 왕성하게 뻗는 조물주의 뜻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어제 보았던 십이폭포 즉 한나라 진장군의 패수 자문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에 지나지 않다.

대 아래의 길은 아주 험준하여 갈수 없고 많은 돌들이 이빨처럼 쪼개져 겹나며 장차 갈라져 떨어질 것같이 그윽하게 세워져있어 혹 이런 꿈을 꾸지 않기를 한계령을 향하다가 아름다운 수석을 만난 곳에서 가마를 세우고 쉬면서 개울물을 떠 마시고 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

개울에 큰 바위와 바위의 좌우에 단풍이 비치므로 정차암이라고 칭하여 불렀다.

오색이라 하는 영을 넘으니 석봉이 기풍이 힘 있게 나열된 설악산의 한 가지다. 여기에서 목으니 오색촌이다.

초8일 임신

일찍 일어나 약수를 다섯 사발 다 마시고나니 며칠 동안 힘이 다 빠지도록 애를 썼음이 느껴진다.

서늘재를 넘으니 관리가 인마를 대리고 와서 기다렸다.

야! 산수의 이야기는 반드시 풍악과 설악을 읍지에 올리고 백두산 남쪽의 최고의 산이 설악이다.

11) 풍악록(楓嶽錄)

저촌 심육(樗村 沈鎬 1685년~1753년)이 1713년(癸巳)에 쓴 일기 풍악록(楓嶽錄)에 ‘투촌 사람 집에 유숙하니 역시 회양 땅이다. 주인의 이름은 손일성이며, 그 아들 순흥이 말하기를 일성은 오색령에서는 한승운의 매제라 하였다.’(投村人家留宿 °亦淮陽地 °主人姓名孫一成 °其子順興云 °一成 °卽五色嶺韓承雲之妹 婿云) 라고 적었다.

12) 정범조(丁範祖) 시문

<해좌 정범조(海左 丁範祖 1723년~1801년)의 시문에>

- ‘상운역승을 만나려 오색령에 갔으나 영천만 마시고 만나지 못했다.’
(訪祥雲丞 °值入五色嶺 °飲靈泉不遇) 또 ‘길을 찾아가니 오색령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徑尋五色勝) 라고 읊었다.
- 1779년 雪嶽記에 ‘동남방은 숲과 골짜기 아주 아름답다. 동쪽은 오색령인데 영천이 있어서 체증에 좋다고 한다.’(東南林壑絕美 °東爲五色嶺 °有靈泉 °宜瘖積) 라고 적었다.

13)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궁익(李肯翊 1736년~1806년)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摠地理)에

설악(雪岳)·한계산(寒溪山)이 되고, 오색령(五色嶺)·연수파(連水波)가 되었다. 라 기록되어 있다.

14)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연경제 성해응(研經齋 成海應 1760년~1839년)의 記關東山水에 설악산에 관한 기록 가운데 ‘설악산은 눈같이 교결하여 설악산이라 칭하는 바, 오색령으로 이어졌다.’(山皎潔如雪 °乃雪嶽之所稱也 °自青峯走東南 °連亘五色嶺者) 라고 적었다.

15) 다산시문집(茶山文集)

다산 정약용 시문집 제7권 <丁若鏞 : 1762~1836. 同副承旨,兵曹參知, 刑曹參議>

和杜詩十二首 [화두시십이수/두보의 시 십이수를 화답하다]

昭陽渡和水廻渡 [소양도화수회도/소양도에서 두보의 수회도시에 화답하다]

牛馬立渡頭(우마립도두) / 소와 말들은 나룻가에 서 있는데
 沙水復平安(사수복평안) / 백사장 흐르는 물 또한 평온하여라
 氣色近都郡(기색근도읍) / 풍경이 점차 도읍에 가까워지니
 曠莽無險難(광망무험난) / 넓게 트이어 험난한 곳 없구려
 江繞朱樓鬢(강요주루창) / 강이 둘러라 화려한 누각 성대하고
 山遠平蕪寬(산원평무관) / 산이 머니 편평한 들 너르어라
 便娟有柔態(편연유유태) / 예쁜 건 부드러운 자태가 있었고
 麤惡羞狂瀾(추오수광란) / 추악한 건 미친 파도가 부끄럽네
 土性利稻棉(토성이도면) / 흙의 성질은 벼와 목면에 알맞아
 終古無饑寒(종고무기한) / 예부터 의식은 궁하지 않았다고
 仙源抵雪嶽(선원저설악) / 이 물 근원이 설악에 이르렀다가
 到此九折盤(도차구절반) / 여기까지 아홉 번을 굽어 돌았네
 吾聞洗蓼水(오문세삼수) / 내가 들으니 산삼을 씻은 물은
 不令津液乾(불령진액건) /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한다던데
 寤寐五色泉(오매오색천) / 자나깨나 바라나니 오색천의 물을
 何由得一餐(하유득일찬) / 어떻게 해서 한번 마셔 볼거나
 雪嶽之東 °卽襄陽 °五色嶺 °有靈泉[설악지동 °즉양양 °오색령 °유령천/설
 악산 동쪽이 곧 양양(襄陽)의 오색령(五色嶺)인데 여기에 영천(靈泉)이 있
 다]

16) 북한기록 (강릉원주대 장정룡 교수 제공)

리춘명, <리조후반기 태백산줄기의 령길개척에 대하여>, 역사과학 2003년 2월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9쪽

"리조후반기에 들어와서 태백산줄기에는 이미 전에 개척된 령길외에 새로 수많은 령길들이 개척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판기령, 법소령, 평개령, 부합령, 적유령, 판막령, 온정령, 회전령, 탄령, 삽운령, 진부령, 오색령, 홀리령, 필노령, 구룡령, 니현, 건의령, 고석령등이다.(대동여지도에 의함)..."

오색령은 름제와 양양을 련결하는 령으로서 교통운수에 많이 리용되었다. 필노령은 오색령의 남쪽에서 름제와 양양을 련결하는 령이다. 이 령은 오색령보다 많이 우회하여야 하였으므로, 오색령처럼 많이 리용되지 않았다."

"양양관내의 장시로서는 읍내장, 동산장, 상운장, 부동장, 물치리장 등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알곡, 무명, 베, 방어, 북어 대구, 소금, 과일, 종이, 소 등이 유통되었다. 리조후반기에 들어와서 태백산줄기를 넘는 령길들이 수 많이 개척됨으로써 동서지역 간에 경제적 련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4. 관보(官報), 개벽지(開闢誌), 신문기사(新聞記事)

1) 관보(官報)

朝鮮總督府官報(1913. 1. 21)

1913. 1. 15.자로 江原道の 3等道路를 다음과 같이 定하다. 울진-죽변

白頭大幹 五色嶺

간, 강릉-견소진간, 양양-인제간(약수리 오색령 어두리 경우)…… (蔚珍-竹邊間, 江陵-見召津間, 襄陽-麟蹄間(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 라 개재하여 있다.

2) 개벽지(開關誌,)

< 개벽 제42호 1923년 12월 01일 >

- 인정, 풍속, 언어 상술함과 如히 嶺東, 嶺西는 지세 及기후가 상이할 뿐 안이라 교통이 전혀 隔絶狀態에 在하얏슴으로 인정, 풍속, 언어 등이 또한 상이하다. 즉 嶺東의 蔚珍, 三陟, 江陵은 대개 慶尙道와 갖고, 襄陽, 高城(杆城合郡)은 嶺西와 갖고(古代로 五色嶺을 통하여 嶺西의 교통이 頻頻한 所以) 通川은 咸鏡南道와 갖고 嶺西의 伊川 平康은 黃海道와 비스나하고 기타 諸郡은 京畿, 忠淸道와 비스나하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江原道의 인정, 풍속, 언어는 무슨 특색이 업다.
- 時事問題는 五色嶺道路問題와 松稷問題가 最重要하나 五色嶺問題는 大槩 民間要求와 如히 歸着되야 현재 測量에 着手中이오 松稷問題도 官民間 多少衝突되나 未久에 圓滿解決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개벽 제62호 1925년 08월 01일 양양통신>

“양양사회 말도 많고 일도 많다”

俗談에 중가집 메느리 말만코 남의 집 머슴군 일만타더니 襄陽사회야말로 말도 만코 일도 만다. 複雜한 내용을 상세히 記錄할 수는 업스나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마 되만 적어보자. 萬戶 미만인 襄陽주민 負擔으로 20만원 거금을 辦出하여 五色嶺을 2등 도로로 修築하여 襄陽의 交通과 發

展을 圖謀한다는 절대불가능의 美名下에서 소위 有志幾人이 期成會를 조직하고 總督府當局에 허가를 얻는다고 하여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郡民들의 分*千餘圓을 收斂하여 가지고 京城에 올라가서 料理費와 기타 자기네들의 소지품 매입에 소비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야 5만여 민중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전체의 사활문제라고 宣傳하야 五色嶺道 路反對를 決議하고 道當局과 총독부 당국에 陳情書까지 제출하야서 大騷動을 이르기든 것이 아즉까지 귀에 새로운 금일에 와서는 郡公會堂과 郡守官舍問題로 또한 官民間 輿論이 어지간치나 沸*된 모양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3) 신문기사(新聞記事)

<동아일보1932년 3월 15일[昭和 7년 3월 15일]>

인제군 주민 800명이 연서(連署)하여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을 관통해 달라고 인제군과 강원도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한바 있다.

<부록 Ⅲ-1>

1959년 지명조사 자료(인제군)



<그림 1> 고시지명

白頭大幹 五色嶺

국무원 고시

◎國務院告示第一六號

標準地名使用에 관한件

國務會議의議決을거쳐行政區域以外의標準地名을다음과같이定하여이를使用한다

國務總理 張 勉 團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四月二十二日

-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申 鉉
-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吳 錫
-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吳 天
- 國務委員 錫 虎 燉

記

一地名 「別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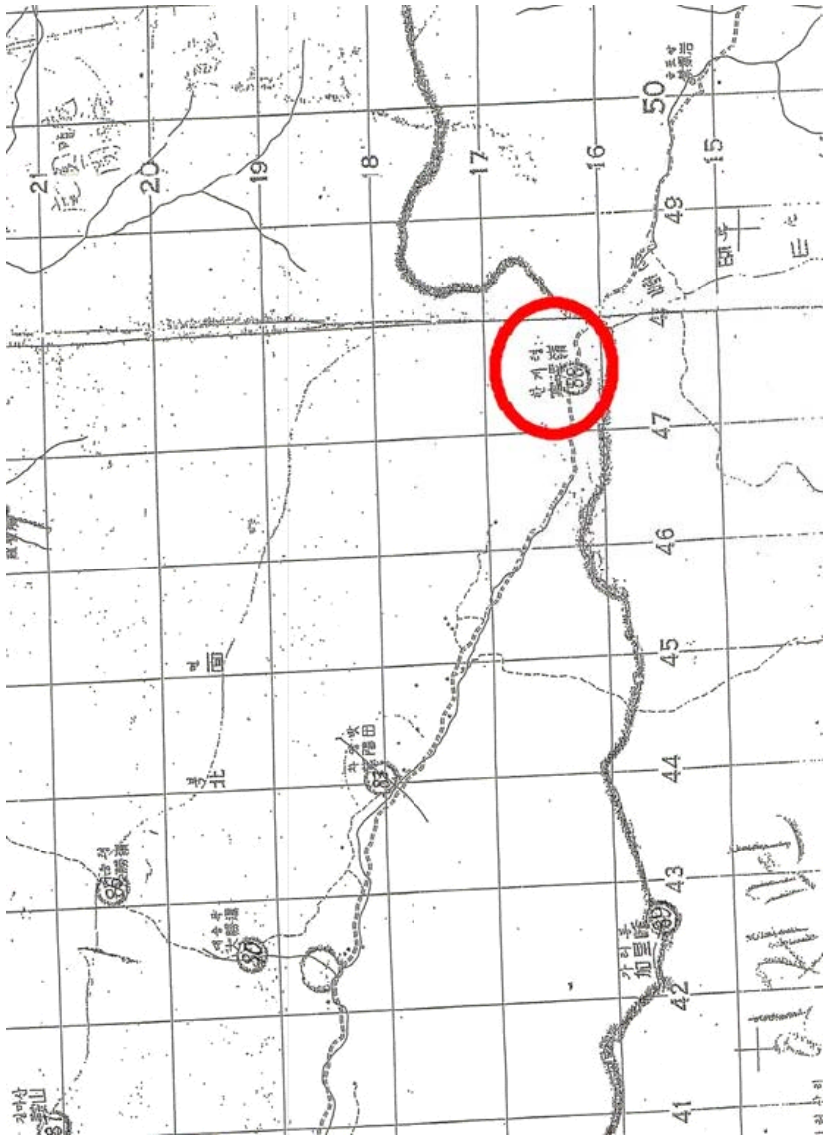
二地名의 로마字表記法

地名을 로마字로表記할 때에는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二月十一日字 文敎部國語審議會에서 採擇한 「文敎部案로마字表記法」을 使用한다

別冊

<그림 2> 국무원 고시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3〉 지명조사 지도(인제군 북면)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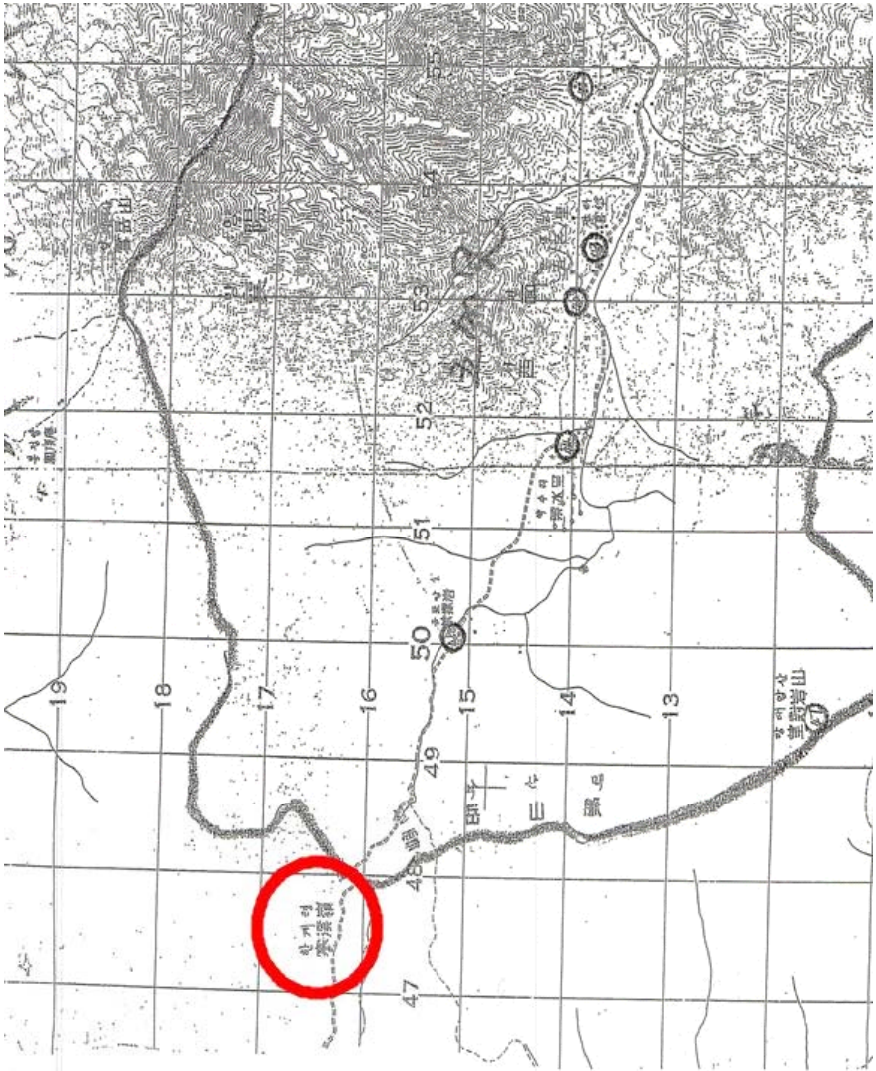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양양군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지명조사

1. 강원도양양군 **지명조사** 8-25
 2. 조선시대 4292년 4월 2일부터 4292년 4월 3일까지
 3. 도읍번호 6928Ⅳ.6928Ⅲ.6927Ⅳ.6927Ⅲ 6829Ⅱ.6828Ⅰ.6827Ⅰ
 4. 도읍지명 양양진 YANG YANG. PUKPUN-NI. ODAE SAN. 관음. 선악산. 창암전. 춘창. 杵倉.

지명조사 단기 4292년 4월 4일 지명제정위원회 위원장 인
 지명조사 단기 4292년 4월 14일 지명제정위원회 위원장 인

〈그림 4〉 지명조사철(양양군)



〈그림 5〉 지명조사 지도(양양군 서면)

白頭大幹 五色嶺

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읍면

지명조사철

- | | | | | |
|------------|------|-------------|---------|-------|
| 2. 조사기간 | 429 | 2년 3월 19일부터 | 429 | 2년 3월 |
| 3. 도읍번호 | 6828 | 6828 | 6828 | 6828 |
| 4. 도읍지명 | 백대리 | 인제 | 상양산 | |
| 5. 지명제정 단기 | 429 | 2년 3월 27일 | 지명제정위원회 | |
| 6. 지명승인 단기 | 429 | 2년 4월 1일 | 지명제정위원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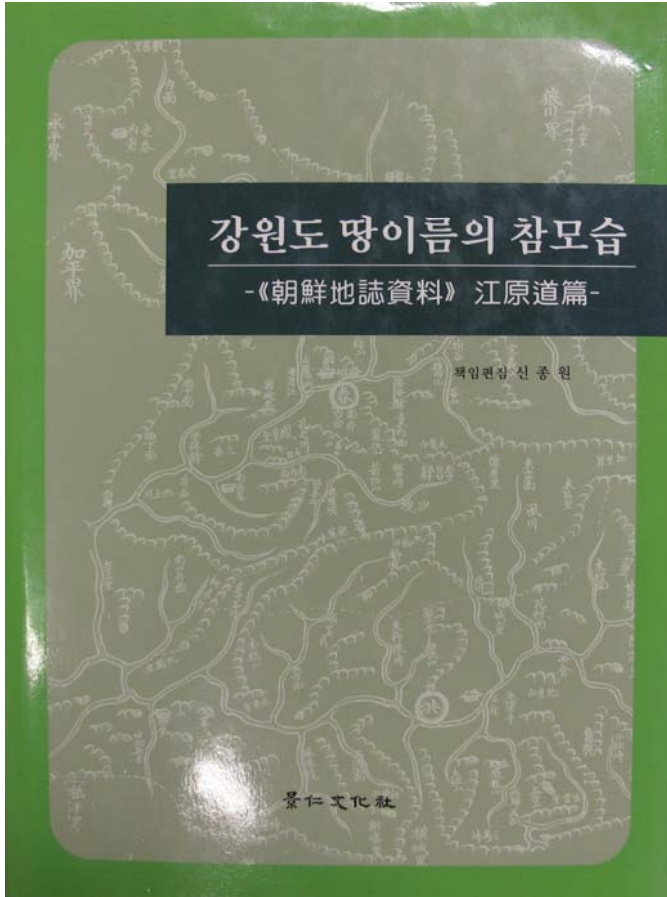
(그림 6) 지명조사철(인제군 북면)

명	(44) 지명/종류	(45) 지도상가계	(46) 경위도	(47) 좌표	(48) 유	(49) 비	고
C	정수	구	128.15.10.10 38.08.00.00	D.T 411012	해기(2008)10월 10일 전후		
	영	대승정	128.15.10.10 38.08.00.00	432205	연봉 그곳에서 조전장이 일어난 승려 동결하였어서	(60)	
	평	大陽廟	128.15.10.10 38.08.00.00	432205	이런 평에서 같이 기병하게 하여 승려 이고 부근에		
	산	갈마산	128.15.10.10 38.08.00.00	441101	산평 같이 같아 같이 생겼다가 역경(산)이		
	봉	관외봉	128.15.10.10 38.08.00.00	441104	영동과 동해는 오성이 영의 나은 영로가 관외지역		
	산	가리봉	128.15.10.10 38.08.00.00	466156	에 있다 하여 관외영이 각각 하나 오성이 영이 하모도		인
	포	대승정	128.15.10.10 38.08.00.00	441193	관외영이 각각 하나 오성이 영이 하모도		관
	산	대승정	128.15.10.10 38.08.00.00	441193	관외영이 각각 하나 오성이 영이 하모도		관
	산	대승정	128.15.10.10 38.08.00.00	441193	관외영이 각각 하나 오성이 영이 하모도		관

<그림 7> 지명조사철(인제군 북면)

<부록 Ⅲ-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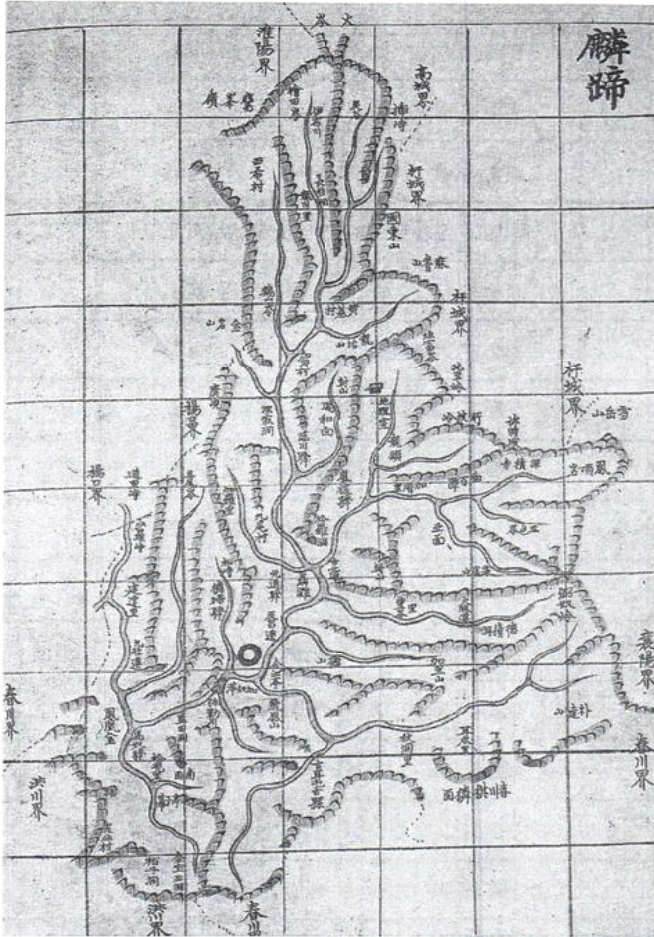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그림 1>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白頭大幹 五色嶺

인 제



〈그림 2〉 인제군 지도

白頭大幹 五色嶺

〈표 1〉 인제군 북면 지명조사

인 제 421

面 別	種 別	地 名	諺 文	備 考
北 面	野 坪 名	石 崖 峰	돌별티버덩	下洞里桃李洞
		竹 垵 坪	디 티 버 덩	下洞里桃李洞
		茅 坪	뽕 들 우 버 덩	下洞里松鶴洞
		亭 子 門 里 坪	정즈문니버덩	嵐橋里亭子門
		加 坪	가 령 이 버 덩	龍頭里橋洞
		城 隍 坪	서 낭 버 덩	龍頭里橋洞
	江川溪澗名	元 通 前 江	황 초 소	元通里
		兄 弟 川	형 제 나 드 리	下洞里桃李洞
		場 沼	마 당 소	下洞里桃李洞
		銀 鮮 沼	누 치 소	下洞里桃李洞
		鳳 凰 沼	봉 황 소	上洞里沙峴
		龍 江 灘	용 강 탄	上洞里九味
		龍 水 浦	용 슈 포	上洞里松鶴洞
		靑 銅 沼	청 동 소	寒溪洞冠坪
		魚 隱 川	어 은 니	寒溪洞瓦川
		牛 足 川	쇠 발 끝 니	寒溪洞牛臥里
		玉 女 川	옥 여 니	寒溪里紫陽谷
		五 色 川	오 식 이 니	寒溪里紫陽谷
		鶯 川 江	연 천 강	魚頭里
		紅 峰 沼	홍 봉 소	嵐橋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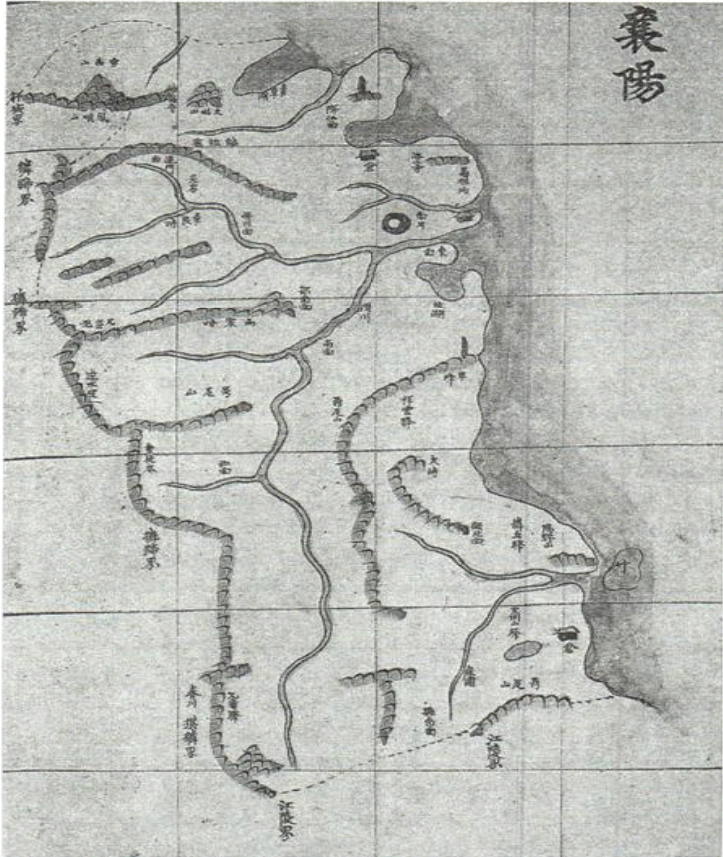
白頭大幹 五色嶺

〈표 2〉 인제군 북면 지명조사

面 別	種 別	地 名	諺 文	備 考
北 面	酒 幕 名	瓦 川 酒 幕	지 니 주 막	寒溪洞
		三 街 酒 幕	세 거 러 니 주 막	魚頭里
		龍 頭 酒 幕	용 더 주 막	龍頭里
	池 名	後 因	뒤 논	元通里
	嶺 峙 峴 名	堂 峙	당 고 지	元通里
		鳥 谷 峴	시 골 고 지	元通里
		基 谷 峴	메 골 고 지	下洞里
		升 峴	되 고 지	
		胄 峴	청 고 지	下洞里
		烽 火 峙	봉 황 고 지	下洞里
		獨 峴	독 고 지	下洞里孝子谷
		子 午 峴	즈 오 고 지	下洞里桃李洞
		冠 峴	관 고 지	寒溪洞冠坪
		後 峴	뒤 고 지	寒溪洞古元通
		大 勝 嶺	대 승 영	寒溪洞紫陽洞
		五 色 嶺	오 식 이 영	寒溪洞紫陽洞
		加 里 嶺	가 리 산 영	寒溪洞牛足洞
		麻 田 峴	삼 밧 치 고 지	寒溪洞魚隱洞
		高 峙	된 지	魚頭里
		南 山 嶺	남 산 이 지	魚頭里

白頭大幹 五色嶺

양 양



〈그림 3〉 양양군 지도

白頭大幹 五色嶺

〈표 3〉 양양군 서면 지명조사

840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 4

面別	種別	地名	諺文	備考
降仙面	峯峙峴名	塩 峙	소 금 지	降仙面 中福洞
		光 武 峙	광 무 지	降仙面 下福洞
		峴 幕 峙	강 막 지	降仙面 石橋里
		驛 古 介 峙	역 고 지	降仙面 降仙里
沙峴面		城 峙	성 지	沙峴面 勿甲里
		沙 峴	모 리 지	沙峴面 金風洞
		臥 峴	눈 고 지	沙峴面 番洞
郡內面		竹 潭 峙	디 밋 지	郡內面 連昌里
		城 隍 峙	성 황 지	郡內面 軍餉里
部南面		雙 峴	쌍 고 지	部南面 林泉里
		多 方 峴	다 방 고 지	部南面 車馬里
		瓦 峴	왓 지	部南面 禾日里
		面 防 峴	미 댁 이	部南面 禾日里
		猩 猩 峴	성 성 이 고 지	部南面 禾日里
西 面		三 發 峙	삼 발 리 지	西面 內峴里
		寒 溪 峯	한 계 영	西面 五色里
		弼 如 峯	필 여 영	西面 五色里
		朴 達 峯	박 달 영	西面 五色里
		兄 弟 峙	형 제 고 지	西面 五色里
		仙 乙 峙	선 을 지	西面 加羅皮里

白頭大幹 五色嶺

〈표 4〉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후면

신 중 원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문학박사)
강원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저서: 《신라초기불교사연구》
《신라 최초의 고승들》
《삼국유사 새로 읽기(1)-기이편-》
- 공역: 《유인석의 20세기 문명총돌 이야기-宇宙問答》
- 논문: <치악산 석남사지의 추정과 현존민속>
<청평사 상사땀 전설의 역사성과 설화성>
- 조사보고서: <홍천 수타사 범종 명문>
<수다사지 출토 청동반자 및 청동춥대>
<양양군 현남면 옷달내 가을 대왕제 참관기>
그 밖에 많음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朝鮮地誌資料》江原道篇—

정가 : 50,000원

2007년 3월 15일 초판 인쇄

2007년 3월 26일 초판 발행

편 자 : 신 중 원
발 행 인 : 한 경 회
발 행 처 : 경인문화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24-3
전화 : 718-4831~2, 팩스 : 703-9711
<http://www.kyunginp.co.kr> [한국학서적.kr](http://www.kyunginp.co.kr)
E-mail : kyunginp@chol.com

등록번호 : 제10-18호(1973.11.8)

ISBN 978-89-499-0473-3 93900 (세트)

978-89-499-0474-0 9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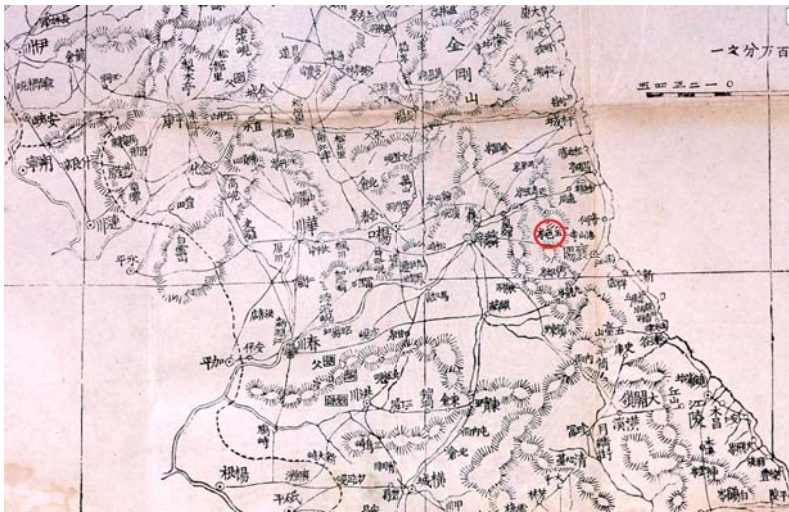
※ 과본 및 훼손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부록 IV>

五色嶺이 標示된 古地圖

【國立中央圖書館 五色嶺 標記 古地圖目錄】

1. 대한신지지부도(大韓新地志附地圖)(강원도)
2. 해동총도(海東總圖)
3. 여지도(輿地圖)
4. 좌해여도(左海輿圖)
5. 동국팔역도(東國八域圖)(강원도)
6. 청구도(靑邱圖)109.양양2
7.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강원도)
8. 동국지도(東國地圖)(강원도)
9. 대동지도(大東地圖)(관동)
10. 좌해전도(海左全圖)
11.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12. 접역지도(鰈域地圖)(강원도)
13.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
14. 해좌전도(海左全圖)
15. 팔로지도(八路地圖)(강원도)
16.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
17. 대한지도(大韓地圖)(양양)
18. 대한지도(大韓地圖)(인제)



〈그림 1〉 대한신지지부지도(大韓新地志附地圖)(강원도)



〈그림 2〉 해동총도(海東總圖)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3〉 여지도(輿地圖)



〈그림 4〉 좌해여도(左海輿圖)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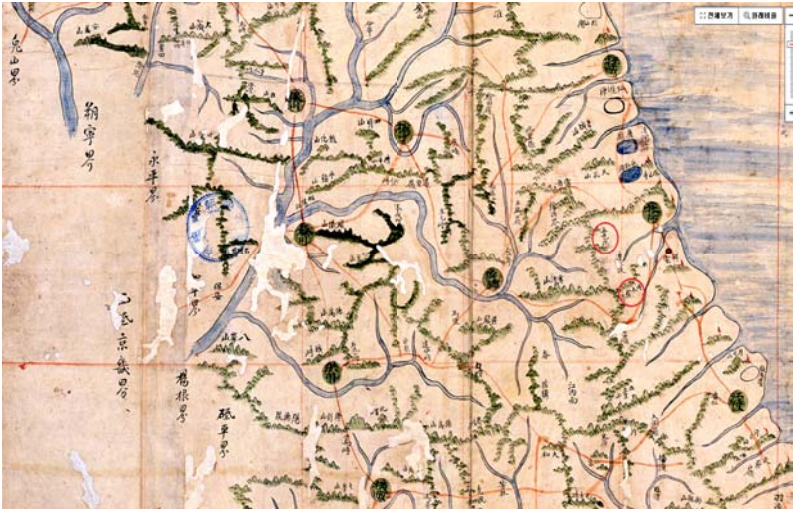


〈그림 5〉 동국팔역도(東國八域圖)(강원도)



〈그림 6〉 청구도(靑邱圖) 109.양양2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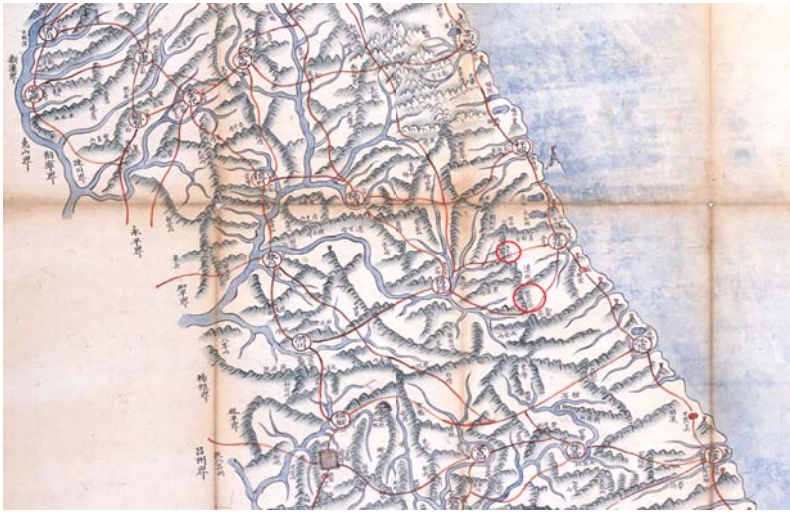


〈그림 7〉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강원도)



〈그림 8〉 동국지도(東國地圖)(강원도)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9〉 대동지도(大東地圖)(관동)



〈그림 10〉 해좌전도(海左全圖)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1〉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그림 12〉 접역지도(接域地圖)(강원도)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3〉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



〈그림 14〉 해좌전도(海左全圖)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5〉 팔로지도(八路地圖)(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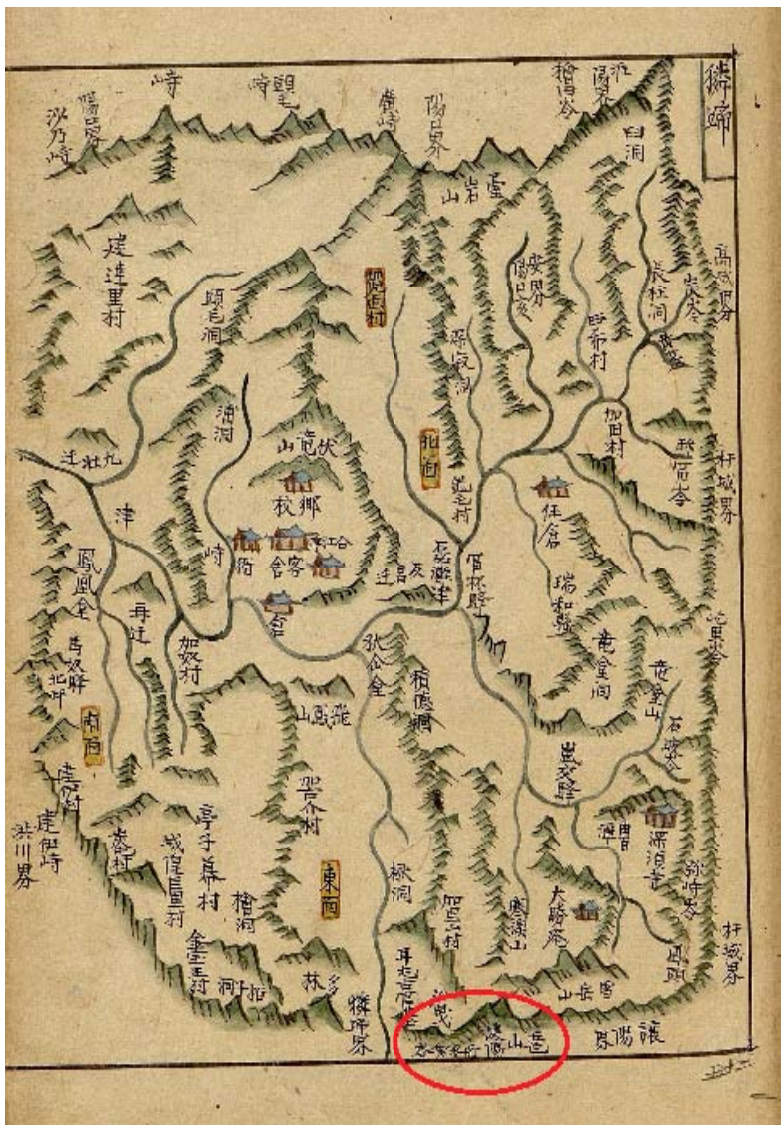
〈그림 16〉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7〉 대한지도(大韓地圖)(양양)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8〉 대한지도(大韓地圖)(인제)

白頭大幹 五色嶺

【서울대奎章閣 五色嶺 標記 古地圖目錄】

1. 광여도(廣輿圖)(양양)
2. 광여도(廣輿圖)(인제)
3. 해동지도(海東地圖)(양양)
4. 해동지도(海東地圖)(인제)
5.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양양)
6.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인제)
7. 여지도(輿地圖)(양양)
8. 여지도(輿地圖)(인제)
9. 지승(地乘)(양양)
10. 지승(地乘)(인제)
11.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양양)
12. 조선지도(朝鮮地圖)(인제)
13. 동여도(東輿圖)
14. 청구도(靑邱圖)
15. 청구요람(靑邱要覽)
16. 동역도(東域圖)(강원도)
17.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 강원도)
1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屏 강원도)
19.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奎 강원도)
20. 여지도(輿地圖)(강원도)
21. 여지도(輿地圖)(2책 강원도)
22.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奎 10331)
23.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右 4709-14)
24.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右 4709-23)
25. 좌해지도(左海地圖)(좌해지도)(강원도)
26. 좌해분도(左海分圖)(강원도)
27. 지도(地圖)(강원도)

28. 팔도분도(八道分圖)(東關)
29. 해동지도(海東地圖)(강원도)
30. 해동지도(海東地圖)(2책)
3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32.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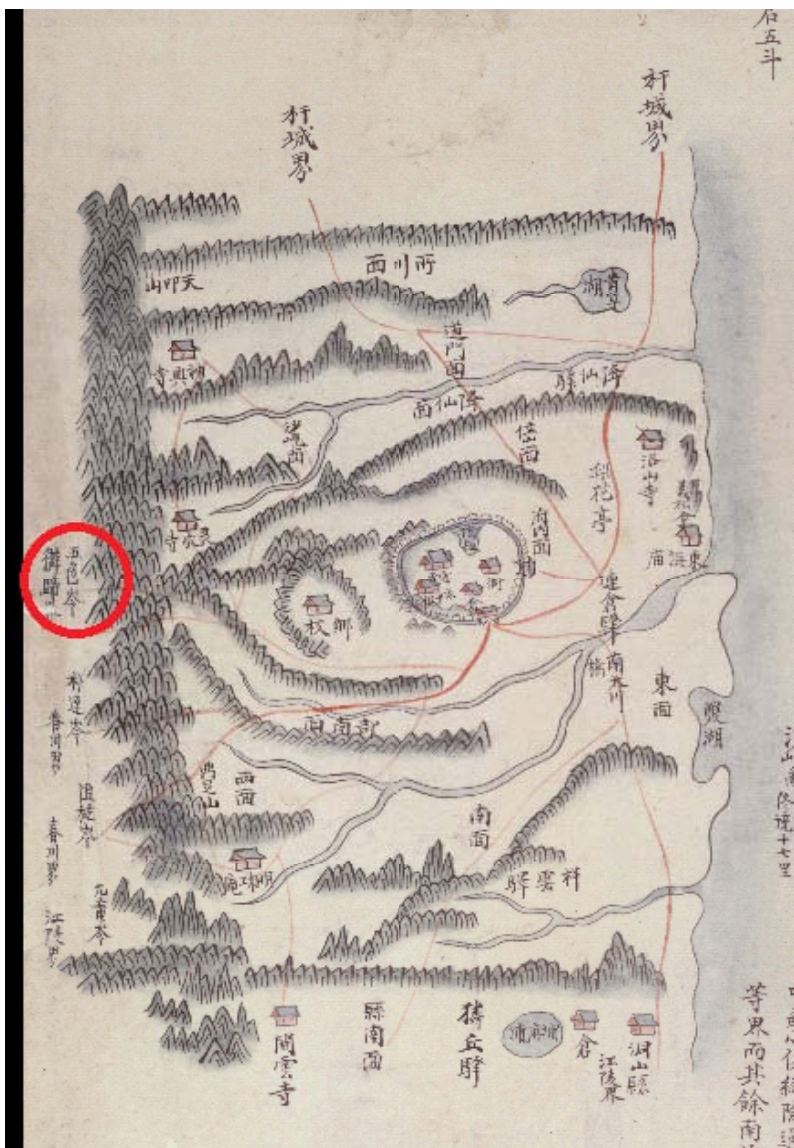
〈그림 1〉 광여도(廣興圖)(양양)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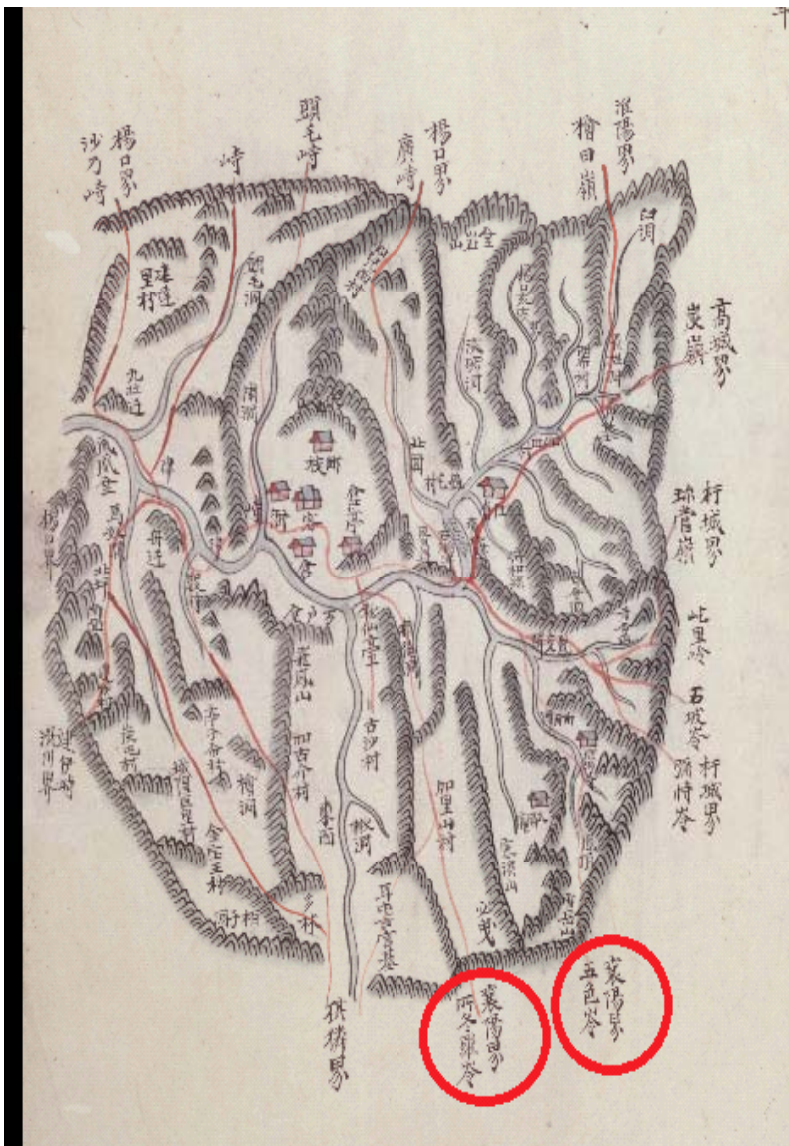
〈그림 2〉 광여도(廣輿圖)(인제)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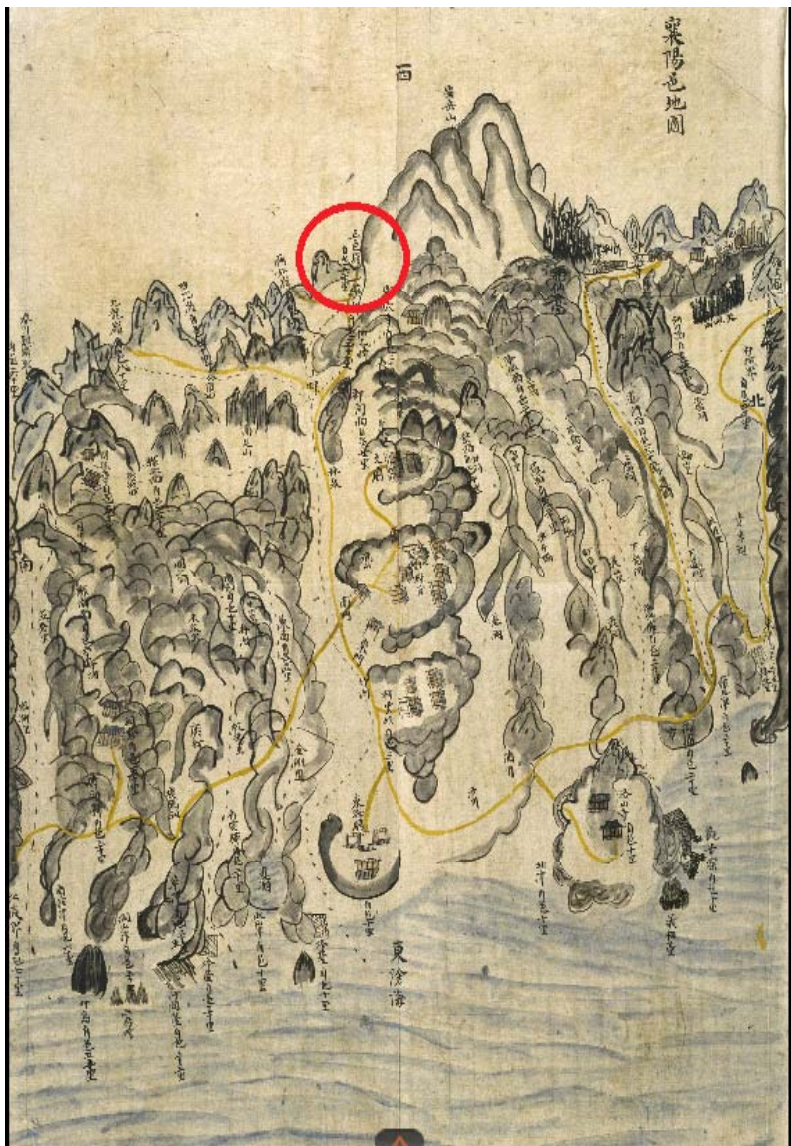
〈그림 3〉 해동지도(海東地圖)(양양)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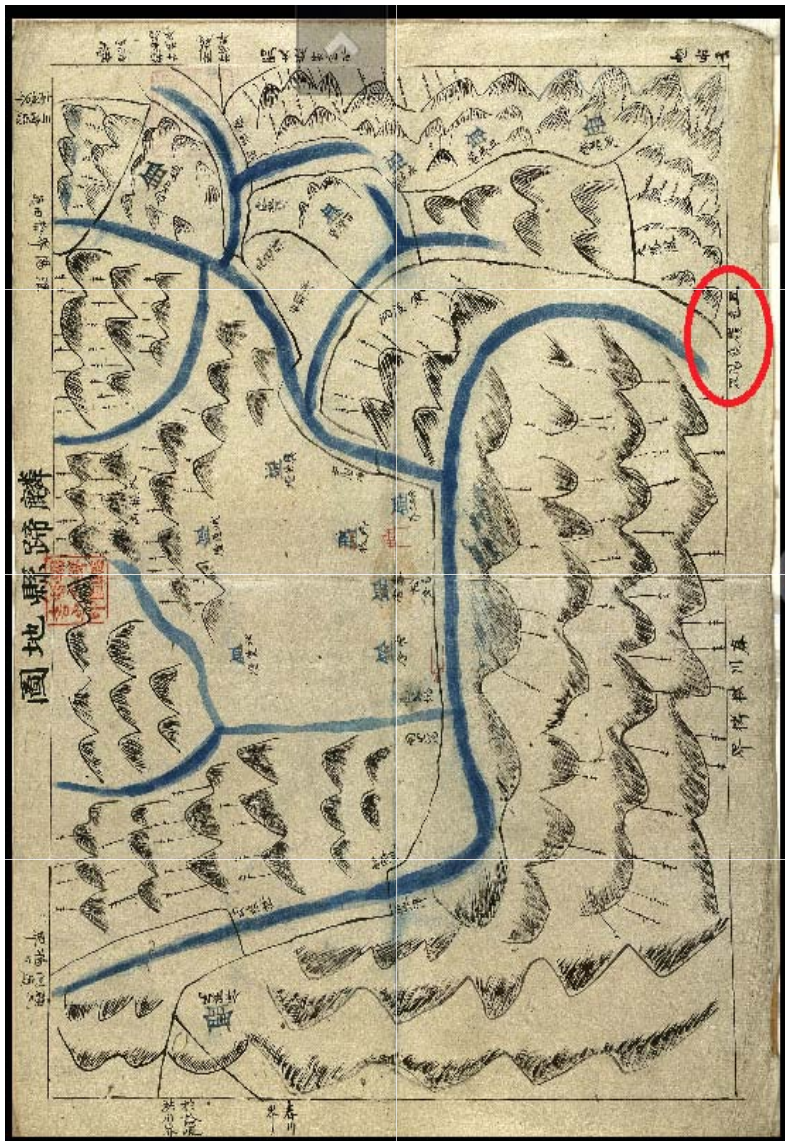
〈그림 4〉해동지도(海東地圖)(인제)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5〉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양양)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6〉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인제)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7〉 여지도(輿地圖)(양양)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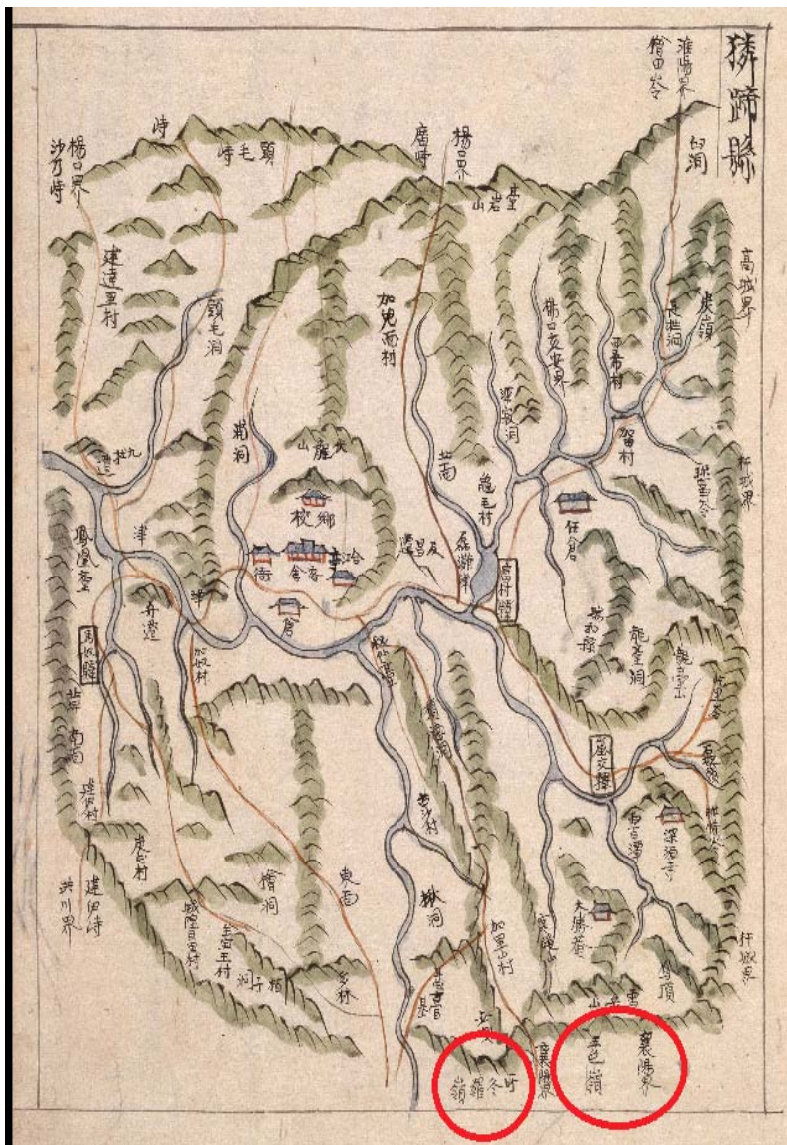
〈그림 8〉 여지도(輿地圖)(인제)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9〉 지승(地乘)(양양)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0〉 지승(地乘)(인제)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1>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양양)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2〉 조선지도(朝鮮地圖)(인제)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3〉 동여도(東輿圖)〈한계령표기됨〉



〈그림 14〉 청구도(靑邱圖)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5〉 청구요람(靑邱要覽)



〈그림 16〉동역도(東域圖)(강원)

白頭大幹 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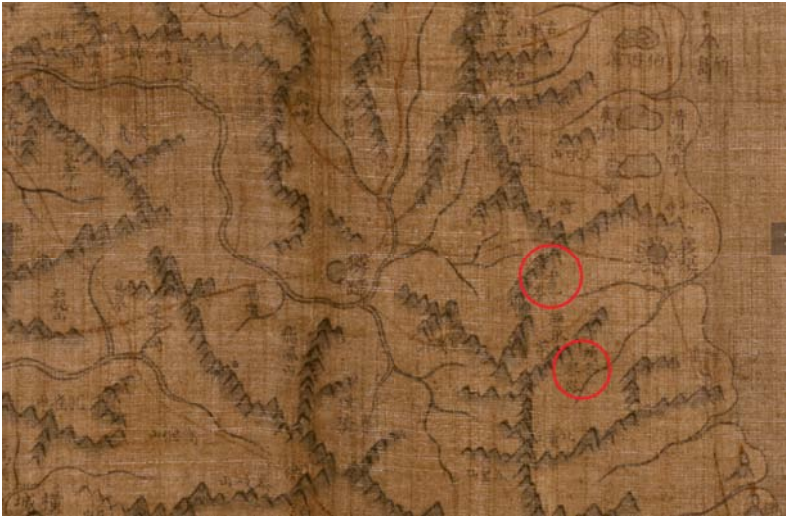


〈그림 17〉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 강원도)



〈그림 1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屏 강원도)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19〉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奎 강원도)



〈그림 20〉 여지도(輿地圖)(강원)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21〉 여지도(輿地圖)(2책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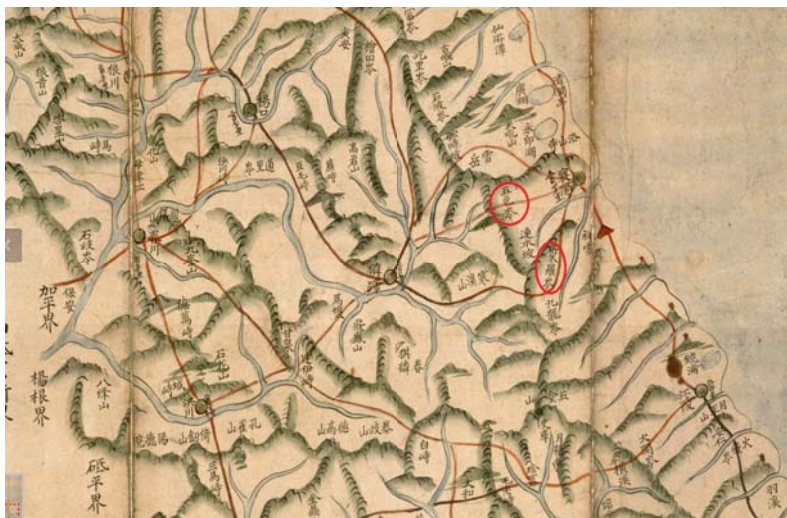


〈그림 22〉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奎 10333)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23〉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右 4709-14)



〈그림 24〉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右 4709-23)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25〉 좌해지도(左海地圖)(강원도)



〈그림 26〉 좌해분도(左海分圖)(강원도)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27〉 지도(地圖)(강원도)



〈그림 28〉 팔도분도(八道分圖)(東關)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29〉 해동지도(海東地圖)(강원도)



〈그림 30〉 관동지도(關東地圖)(2책)

白頭大幹 五色嶺



〈그림 3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그림 32〉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白頭大幹 五色嶺

<부록 V>

五色嶺 地名變更을 爲한 日誌

- 2009 ~ 2010(2년간) 양양군지 편찬사업
주관 : 양양군지 편찬위원회(후원:양양군, 양양문화원)
집필방법 : 한계령 → 오색령으로
- 2010.04.30 : 자료 수집차 국토지리정보원 방문
- 2010.03.09 : 양양군지 편찬위원회에서 오색령 되찾기 작업을 문화관광과장이 주도 이경웅 강원일보 기자 오색령에 관한 자료 제공.
- 신문보도 내용
 - 2010.4.15 강원일보 1차 기사
(한계령 명칭 “오색령”으로 바꾸자)
 - 2010.4.21 강원일보 2차 기사
(양양 오색령 옛이름 찾기 추진위 구성)
 - 2010.4.26 강원일보 3차 기사
(300년 역사 바로잡아 자긍심 지키자)
 - 2010.4.26 서울신문
(양양 한계령 “오색령”으로 바꾸자(강원일보기사 인용))

- 2010.4.26 한겨레 신문

(“한계령을 오색령”으로(강원일보기사 인용))

○ 2010.5.7 : 오색령 옛 이름 찾기 범 국민 포럼 개최

○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논문 발표

2011.10.10 제26회 향토문화공모전에서

논문부문 최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 2012.11.7 : 지명변경요청(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소동라령, 박달령을 오색령과 함께 변경요청

(소동라령은 북암령, 박달령은 단목령)

○ 2012.7 : 논문발표(최우수상 수상)

향토자료공모전에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

○ 강원일보 기사에 오색령 표기

- 2014.10.3 강원일보 기사

[양양] 오색령 일대 24시간 교통관리

○ 2014.10.15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회의실

문화유산보전 협의회 회의자료(ppt자료)에 오색령 표기된 자료 보고

○ 2016.9.1 : 양양정명 600주년“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 설치

○ 2016. 12월 백두대간 오색령(白頭大幹 五色嶺) 책자 발간

日頭大幹
五色嶺

발행인 :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집필자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편집인 :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영

발행처 : 양양문화원

인쇄처 : 대양프리컴

발행일 : 2016년 12월

